

남산의 역사와 문화



金廳

琵琶洞

橋溪河

橋經孝

長通橋

小笠井洞

大笠井洞

水

笠井洞

墨井洞

但拾洞

鉗洞

竹屋洞

草屋洞

誠明坊

山林洞

樂善洞

梅川洞

洞館

生民洞

華洞

鑄字洞

泥硯

校書館洞

墨大將洞

見火峰

雲修堂

均後居

光熙洞

南別宮

彰善坊

鐘閣

馬市橋

廟

訓鍊院

青寧橋

至聖廟

明推坊

無桃橋

龜小洞

雙里洞

南小官

龜

鷹

서울특별시 중구향토사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발 간 사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구향토사 관계 자료집을 통하여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보존 등으로 주민의 향토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제3집인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향토사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동일 중구청장님, 구의회 김사홍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문화원은 제1집으로 지역관계 논문을, 제2집으로 600년간 우리역사의 주요한 무대였던 중구에 얹힌 야사를 발간하여 중구의 역사와 인물들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는 애국가 가사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유산, 명승지, 시설물, 기념비, 동상 등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남산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널리 읽혀져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구석구석을 연구하여 더 좋은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위하여 애쓰신 향토사 연구 위원 및 자문 위원, 필자인 민속학자 이재곤(李在崧)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 12.

중구문화원장 김영남

축 사



중구문화원이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 속의 서울, 전통과 현대가 멋드러지게 어우러지는 우리들의 고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토사료를 발굴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선조의 삶의 터전이었던 우리고장의 향토사, 생활사, 사회사, 인물사 등 각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중구향토사 관계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산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서울의 상징입니다.

남산을 역사적, 문화적, 사회학적, 인물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남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널리 읽혀져 남산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향토사 연구가 계속되어 더 좋은 향토사 관계자료집이 발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 13만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애를 북돋우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하여 주신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향토사 연구위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8. 12.

중구청장 김동일

축 사



우리구의 자랑인 남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향토사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산은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 전설, 동상, 비석 등 어느 것 하나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여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높지도 않은 남산은 수도 서울의 허파이며 곳곳에 있는 약수터, 운동시설, 전망대 등은 우리 구민과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남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남산의 역사와 문화』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것도 우리 구민의 긍지를 더욱 높이는 훌륭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향토사 연구를 부탁드리며 발간되는 책을 누구나 구독하기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더 발전된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4집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중구향토사 관계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8. 12.

중구의회의장 김사홍

차 례

I. 산세와 자연생태	12
1. 산세	13
2. 자연 생태	14
(1)동물 / 14 (2)식물 / 15	
(3)살아있는 남산조성 / 19	
II. 명칭과 연혁	22
1. 명칭	23
2. 연혁	26
III. 문화재와 사적지	41
1. 문화재	44
(1)서울성곽 / 44 (2)장충단비 / 51	
(3)수표교 / 54 (4)송정전 / 56	
(5)남산 와룡묘 / 59 (6)장충동 관성묘 / 63	
2. 사적지	67
(1)남산 봉수대터 / 67 (2)남소영터 / 70	
(3)남별영터 / 71 (4)녹천정터 / 71	
(5)노인정회담터 / 72 (6)남묘터 / 74	

3. 지정보호수	75
(1)남산 느티나무 / 75	
(2)회현동 은행나무㉓ / 76	
(3)회현동 은행나무㉔ / 77	

IV. 형승(形勝)과 명소 78

1. 남산 꽃구경(木覓賞花)	87
2. 남산 8영(南山 八詠)	89
3. 청학동(靑鶴洞)	94
4. 동악시단(東岳詩壇)	97
5. 서울타워 주변	99
6. 남산식물원 주변	102
(1)남산식물원 / 102	(2)단군굴 / 103
7. 백범광장 주변	104
8. 남산 광장(安義土 廣場)	108
(1)안중근의사 기념관 / 108	(2)남산시립도서관 주변 / 110
9.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115
(1)전통정원 / 115	(2)94타임캡슐 광장 / 116
(3)한옥마을 / 117	(4)조지훈시비 / 123
10. 장충단공원 일대	125
(1)장충단 / 125	(2)수표교 / 130
(3)사명대사 동상 / 132	(4)이준열사 동상 / 134
(5)류관순열사 동상 / 136	(6)이한응선생 비 / 137
(7)남산야외식물원 / 139	(8)석호정 / 140
(9)남산의 약수터 / 141	

V. 제모습 찾는 남산	144
1.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	145
(1)왜성대공원 / 145 (2)한양공원 / 147	
2. 일제 침략기 중 남산의 훼손	149
(1)조선신궁의 건립 / 149	
(2)1936년까지 설치된 시설물 / 151	
(3)일제의 남산공원 지정 / 152	
3. 광복과 남산공원	153
(1)남산공원의 확장 / 153	
(2)남산공원의 잠식과정 / 154	
(3)남산터널 / 156	
4. 남산공원의 현황과 남산 제모습 찾기	158
(1)남산공원의 현황 / 158 (2)남산 제모습 찾기 / 159	

VI. 남산과 민속	161
1. 민간신앙	162
(1)국사당(목멱신사) / 162	
(2)장충동 관성묘 / 164 (3)남산 와룡묘 / 164	
2. 민속놀이	165
(1)씨름 / 165 (2)답청(踏青) / 166	
(3)연등구경 / 167 (4)탁족(擲足) / 169	
(5)중양절의登高(登高) / 169 (6)활쏘기 / 170	
3. 설화	172
(1)남산은 서울의 안산(案山) / 173	

- (2)국사당의 유래 / 174
- (3)남산은 참두산 / 175
- (4)남대문이 승례문이 된 유래 / 175
- (5)필동(筆洞)의 유래 / 176
- (6)약수동 부어티 고개 / 177
- (7)부티고개 유래 / 177
- (8)부엉바위 / 178
- (9)회현동 은행나무 / 181
- (10)승례문의 현판 / 182
- (11)양녕대군과 승례문 현판 / 182
- (12)윤희평의 조경 / 184
- (13)청학동 선인 이행 / 185
- (14)회현동에서 잘 된 동래정씨 / 186
- (15)상가승무노인곡(喪歌僧舞老人哭) / 187
- (16)“남자는 노래하고 여자는 춤추고 노인은 탄식하고”라는 문
제를 낸 숙종대왕 / 188
- (17)회현동의 흥가와 서울에 와서 제일 잘 된 동래정씨 / 189
- (18)남산골 샌님의 나막신, 역적바라기 / 192
- (19)동악 이안눌의 가연 / 192
- (20)남소문을 열면 여자가 바람난다 / 194
- (21)강감찬장군과 남산호랑이 / 194
- (22)왜국사신이 들던 광희문 / 195
- (23)남산골 샌님과 허생전 / 196
- (24)진고개(泥岬) / 201
- (25)진고개의 기인(奇人) 정수동(鄭壽銅) / 202

VII. 남산 기슭에 살았던 역대 선현(先賢).. 206

1. 남재(南在)	207
2. 조말생(趙末生.)	209
3. 한명회(韓明澮)	210
4. 권람(權攄)	212
5. 정여창(鄭汝昌)	214
6. 정광필(鄭光弼)	216
7. 이행(李荇)	218
8. 박은(朴閔)	220
9. 상진(尙震)	222
10. 이준경(李浚慶)	225
11. 심강(沈綱)	228
12. 이항복(李恒福)	229
13. 한준겸(韓俊謙)	232
14. 김상용(金尙容)	235
15. 박승종(朴承宗)	237
16. 김상헌(金尙憲)	240
17. 이안눌(李安訥)	243
18. 윤황(尹煌)	245
19. 김육(金堉)	247
20. 이경여(李敬輿)	250
21. 정태화(鄭太和)	251
22. 윤선거(尹宣舉)	254
23. 김석주(金錫胄)	255

24. 나홍좌(羅弘佐)	258
25. 조현명(趙顯命)	259
26. 강세황(姜世晃)	261
27. 홍양호(洪良浩)	262
28. 조만영(趙萬永)	264
29. 정원용(鄭元容)	265
30. 박영원(朴永元)	268
31. 정지윤(鄭芝潤)	269
32. 이유원(李裕元)	270

VIII. 남산의 축제 및 공연 272

1. 축제 273

(1)장충단제 / 274 (2)통일기원 남산봉화식 / 276

(3)목멱산 천제 / 279 (4)남산골 한마음축제 / 280

2. 공연 281

(1)국립중앙극장 / 281

(2)남산골 한옥마을 공동마당 / 282

남산의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수도의 성곽을 둘러싼 4대산으로는 동쪽에는 낙산(駱山)이며, 서쪽에는 인왕산(仁王山)이고, 남쪽에는 남산이며, 북쪽에는 북악산이다. 이 산들은 대부분 경사가 급할 뿐 아니라, 바위 덩어리의 산인데 비해 남산은 숲이 울창하고 산 골짜기가 그윽하고 산등성으로 오르는 길이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가 산책으로 즐겨 찾는다. 산 정상에 오르면 넓은 서울의 전경(全景)은 물론, 서북쪽으로 아늑하게 둘러싼 멀고 가까운 산들과 남서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진다.

봄이면 진달래 철쭉꽃이 산등성이마다 활짝 피고 여름이면 골짜기로 흐르는 맑은 샘물과 푸른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생활에 시달린 일들을 한 때나마 잊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녹음이 무성한 5월, 단오절이 되면 도성의 젊은 청년들과 소년들은 남산 중턱 푸른 잔디로 덮인 예장(藝場)에 모여 씨름대회를 열기도 하였고 부인과 처녀들은 소나무가지에 그네 줄을 매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기도 하였으며, 단풍이 붉게 물드는 9월(음력) 중양절(重陽節)이 오면 풍류(風流)를 즐기는 선비들은 남산의 높은 언덕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고 창(唱)을 부르기도 하였었고 계곡으로 흐르는 맑은 물에 갇힌을 빨아 말리는 선비도 있었다.

이렇게 태평세월이 흐르다가 일제(日帝)의 강권정치와 한국전쟁을 겪은 뒤 1960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설이 들어섰다. 산

꼭대기에는 서울타워(남산타워)가 들어서고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운송하고, 어질고 훌륭한 학자, 문인, 독립운동가 동상과 기념비 그리고 기념물을 비롯해서 각종 교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많은 시설물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남산은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놓여 있어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남산의 모든 것을 살펴 보기로 하자.

I .산세(山勢)와 자연생태(自然生態)

I. 산세(山勢)와 자연생태(自然生態)

1. 산세(山勢)

백두대간(白頭大幹)이 힘차게 뻗어 오다가 철령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한북정맥(漢北正脈)으로 가지를 쳤으며, 한북정맥은 축석고개(祝石峴)와 불곡산(佛谷山)을 만들고 이어 도봉산을 빗어 놓았으며, 도봉 줄기는 다시 우이령(牛耳嶺)을 만들고 한강과 마주치기 전에 한바탕 기세를 올려 다시 힘차게 일어나 북한산이라는 거대한 바위 몸체로 솟아나 곳곳에 절경을 이룬 다음, 다시 남쪽으로 조용히 돌아 인왕산을 만든 다음 남쪽으로 꺼질 듯이 뻗어 오다가 동쪽으로 휩 돌면서 가볍게 일으켜 세운듯한 산이 바로 유명한 남산으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고 왕십리에서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남산은 동서의 길이가 2.7km이고 남북의 길이가 2.1km이며, 전체 면적의 36.9%가 표고(標高) 100m이하이고 100~200m는 50.1%이며, 200m이상 13.0%를 점하고 있으며 서북 사면은 습기가 많아 식물의 종류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해발 265m의 선이 부드러운 푸른 산이나 서북쪽 기슭같은 곳은 경사가 80°가 넘는 가파른 곳도 있으나 멀리서 보기에는 부드럽고 아늑하

기만 하다. 이 산은 서울 분지의 남쪽을 막으며 또 좌우의 능선을 끼고 도는 서울 성곽의 남쪽 중심지였으며 지형학적으로 보면 남산은 준평원상(準平原上)의 편마암(片磨岩)으로 된 잔구(殘丘, monadnock)라 하겠다.

풍수지리상으로의 남산의 산형(山形)은 마치 달리는 말이 안장을 벗은 형국(走馬脫鞍形)이라고 한다.

2. 자연 생태(自然 生態)

(1) 동물(動物)

남산 숲에는 옛날부터 우리 토종인 꿩·다람쥐·박쥐·토끼 뿐 아니라 계절따라 오가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꿩·다람쥐·박쥐·산토끼도 차츰 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강을 따라 찾아드는 철새의 수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날로 더해가는 공해와 모자라는 먹이 때문이다.

남산에 사는 새들의 종류를 보면 토박이 텃새인 참새를 비롯해서 까치·박새·노랑턱멧새·곤줄박이·진박새·쭈새·상모술새·쇠막이새 등 여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다. 이 새들은 쭈새를 빼고는 모두 우리 텃새이다.

쭈새는 겨울새로 우리나라에는 10월 중순경에 와서 이듬해 5월 초순경에 날아가는데 평지·얕은 산·풀밭·숲에 떼지어 살며 풀씨·곤충 따위를 먹고 올 때에는 머리 꼭대기의 깃을 곧추세우는 것이 특이하다. 주로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만주·중국동부에서 번

식하고 우리나라 · 만주 · 중국 · 몽고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수꾸머리새라고도 한다.

「서울시 야생조류 보호 추진반」이 1977년부터 80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11월과 12월에 실시한 관찰에 따르면 겨울철이면 찾아와 지저귀던 방울새, 오목눈이는 1980년 겨울부터는 아예 날아들지도 않았으며, 또, 족새 · 피새 · 홍양진이 · 솔жат새 · 덧장이새 · 직박구리 · 지빠귀 같은 철새들도 찾아드는 수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충(害虫)을 먹이로 하고 나무 구멍을 집으로 삼는 새 이외에 나무 열매를 먹이로 하는 새들은 눈에 띄게 줄어 간다는 것이다. 남산은 공교롭게도 열매나무가 있는 곳에는 매점이나 공공시설이 있고, 또 도로가 나 있어 새들이 가까이 날아들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1998) EBS(한국교육방송)의 자연다큐멘터리에서 약수터 계곡 바위틈에서 가재를 찾았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발견하고 족제비도 목격했으며, 특히 황조롱이와 까치가 공중전을 불사하며 영역 싸움을 벌이는 생생한 장면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2) 식물(植物)

남산이라 하면 소나무가 떠오른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애국가 한 구절에서 보듯이 남산에는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이 많았었다. 옛날에는 특히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했으며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시키고 송충(松虫)을 잡았다. 이 영향으로 산은 푸르렀으며 온갖 동 · 식물의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고의적으로 남산의 소나무를 훼손시켰으며 광복 전후의 혼란기에 자연히 황폐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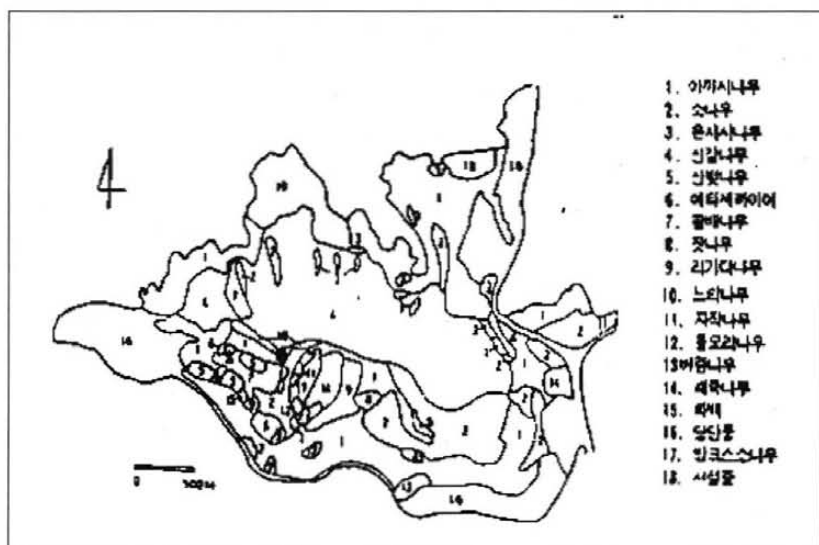
어 지금은 소나무가 있는 곳은 비교적 척박한 곳 뿐이고 큰 소나무는 많이 남아 있지도 않으며 대신 아카시아 나무와 신갈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림청은 1995년 12월 4일 「육림(育林)의 날」을 맞아 폭파철거된 외인 아파트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소나무 80그룹을 심기로 하였는데 모두 뿌리목 지름 20~30cm에 수령 30~50년 되는 나무들로서, 서울지역에서 자란 102그룹과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각각 52그룹씩 채취한 소나무들이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생긴 소나무로 평가받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춘양목을 비롯하여 충남 안면도와 경남 안강면의 소나무도 포함된다. 이렇게 전국 각지의 향토색 짙은 소나무들로 조성되는 숲은 남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팔각정에서 식물원 쪽으로 향하는 계단길과 소월로 남산타워 주변을 포함한 팔각정 남서 사면을 보면 위쪽은 느티나무와 신갈나무 군락으로 특징지어지고 그 아래 부분은 소나무와 아카시아 조림지가 뚜렷하나 팔배나무·산벚나무·신갈나무·소나무·매죽나무가 섞여있는 교목층도 많다.

시립남산도서관 옆 계곡은 물오리나무·산벚나무·신갈나무·아카시아나무 등의 교목과 당단풍·매죽나무·팔배나무 등의 아교목층과 진달래·엄나무·회나무 등 관목층을 이루며 하층에는 국수나무가 남산 전역 중에서 이곳에 가장 많고 고사리류·애기나리·신갈나무와 당단풍의 치수가 많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뒷사면 아래쪽에는 아카시아나무 조림지, 그 윗쪽은 소나무숲, 전 외인 아파트 주변은 은사시나무 조림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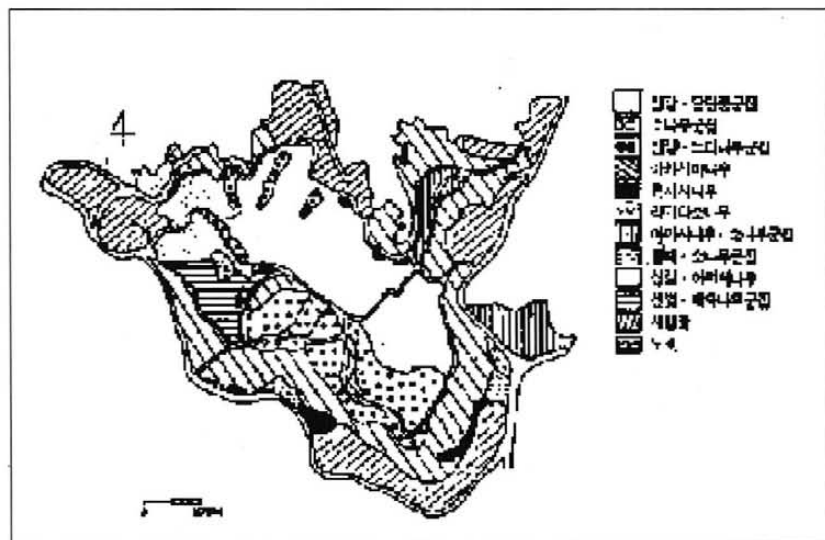
남산의 주요 식물 분포도

아카시아나무 조림지에는 물오리·자작나무·독일가문비·잣나무·소나무·은사시나무의 조림 수종이 복잡하게 섞여 있고,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팔배나무·배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층의 발달이 나쁘고 초본층(草本層)도 빈약하다. 딸기류·댕댕이덩굴·싸리류·심자화과 식물들이 삼림의 파괴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지대는 남산에서 가장 식생(植生)이 나쁜 곳이고 흉고직경(DBH) 15~30cm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북사면은 대체로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군집(群集)으로 덮여 있으며 식물(植物)의 발달이 가장 좋은 곳이다. 사면 아래쪽은 계곡과 능선으로 구분되며 습한 계곡의 식생은 신갈나무·물푸레나무가 많고 아교목층에는 당단풍나무가 많으며 식피율(植被率)은 70%이상이다. 초본층에

는 고사리류가 많다.

남산골 뒷사면은 교목층에 신갈나무가 많으나 조림한 것으로 보이는 물오리나무가 출현하며, 또 아교목층에는 팔배나무·당단풍나무·매죽나무·산벗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관목층(灌木層)에는 진달래·생강나무가 있으며, 초본층에는 국수나무·애기나무·고사리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의 거목 세그루가 발견된 사실이다. 아마 삼림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남산 북사면 중턱 아래 계곡은 서어나무 숲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서양 등골나물은 남산 서사면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최근에 퍼진 귀화식물이다. 귀화식물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교통수단에 의해서 외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농작물이 야화(野化)하여 자생하게 된 것으로써 서울 시내에는 4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화식물 중 망



남산의 현존 식생도

초나 개망초는 강화도조약(1876), 즉 개항(開港)이후에 전국에 퍼진 식물이기 때문에 자연 식생에는 귀화식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등골나물이 언제부터 퍼지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며, 다른 곳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데도 이곳 남산에만 유독 많이 퍼져있는 까닭이 무엇인가는 분명치 않다. 어떤 씨앗(種)이 한 무리집단(群集)안에서 생존하려면 그 무리 안에서의 위치, 곧 생태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등골나물의 급증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등골나물은 산초나무·담쟁이덩굴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줄참나무는 표고 100~200m인 동북사면과 서사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한데 모여(群落) 자라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남산의 낮은 지대가 대부분 주택지로 잠식되었거나 자연이 파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산의 식물 군집(群集)을 크게 나누어 보면 신갈나무—당단풍군집과 소나무군집으로 구분되며 이 무리모임은 다시 신갈나무—진달래 무리모임과 등골나물 무리모임으로 갈라진다. 이들 외에도 신갈나무—느티나무 군락(群落), 팔배나무—소나무 군락, 산벚나무—매죽나무 군락, 신갈나무—아카시아나무 군락, 아카시아나무 조림지, 은사시나무 조림지, 아카시아나무—소나무 조림지 등이 있다. 이들 무리집단(群落)은 무분별한 식수(植樹)에 기인했거나 인간의 간섭으로 생긴 식생형(植生形) 등이다.

(3) 살아 있는 남산 조성

90만평에 이르는 남산공원에는 까치, 박새, 꿩 등 조류 63종과 다람

쥐, 고양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서류인 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도롱뇽과 양서류를 먹고 사는 뱀 등은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남산의 야생동물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1종 221마리가 조사돼 아직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0년 조사에 비해서는 제비, 찌꼬리, 곤줄박이 등은 사라지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소쩍새와 같은 야행성 육식조류의 먹이인 들쥐의 서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들고양이는 천적이 없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약 150~2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고양이는 다람쥐, 야생조류와 알 등을 먹어치워 야생동물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과 주택가를 오가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등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남산에 야생동물이 줄어든 것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연못이나 계곡등이 없고 또 과도한 병충해 방제로 먹이사슬이 파괴됐으며 동물들의 은신처와 먹이가 되는 관목, 초본류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부터 2천년까지 푸른 숲이 우거지고 새가 지저귀며, 야생동물이 뛰노는 남산을 가꾸기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연학습원과 천일 약수터 주변 등 2곳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연못 주변에는 밀새(다른 새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새)사육장을 조성하고 또 야외식물원 주변에는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또 산림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라니를 방사하고 이어 멧토끼, 원앙, 흰뺨검둥오리, 산개구리, 도롱뇽 등도 방사할 계획이며, 한편 미국자리공, 서양민들레 등 외국식물을 없애고 짙레, 기린초, 억새, 마가목 등 야생동물들의 먹이와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관목류와 초

본류를 심기로 하였으며, 또 인공새집 150개를 설치하여 화학약품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중단하고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해 유기질 비료도 살포할 계획이며 다람쥐, 청설모, 작은 새들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내 관리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멀지 않아 새가 지저귀고 토끼가 뛰어노는 풍요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기대에 젖어 본다.

II. 명칭(名稱)과 연혁(沿革)

II. 명칭(名稱)과 연혁(沿革)

1. 명 칭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북악산 기슭에 궁궐이 건축되고 거기서 바라볼 때 남쪽에 솟아 있는 산인데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 높이 265m의 남산이다.

남산은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한경지략(漢京識略)』 등 옛 책에서는 목멱산(木覓山) · 인경산(引慶山) · 열경산(列慶山) · 종남산(終南山) 그리고 우리말로 마뫼 등 여러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남산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남쪽에 있는 산인데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남산—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입춘(立春)날 기둥에 써 붙이던 주련(柱聯, 春帖)에 「남산수」(南山壽)라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수여남산」(壽如南山) 또는 「수복여남산」(壽福如南山)이라 써서 대청이나 사랑방에 걸기도 하였다. 문자 그대로 수복(壽福)이 남산 만큼만 되어 달라는 축수(祝壽)의 뜻을 담고 있다. 이렇듯 남산은 수복(壽福)을 상징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순수한 우리말로 「마뫼」라 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瀾) 선생의 저서인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南風謂之麻郎景風〉이라 하였다. 이 뜻을 풀이하면 남풍(南風)은 마(麻)과람으로

곧 경풍(景風)이라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마(麻)는 남(南)을 가리키며, 뫼는 산의 옛말이다. 그러므로 마뫼란 남산의 우리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목멱산(木覓山)이라 부른 것은 조선시대 이 산 정상에 목멱신사(木覓神祠)라는 신당(神堂)이 있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조(太祖) 4년(1395) 12월 29일에 북산(北山)인 백악산(白岳山)에 산신(山神)이 있다고 하여 이 산신에게 진국백(鎭國伯)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또 남산의 산신에게는 목멱대왕(木覓大王)이라는 벼슬을 내린 다음 벼슬아치와 일반 서민에게는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이 목멱대왕을 받드는 사당을 목멱신사라 하였으며 이 신사가 있는 산을 목멱산이라 하였다.

목멱이란 한자로 나무목(木)자와 찾을멱(覓)자이다. 본래는 이 산을 목밀산(木密山)이라 하였는데 한자 음으로는 밀(密)자와 멱(覓)자가 같은 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使臣)이 목밀산을 목멱(木覓)으로 쓴 뒤부터 목멱산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보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나무를 찾는(木覓) 것이 아니라 나무가 뻗뻗히 들어선 무성한 산이라는 뜻의 목밀산(木密山)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남산을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뜻을 살펴 보기로 하자.

남산에는 두 설마재(雪馬峴)가 있는데 남산 남쪽, 곧 남산에서 서빙고동으로 뻗은 산줄기를 동서로 가로지른 고개를 큰 설마재(大雪馬)라 하고 그 동쪽에 있는 곧 남산에서 한남동쪽으로 뻗은 산줄기에 걸친 언덕을 작은 설마재(小雪馬)라 하며, 이 고개를 민간에서는 부어현(夫於峴)이라고 옛 책에 기술되어 있으며, 또 18세기 후기에 나온 도성도

(都城圖)라는 지도에는 부아현과 내부아현으로 표시되었으며, 1902년에 영국에서 발행한 「한성부지도」에는 큰 설마재를 내부아현(內夫兒峴)이라 하고 작은 설마재를 외부아현(外夫兒峴)이라 표시하였으며, 『수도전도』에는 부어현(夫於峴)이라 하였고, 『대동여지도』에는 부어치(夫於峙)라 표기하였다. 또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선생의 저서인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는 이 재를 벌아령(伐兒嶺)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다.

서울의 진산(鎭山)인 부아암(負兒岩:북악산)이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산을 모악(母岳)이라 이름짓고 서쪽에 있는 고개는 떡으로 달래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병시현(餅市峴, 떡전고개)이라 하였으며 남쪽 재를 벌아령이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북악산의 부아암은 마치 어린 아이가 등에 업혀 밖으로 달아나는 형상이므로 모악(母岳·母岳·鞍山)이라는 산이름을 붙여서 어머니로 하여 어린아이를 달래게 한 것이며 또 현재 아현(阿峴)고개는 떡전고개(餅市峴)로 떡판을 벌려서 떡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한 것이며 남산의 벌아령(伐兒嶺)이란 그래도 달아나면 아주 쳐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뜻을 담고 있다.

남산을 인경산·열경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줄기를 부어현(夫於峴)·벌아현(伐兒峴)이라 한 뜻을 살펴보자.

옛날 남소문(南小門)이 있던 곳을 부어고개(夫於峴·負兒峴)라 불렀다. 이 이름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어 또는 부아가 「버」로 되고 언덕 치(峙)가 「티」로 바뀌었다. 「티」는 언덕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또 “부어”는 “밝음”을 뜻하는 옛말로서, 부어고개·버티고개란 양지바른 고개란 뜻이 된다. 따라서 이 말은 곧 해쫓는 산(日出山) 밝은 고개

(光明峴)를 뜻하고 있다. 또 벌아령이란 “벌아”도 “밝아”가 원음으로 이 또한 밝은 고개를 한자로 대칭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산을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列慶山)이라 한 뜻을 알 듯하다. 다시말하면 서울의 안산(案山)인 밝고 양지바른 남산이여 기리기리 경사스러운 일들을 끌어들이옵소서라는 축원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산 서쪽 봉우리 중에서 바위가 깎아지른 듯한 곳을 누에머리(蠶頭)라고 하며 속칭 가을두(加乙頭) 또는 용머리(龍頭)라고 하였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남산의 지덕(地德)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뽕잎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남산에서 마주 보이는 한강 건너 사평리(沙平里)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며, 그 뒤 이곳의 지명은 잠실(蠶室)로 바뀌어 잠원동(蠶院洞)이 되었으며, 가을두와 용머리란 이름은 누에머리를 과장시켜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

2. 연 혁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駱山),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서울의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 내사산(內四山) 중의 하나이다.

조선왕조가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했을 때 남산은 풍수지리설상 안산(案山) 겸 주작(朱雀)에 해당되었다. 안산은 천성(天星)으로 말하면 천상(天床)과 사귀인(四貴人)이 되는데 천상이 잘못되면 군주(君主)가 왕위를 잃게 된다는 등 매우 중요한 산이었다. 그러나 한양천도(1394) 이전에는 한갓 작고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냥 인경산(引慶

山)이라 하였는데 조선왕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부터 남산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 뒤부터 산 이름도 목멱산·종남산·열경산·남산 등 여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성곽이 축조되는가 하면 봉수대가 설치되고 신사(神祠)가 건축되었다.

개경(開京, 개성)에서 한양천도 1년 뒤인 태조 4년(1395) 9월에 종묘, 궁궐 건축이 준공되자 태조는 성곽을 쌓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 시대에서는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성곽시설은 필수적이었으며 더구나 역전(歷戰)의 무장인 태조 이성계(李成桂)로서는 이러한 도성축조계획은 당연한 것이었다. 드디어 태조 5년(1395) 1월에 1차로 각 도의 장정 11만 명을 동원하여 18km의 도성을 쌓았는데 이때 남산의 성곽은 동소문 부근에서 남대문 부근까지 경상도 장정 5만여명이 동원되어 남산의 성곽을 쌓았으며 2차로는 그해 8월에 8만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보수하였다.

태조 4년(1395) 12월에는 남산 산신(山神)을 목멱대왕(木覓大王)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으며, 가뭄이 심하면 비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으며 이 목멱대왕을 모시는 사당을 목멱신사(木覓神祠)라 했으며, 이 신사를 나라에서 제사드리는 사당이라 하여 국사당(國祠堂)이라고도 하였다.

또 조선초기부터 남산에는 불과 연기로 긴급한 정황(情況)을 알리는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때까지 5백여년간 전국의 봉수를 받아 병조(兵曹)에 보고하였는데 남산 5곳의 봉화는 세종 5년(1423)에 완성되었다.

태종(太宗) 11년(1411) 1월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 박자청(朴子靑)이 군사 5백명과 경기도 장정 3천명을 데리고 남산에 20일 동안 소나무를

심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송충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자 한성부(漢城府. 현재 서울시청)에 명령하여 송충이를 잡게 하였다.

이해(1411) 6월에는 승도(僧徒)들이 국가 부역을 피하기 위해 남산에 초막(草幕)을 얹고 재(齋)를 올리고 남녀를 모아 소나무와 잡목을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게 하는 등 훼손이 심하자 그들의 초막을 철거하였다.

이렇듯 조선왕조는 푸른 남산 가꾸기에 주력하였다. 조선시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공조(工曹)에서 하였는데 입산금지(入山禁止)라는 뜻을 세우고 벌목(伐木)과 채석(採石)을 금지하였으며, 또 병조(兵曹)에서는 나무를 가꾸는 감역관(監役官)과 산지기를 채용하여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세종(世宗) 16년(1434) 4월에는 남산에 소나무가 드문 곳에 잣나무와 도토리나무를 심게 하였다.

세조(世祖) 10년(1464)에는 왕이 중궁(中宮:왕비)과 함께 칠덕정(七德亭)에 거둥하여 중상대장(中廂大將) 어유소(魚有沼) 등을 시켜 남산에서 짐승을 몰이하게 하고 친히 사냥을 하였다.

성종(成宗) 11년(1480) 7월에는 한명회(韓明澮), 노사신(盧思愼), 김국광(金國光), 서거정(徐居正), 강희맹(姜希孟), 박중선(朴中善), 이승소(李承召), 김계창 등이 중국(明)사신을 데리고 남산에 올라 하루를 즐겼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은 <남산의 경치가仙境(仙境)과 같다> 하면서 극찬하였다.

성종(成宗) 15년(1484) 4월에는 목면신사를 지키는 차을중(車乙仲)이 목상(木像)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감악산신(紺岳山神)이 옮겨왔다고 칭탁(稱託)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제물을 받쳤는데 이것이 탄로가 나서 차을중을 못사람을 현혹한 죄로 잡아들인 다음 율문(律文)에

는 교수형에 해당한다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자 정창손, 윤필상, 이극배 등이 말하기를

“요사한 말을 만들어 못사람을 현혹한 것은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그 뜻은 먹을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형은 무거운 듯 하다.”

하여 사형이 감면되기도 하였다.

연산군(燕山君) 8년(1502) 10월에는 초동(樵童) 5,6명이 남산 마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자 왕이 그 소년들을 보고 잡아오게 하여 궁궐 등을 본 죄로 아주 심하게 곤장을 친 일도 있었다.

연산군 9년에는 박춘동(朴春同)이란 사람이 흰 옥 네덩이를 남산에서 발견하였다고 아뢰자 사약(司鑰) 공효련(孔孝連)을 시켜 캐게 하였다.

연산군 10년(1504) 7월에는 남산 산등성이에 지은 집들은 모두 철거하게 하였으며 철거한 뒤에는 왕이 친히 살피겠다고 하였다.

연산군 11년(1505) 3월에는 남산에 잡인(雜人)이 올라가면 대궐안과 성 밖이 모두 바라보이므로 매우 좋지 못하니 산 꼭대기와 산 기슭에 담장을 쌓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고 남산 밑에 이르는 성 위에는 가시울타리를 쳐서 상 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취홍원(聚紅院, 선발된 기생이 있는 곳)등에서 땀나무가 부족하다 하여 한성부에 명하여 남산의 마른 소나무를 베어 바치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도성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산은 민둥산이 되었고 오직 내남산(內南山)한 쪽만 전과 같이 푸르렀다.

중종(中宗) 7년(1512) 7월에는 왕이 전교(傳敎)하기를

“요사이 변방에서 경보(警報)가 자주 오는데도 남산 봉수는 번번이 편안하다는 보고만 하니 병조에서는 더 엄하게 살피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중종 26년(1531)에는 “남산에 호랑이의 자취가 있고 또 개를 잡아먹은 자리가 있으니 수구문(水口門)을 일찍 닫고 호랑이를 몰아낼 모든 준비를 미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병조에서 아뢰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선조(宣祖) 27년(1594) 9월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남산과 남대문, 동대문에 대포(大砲)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유는 경기도 내에 토적이 성행하였다. 토포사(討捕使: 토적을 잡는 사신)가 경기도에 내려간 뒤부터 행색이 낯선 수상한 사람들이 한성(漢城)으로 도망와서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살펴 보아야 하나 포도장이 거느리는 순복군사(巡伏軍士)의 숫자가 적으니 병조에서 더 배정하여 순찰을 엄중히 하게 하고, 또 중국군이 돌아간 뒤에는 이 도성 안의 사람이 드물어 너무 조용하니 남산과 남대문, 동대문 등에 대포를 설치하여 야간에 시간을 정한 다음 대포를 쏘아 올리게 하여 위세를 웅장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자,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선조 29년(1596) 3월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월식(月蝕)이 시작되면 앞서의 예에 의해 남산에 올라가 살펴다가 월식이 나타나면 즉시 방화(防火)하여 그 월식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이때 사관(史官)이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 달을 구하겠다고 불을 놓는 것은 사리에 어두울 뿐 아니라 덩대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 30년(1597) 8월에 명(明)나라 도독(都督) 마귀(麻貴)가 남산 정

상에 올라가서 도성의 안팎을 둘러 보고 오랫동안 이곳 저곳을 지적한 다음 역관(譯官:통역관)에게

“지형이 매우 좋으니 이곳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안에 작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지키면 되겠다.”

하였다.

영조(英祖) 5년(1729) 6월에 왕은 목멱산과 안현(鞍峴, 무악재)의 봉수장(烽燧將)과 봉수군을 무겁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유는 15일 밤에 갑자기 구름이 끼어 어두워졌으므로 봉화를 들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상대 봉우리를 바라볼 수 없어 봉화를 들 수 없었다면 병조에 마땅히 아뢰어야 하는데도 이날 밤 목멱산 봉수장은 병조에 아뢰지도 않았으며, 또 병조에 명하여 안현의 봉수장에게 이 상황을 묻게 하였더니 안현의 상대 봉우리는 고양(高陽)의 해포(醴浦)·고봉(高峰) 두 곳인데 모두 날씨가 청명하여 피차 서로 전할 수 있었다고 하며 봉화를 든 뒤에 목멱산을 바라보니 한줄기 안개가 있어 전해 받아서 불을 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철회(撤回)하였다고 하였다. 왕은 그날밤 구름이 그렇게 심하게 끼지도 않았는데 목멱산 봉수장은 봉화를 올리지 않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임시변통으로 말을 꾸며 맞추어 대답했고 또 안현의 봉수장은 목멱산에서 전해받아서 봉화를 올리기도 전에 먼저 불을 철회하였으니 두 곳 봉수장에게 곤장을 칠 것을 명하고 봉수군도 죄를 들어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

정조(正祖) 7년(1783) 3월에 보은(報恩)의 안월성이라는 소년이 남산 잠두(蚕頭, 누에머리)에 불을 질렀다. 금위영(禁衛營)에서 그 소년을 백사장에서 효시(梟示)하자고 청하자 왕이 홍낙성에게 이르기를

“먼 지방에서 온 어리석은 소년이 국법을 모르고 저지른 것이니 어

찌 딱하지 않는가?”

하자 홍낙성이 아뢰기를

“시원스럽게 나라 법을 시행하여 뒷날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라 법이 엄중하기는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모르고 저지른 것이니 지금 극형을 시행한다 해도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겠는가? 포도청으로 하여 처리케 하라.”

하였다. 훈련원 도정 이경무(李敬懋)가 상소하기를

“신은 한결같이 『속전(續典)』에 따라 법을 시행하여 영구히 간사한 것들의 폐단을 끊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왕이 비답하기를

“형률(形律)이 적절치 못하니 신문한 다음 귀양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16년(1792) 4월에도 남산 잠두봉 아래에 불을 지른 사람을 병조에서 잡아 아뢰니 습진일(習陣日, 진법을 연습하는 날)에 끌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먼 섬에 보내 종으로 삼으라고 명한 다음

“봉화대 근처에서 불을 지른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보고할 만한 일이 아니며 주요하지도 않는 사항을 올렸으니,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손상시켰다. 병조판서를 엄중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순조(純祖) 32년(1832) 12월에 금위영(禁衛營)에서 전오위장(前五衛將) 장제급(張濟汲)이 자기 어머니 시신을 남산 금표(禁標) 중에 암장(暗葬)하였다가 발각되어 즉시 파내도록 하고 장제급은 잡아다가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왕이 다시 전교(傳敎)내리기를

“4산 금표는 중요한 곳이므로 항상 이곳을 잘 순시하고 법금(法禁)이 엄하여 누구도 감히 이러한 허무맹랑한 짓을 할 수 없는데도 바로 이러한 변괴(變怪)가 도성의 안산(案山)이 되는 남산 금표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발각되었으니 다행이나 그동안 얼마나 규율이 해이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자가 금위영의 주장으로서 이미 법으로 금지(禁法)하는 것을 저질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며 그리고 금위대장 신경(申綱)을 파직하라.”

하였다. 이 사건은 남산의 내외봉이 모두 명당(明堂)으로 알려져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나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장제급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남산에 성곽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고 봉수대를 설치하여 군사 통신망을 구축하고 남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대 군신(君臣)이 온 힘을 기울여 아끼고 가꾸었다.

이렇듯 아끼고 가꾸던 남산도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한때나마 왜군(倭軍)에게 점령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왜군은 예장동(藝場洞)의 왜성대(倭城臺) 부근(남산 북쪽 산 기슭일대)을 군사의 진지(留陣地)로 만든 다음 왜장 증전장성(增田長盛)의 군대 1천5백여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왜성(倭城)을 쌓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3백여년이 지난 19세기말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이후 일본 공사관을 남산 아래 충무로(1893년에 예장동으로 이전함)로 옮긴 이듬해인 1885년부터 일본인들은 진고개(泥岬)일대에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야외 모임을 갖을 때에는 으레껏 남산 기슭 평평한 잔디밭에 모였다. 그곳에 주로 모인 것은 임진왜란때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여 ‘왜장이’또는 ‘왜장터’라고 불리었으므로 ‘왜성대(倭城臺)’라고 이름을

붙여 그들의 성역(聖域)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왜장터’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영문군졸(營門軍卒)들의 무예연습장이어서 예장(藝場)이라고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하여 ‘왜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 뒤 1894년 갑오농민군(東學)의 봉기를 구실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청국군(淸國軍, 중국)과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全州城)에서 해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서울의 남산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포대(砲臺)를 설치하여 왕궁(王宮)을 표적으로 삼고 청(淸)에게 공동으로 내정개혁(內政改革)을 단행하자고 제의했으며 청이 이 개혁의 거절을 기회로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제(日帝)는 만약 조선 정부가 내정개혁을 거부할 경우는 무력(武力)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였다. 드디어 이해 6월 8일 남산 노인정(老人亭)에서 신정희(申正熙)·김종한(金宗漢)·조인승(趙寅承) 등과 회합을 갖었는데 이때 오오토리(大鳥圭介) 일본 공사는 내정개혁 5개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때 우리 정부는 자주적으로 교정청(校正廳)에서 개혁하고 있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사실 이 노인정 회담 내용은 일본측이 우리 내정간섭을 위한 강압적으로 나왔던 것이니 만큼 결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회담이 결렬되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침범하고 위협하여 결국은 갑오경장(甲午更張, 개혁, 1894)이라는 피동적인 개화제도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광무(光武) 1년(1897) 3월에 일본은 우리 정부와 교섭하여 저들의 거류민들을 위해 공원을 세울 것을 목적으로 남산의 1ha의 땅을 빌렸으며 이해 7월 일본 거류민들은 이 공원을 왜성대공원(倭城臺公園)이라 이름을 붙이고 각종 시설을 갖추어 갔으며 이듬해인 1898년 11월에는

이 공원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뒤에 京城神社)을 세웠다.

갑오(1894)·을미년(乙未年, 1895)의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하여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일제는 광무(光武) 9년(1905)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고 남산 왜성대(현재 예장동)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일본의 노획(老獪)한 정치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 침탈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광무(光武) 10년(1906)에는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뒤에 京城府廳)이 예장동 2번지에 자리잡은 뒤 남산 북쪽 산 기슭 일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8월 15일자로 경성공원(京城公園)이라 이름을 붙이고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규제하였다. 이어 일본 거류민의 수가 증가하자 현재 남산식물원 자리에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남산 서북쪽 기슭 일대(현재 회현동 1가 산1번지일대) 30만평의 땅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 공원으로 추진하였는데 드디어 융희(隆熙) 2년(1908) 초에 일본은 이 땅을 영구무상 대여를 받는데 성공하고 그해 봄부터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10년 5월 29일 정식으로 공원 문을 열었으며 개원식(開園式)에서 고종황제는 칙사(勅使)를 보내 치하하고 한양공원(漢陽公園)이라 명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제는 1907년에 소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丁未7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군대를 해산시킨 다음 1908년 10월에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劄軍司令部)를 남산 기슭의 필동 2가로 이전하고 1914년에는 조선군사령부로 이름을 고쳤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韓日合邦)을 발표한 일제는 남산에 있던 통감부(예장동 8번지)를 총독부(總督府)로 이름을 바꾼 뒤 1926년 10월

1일 세종로 1번지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16년동안 식민 통치의 본거지로 삼아 왔으며 또 예장동 2번지의 앞서 일본 공사관 건물을 통감관저, 총독관저(總督官邸)로 사용해 오다가 1939년에 경무대(景武臺, 현재 청와대 옆)자리로 옮겼으며 예장동 2번지 '한국의 집'일대는 경성 이사청이 있다가 뒷날 정무총감관저(政務總監官邸)로 사용하였다.

1916년부터 일제는 남산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쪽의 장충단과 남쪽의 성곽 밖, 한양공원 왜성대공원을 포함하는 대삼림공원(大森林公園)계획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1918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을 현재 남산식물원 일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양공원은 폐쇄하였으며 이 신궁은 1925년에 완공되었는데 이때 남산 꼭대기에 있던 국사당(國祠堂)은 인왕산쪽으로 옮겨 갔다.

일본 거류민의 수호신(守護神)을 모신 경성신사(京城神社)는 1898년에 왜성대공원에 세웠다가 1928년에 확장하였는데 그 뒤부터 이 신사에 한국인도 강제로 참배시켜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남산에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 외에도 내목신사(乃木神社) 도하신사(稻荷神社) 등이 왜성대공원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광복 뒤에 모조리 철거되었다.

그 밖에도 남산동 3가에 동본원사(東本願寺), 예장동 8번지 총독부청사건물에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이 자리잡고 있었고 남산 꼭대기의 팔각정(八角亭)자리에는 일장기게양탑(日章旗掲揚塔)을 설치하였으며 1927년에는 이토오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博文寺)를 현재 신라호텔 자리에 짓기 시작하여 1931년에 완공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광무 4년(1900)에는 고종황제가 항일(抗日)의 뜻으로 남산 동쪽

기슭 남소영(南小營)이 있던 자리에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과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때 순국(殉國)한 대신(大臣) 및 장병들의 충혼(忠魂)을 기리기 위해 장충단(獎忠壇)을 설치하고 비석도 세웠다. 그런데 일제는 1916년에 남산을 대삼림공원계획을 하면서 장충단을 공원으로 편입시킨 뒤 1919년 6월부터 공원시설을 시작하였으며, 이곳에 상해사변(上海事變) 때 결사대로 전사(戰死)한 일본 군인의 육탄용사동상을 세워놓기도 하였다.

그 뒤 1940년 3월 1일자로 조선총독부는 예장동 일대 34만8천㎡를 남산공원으로 하고, 장충동 2가 일대 41만8천㎡를 장충단공원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1945년 광복(光復)이 되자 일제의 사찰이던 동본원사·박문사·광운사(光雲寺) 등을 모조리 철폐하고 경성신사 자리는 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가 들어서고 현재 분수대 앞에는 침략의 원흉 이토오를 사살한 안중근(安重根)의사 동상이 1959년에 건립되었고 1960년에는 장충단 윗쪽 일본 사찰이 있던 부근에 이한웅(李漢應)열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앞 계곡 하류에는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水標橋)를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용두봉(龍頭峯) 서쪽 산 기슭, 곧 일제때의 조선신궁 자리에는 1956년 광복절을 기하여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고 3년 뒤인 1959년에는 남산 상봉(上峰)에 우남정(雲南亭)을 지었으나 1960년 4.19 의거를 계기로 이승만대통령 동상과 우남정이 철폐되었으며 1964년에는 이준(李儁)열사의 동상이 세워지고 1968년에는 사명대사(四溟大師) 동상이 건립되었다.

같은 해 남산시립도서관 옆 양지바른 곳에는 소월(素月) 김정식(金廷

湜)의 시비(詩碑)가 건립되고, 남산광장에는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 동상이 세워지고 이해에 분수대도 설치되었다. 1969년에는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金庾信) 장군의 동상이 건립되고 1970년에는 퇴계 이황(李滉)선생 동상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 동상이 남산시립도서관 옆에 세워지고 또 류관순(柳寬順)열사, 김용환지사의 동상과 외솔 최현배(崔鉉培)선생기념비, 조지훈(趙芝薰)시비가 각각 장충단 쪽과 예장동에 세워졌으며, 1980년에는 자연보호헌장비가 세워지고, 1986년에는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선생 동상이 건립되었다.

한편 정부는 1955년 7월 11일 내무부 고시로 장충공원·남산공원 확장계획을 세워 종전의 면적 418,000㎡와 348,000㎡였는데 이것을 각각 699,500㎡와 1,256,000㎡로 확장하였으며, 이것은 부근 일대의 보안림(保安林)을 편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6년부터는 거듭되는 선거로 관권과 금권이 난무했으며 행정권의 남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특권층이라는 것이 생겼고 만민(萬民)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는 망각되었다. 이와같은 시대에 공원 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는 없었다. 이어 1957년 9월 30일 내무부고시로 남산공원의 남쪽 16,600㎡에 외인주택(外人住宅)을 건립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부지는 1965년 8월 31일에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었다.

한편 1959년 3월 12일에는 내무부에서 남산대공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5.16 군사정부 직후인 1962년 7월 30일 장충단공원 용지 중에서 122,700㎡가 해제되어 자유센터와 타워호텔이 1968년에 건립되었고 같은 해인 한국사도(주)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 4월 16일에는 장충단공원 용지 10,800㎡가 다시 해제되어 중앙

공무원교육원이 세워졌다가 동국대학교 부지로 이관되었으며, 장충체육관이 이 해에 건립되었다.

1964년 12월 10일에는 시립남산도서관의 5층 건물이 세워지고 1968년 11월 22일자로 8,840㎡의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재향군인회 건물이 들어섰으며, 이해 12월에는 남산식물원이 문을 열었으나 1971년에 증축, 개원(開園)되었다.

1970년 6월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남산 남쪽 중턱에 16·17층의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2년에 완공됨으로써 남산의 자연경관(自然景觀)을 크게 훼손시켰다.

남산식물원 서편에는 지난날 육영수(陸英修)여사의 주선으로 건립된 어린이회관(지상13층, 지하3층) 건물이 197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1988년 5월에 도서관이 강남으로 옮겨 간 뒤는 서울과학교육원이 들어와 사용하고 있다.

1973년 10월 17일에는 장충단공원 남쪽 기슭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6만㎡의 공원용지 위에 세워졌다. 이로써 1940년 당시 418,000㎡였던 장충단공원은 연이은 해제·제척(除斥)으로 1984년 당시의 면적은 297,000㎡로 축소되었다. 그 밖에도 어린이 야구장·테니스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장충단 일대가 지녔던 자연공원으로서의 옛날의 그 정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손(汚損)되었다.

강남이 개발되자 남산은 교통의 장애가 되어 중구 필동과 용산구 한남동 사이의 제1호터널이 개통되고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장충동을 연결하는 제2호터널이 제1호터널과 함께 1970년 12월 4일에 개통되었으며, 또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회현동을 잇는 제3호터널이 1978년 3

월 31일에 개통되었다.

서울을 상징하는듯한 서울타워(일명 남산타워, 전파관리시설)는 남산 꼭대기에 세웠는데 이 탑은 높이가 236.7m로 1975년 8월에 완공되었으나 1980년 10월부터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그 뒤 1984년 9월 22일 건설부고시로 근린공원이던 장충단공원을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하였는데 당시 면적은 297,000㎡였다. 따라서 1984년 9월 이후부터 장충단공원은 공식명칭으로서는 소멸된 것이다.

그 뒤 1990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필동 2가와 예장동 각 일부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首都警備司令部)와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가 교외에 이전하게 되자 1989년에 이 부지를 인수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1998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또 한옥마을 상층부 부지 1,500평에는 서울정도 6백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4년 11월 29일 현재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품목 6백점을 지하 15m에 매장한 94' 타임캡슐 광장을 만들었으며 한옥마을 옆에는 2만 280평의 전통정원을 조성하였다.

1994년 11월에 철거한 남산 외인아파트와 외인 주택터에는 남산야외식물원을 조성하여 1998년 2월에 문을 열었다.

III. 문화재(文化財)와 사적지(史蹟址)

III. 문화재(文化財)와 사적지(史蹟址)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유형(有形)문화재와 무형(無形)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유형문화재란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그림·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無形)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이란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 등 사적지로서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또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관상상(觀賞上) 큰 것과 그 밖에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과 그 자생지(自生地) 광물과 동굴 등 학술상 큰 것은 모두 기념물에 포함된다.

민속자료란 의식주·생업(生業)·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문화재는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

화재로 구분되는데 지정문화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얻어 지정하게 되며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사적 등으로 구분하며, 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와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기념물은 고분·성지 등 역사기념물과 명승지 동식물 등 천연기념물로 나뉘어져 보호를 받으며 민속자료인 경우도 유형과 무형으로 구별되는데 신앙·연중행사 등 무형인 경우 그 기술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가옥·의복 등 유형민속자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하며 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이외에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따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문화재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남산에는 사적으로 성곽이 있으며, 유형문화재로는 장충단비와 수표교가 있고 기념물로는 남산봉수대지가 있으며 민속자료로는 와룡묘·관성묘 등이 있고 문화유적지로는 남소영터, 남별영터, 남묘터, 녹천정터, 노인정회담터, 동악시단 등이 있고 지정보호수로는 남산느티나무 등이 있다.

이들 문화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문화재(文化財)

(1) 서울 성곽(城郭)

【사적 제10호, 중구 장충동 2가 4~5. 1963.1.21(1933.8.27)지정】

①태조의 성곽 축조

태조(太祖) 4년(1395) 9월에 궁궐과 종묘의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자 태조는 도성축조 명령을 내렸다. 그 해 9월에 도성(都城) 축조계획을 세우고 이듬해(1396) 1월 9일에 백악신(白岳神)과 5방신(方神)에게 고하는 개기제(開基祭)를 지내고 경상, 전라, 강원도와 평안도의 안주(安州) 이남, 함경도의 함흥 이남의 민중 11만8천70명을 동원하여 성 쌓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는 심덕부(沈德符), 조준(趙浚) 등의 감독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만9천5백척(尺)의 성터를 1구간 6백척으로 하여 97개구로 나누고 또 1구를 다시 6호(號)로 등분하여 (1호 1백척씩) 공역(工役)의 책임을 세분하였으며 그리고 각 구는 천자문의 글자 순위로 자호(字號)를 정하였는데 남산의 성곽, 즉 동소문 부근~남대문 부근은 41구간으로 내(來)자에서 진(珍)자까지 2만4천6백척인데 담당구역이 제일 많은 곳으로 경상도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제일 적은 곳은 강원도로서 8구 4천8백척이었다. 같은 6백척이 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 지세가 높고 낮고 험하고 쉬운데 따라 인부(人夫)배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원된 인원수 11만여명의 97개구의 평균치는 1구당 1천2백여명으로서 담당구역이 제일 많은 경상도에서는 근 5만명의 인부가 축성공사에 동원된 셈이다.

그리고 감독자와 담당지방의 책임을 묻기위한 방식으로 성벽 바깥측 돌에 감독자의 성명, 군명(郡名), 자호(字號)를 새겼는데 지금도 태조시대 석축으로 보여지는 남산 동쪽 성벽위에 경상도 구역의 표시인 「崑字六百尺」 「劍字六百尺」 등의 글자가 남아있다.

어쨌든 남산의 축성공사는 경상도에서 동원된 4만9천8백97명의 인부에 의해 이해 2월 28일까지 49일간의 축조작업을 대체적으로 끝을 냈다.

축성방식은 자연석으로 쌓되 기초석은 장대하고 수직형의 성벽이 되도록 하였다. 돌과 돌사이에는 작은 돌을 메꾸었으며 성기(城基)가 높고 험한 곳은 석성(石城)으로 하여 높이가 15척이다. 낮고 평탄한 곳은 토성(土城)으로 축조했는데 하단(立端)의 넓이가 24척이며 상단은 18척이고 높이는 25척이다.

②세종때의 개축공사(改築工事)

태종조(太宗朝)에서 계획만 하다가 착수하지 못하였던 도성수축문제는 세종때 와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태조때 축성이 적지 않은 미비점이 있었으며 또 그 후 20여년을 지나는 동안 토성(土城)의 붕괴, 수문(水門)의 좁고 막힘 등 여러 가지 개수(改修)를 요(要)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종 3년(1421) 10월에 당시 태상왕(太上王)인 태종(太宗)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수축(修築)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세종은 태종을 따라 여러 아우, 그리고 대신(大臣)들과 함께 우봉현(牛峰縣, 황해도 금천)과 임강현(臨江縣, 경기도 장단)으로 사냥 나갔다가 군장리(軍藏里)에서 점심을 하게 되었는데 태종은 이야기가 도성이 무너져 있는 사실

에 미치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우의정(右議政) 이원(李原) 등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도성은 수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큰 공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수고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그 수고로움을 당하고 주상(主上)에게 편안함을 남겨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참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하는 감동적인 말이었다. 이때 우의정 이원이 말하기를

“나라의 도성은 사가(私家)의 울타리 같습니다. 지금 벼가 좀 풍년들었으니 수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찬성하였다. 이어 10월 3일에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영의정 류영현(柳延顯) 우의정 이원(李原)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박자청(朴子靑)·전흥(田興)·이명덕(李明德)·이천(李蕆)·조계생(趙啓生)을 임명하고 먼저 수축해야 할 곳을 조사하였는데 토성(土城)이 기울고 무너진 곳이 2만5,535척이며 석성(石城)이 기울고 무너진 곳이 3,946척인데, 토성 무너진 곳은 매1척에 인부 15명, 석성이 무너진 곳은 매1척에 인부 5명씩을 예정하고 또 따로이 서대문 웅성(壘城) 쌓는데 인부 1천명을 예정하여 총 소요인부 4만2705명을 전국 8도에 배정, 징발하여 수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토성 무너진 곳을 개축하는데는 1척당 소요인부 15명으로 하여 석성(石城) 무너진 곳의 5명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은 토성을 전부 석성으로 쌓기 때문에 보축(補築)이 아닌 창축(創築)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한 체제(體制), 실용(實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결함이 많은 토성을 무리하게 하여서라도 토성을 전부 석성(石城)으로 개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역(工役)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 8도의 정규군을 제외한 봉족군(奉足軍, 정규군의 생활을 돕는 사람), 잡족군(雜足軍) 등 총 40여만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12월에 대신(大臣)들로부터 처음 쌓을 때에도 20여만의 인부로 되었는데 수축(修築)하는데 너무 많은 인부를 동원함은 옳지 못하다는 반대를 하여 10여만의 인원을 감소하고 32만여명의 역군(役軍)을 8도에 배정하여 동원하게 되었다. 각 도의 동원된 인부수를 보면 경기도 2만 188명(13구 1942척), 충청도 5만6112명(10구 5256척), 강원도 2만 1200명(3구 1840척), 황해도 3만 9888명(25구 3076척), 전라도 4만 9104명(15구 4472척), 경상도 8만 7368명(22구 7354척), 평안도 4만 3392명(7구 4017척), 함경도 5208명(2구 530척)으로 총 동원인부가 32만2460명이며 수축구간(修築區間)은 97구이며 척수(尺數)는 2만8487척이었다.

드디어 세종 4년(1422) 1월 15일에 도성 개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인부(民丁)를 인솔한 지방군수, 현령만도 150명으로 직접 감독하여 자기 책임량 달성에 노력하였고, 또 인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만 완성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책임제였기 때문에 착공한 지 38일만인 2월 23일에 완성하였다.

성의 높이도 태조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태조 때에는 험하고 높은 곳의 석성높이는 15척, 평지 토성의 높이는 25척, 수구(水口) 양쪽의 석성을 16척으로 하였으나 세종때 개축한 것은 험고한 곳의 석성을 16척, 좀 낮은 곳은 20척, 평지에는 23척으로 하고 또 3간(間)이던 북변수구문(北邊水口門)은 4간으로 하고 2간이던 남변수구문(南邊水口門)은 3간으로 하였다. 지금도 광희문(光熙門)에서 남산 마루를 지나 남산공원에

이르는 사이에 남은 성벽 중에는 세종 4년 수축때에 이곳 또한 경상도 민정(民丁)들에 의해 수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각자(刻字)들을 찾아 볼 수 있다.

③영조(英祖)때의 수축공사

태조때 단기간에 축성한 도성은 훼손 등 붕괴가 잦아 세종때 개축하였으나 선조때 임진왜란, 인조때 병자호란 등으로 훼손되자 영조(英祖) 18년부터 도성수비문제가 대두되어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이듬해인 19년(1745) 8월에 도성을 수비할 것을 확고히 하고 그 해 11월에 우의정(右議政) 조현명(趙顯命)의 의견을 받아들여 3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도성축성을 분담시켜 수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조 19년 이후 도성을 수축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뒤 영조 21년(1747) 7월 6일에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에 도성을 분담하여 수축수비(修築守備)케 하였으며 이듬해인 영조 22년(1748) 7월에 「개축도성퇴비처」(改築都城頽圯處)라고 한 것을 보면 영조 19년에 수축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공사는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21년에 3군영에 도성을 분담시킨 뒤에야 수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남산 방면의 성곽 수축은 금위영의 전정(前停)·좌정(左停)·우정(右停)에서 담당하였는데, 즉 돈의문(敦義門)에서 광희문(光熙門) 남촌가(南村家) 뒤까지로 5,042.5보(步)였으며, 수비(守備)는 광희문에서 숭례문(남대문)까지였다.

그러나 이 때에 수축한 도성은 모두 40여곳이었으며, 이 40여곳의 수축은 성 전체를 수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석회(石灰)로 성카퀴만 바른 것도 있었다.

영조는 수축공사 총책임자였던 어영대장(御營大將) 구성임(具聖任)을 보고

“멀리 성첩(城堞)을 바라보니 마치 흰 옷에 새 옷깃을 단 것 같아서 보기에는 아름답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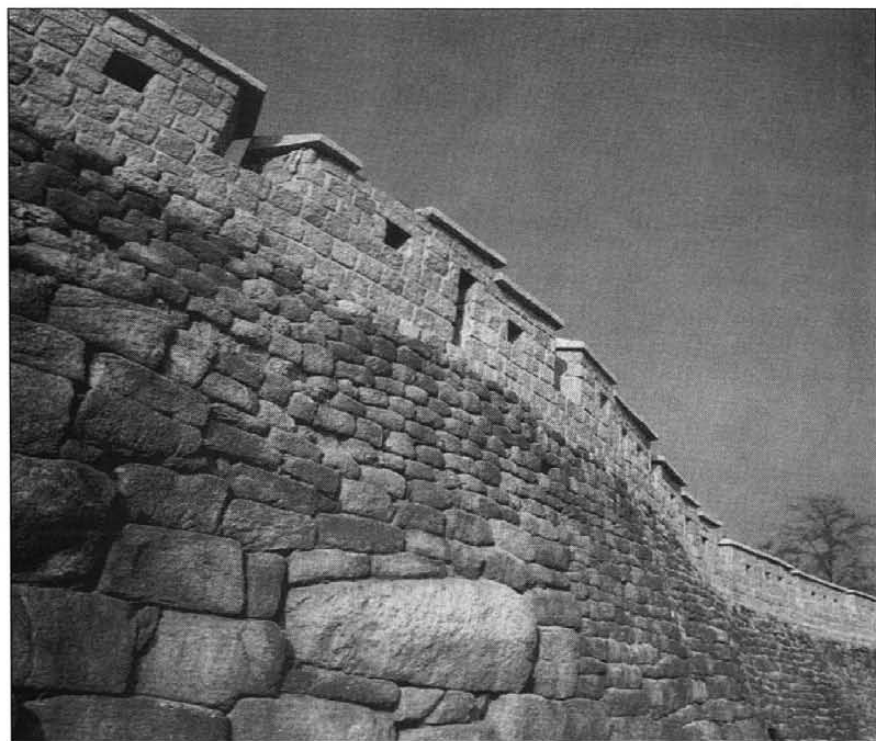
하였으며, 도성 수축을 극력 반대하였던 사신(史臣)들은 구성임이 도성을 지켜야 한다는 설(守都城之說)로써 임금께 아부한다고 비난하면서 도성을 수축한 것은 분(粉) 단장에만 힘써서 옛날에 바른 회벽(灰壁)이 견고하여 굵어 내기가 곤란하면 철송곳으로 파내고 다시 발랐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구성임은 회의석상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성을 수비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으며 영조 22년(1748)에는 도성 수비책 16조를 올렸으며 이듬해 2월에는 수성절목(守城節目)을 만드는 등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도성수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으며 임금께 아부하기 위해서 도성수비론을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영조 27년(1751)에 수성책자(守城冊子)를 간행 반포하고 수성(守城) 결의를 굳게 하였다.

④ 일제(日帝)의 도성(都城) 파괴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탈취한 뒤 궁궐 건물의 파괴는 물론 도성까지도 단절시키고 파괴하여 서울 주변에 있는 성곽의 원형은 제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중 남산 주위의 도성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도성 출입의 관문인 남대문 주변 일대의 성지(城址)는 전연 볼 수 없다. 남대문 남쪽으로부터 남산 정상에 이르는 성벽은 남산광장에다 일본신궁(日本神宮)을 짓느라고 성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남대문에서 남산



복원된 성곽

광장에 이르는 사이에 성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남산광장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에 약간 남아 있을 뿐이다.

광희문 근처를 보더라도 현재 복원시켜 놓은 문의 남쪽으로 약간의 성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정부는 남산에 쌓아진 조선시대의 도성인 광희문~남소문~숭례문까지의 약 3200m를 1977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광희지구의 300m를 77년에, 장충지구의 1053m와 남산지구의 1607m를 각각 1977~78년까지 성곽 복원을 완성하였다.

(2) 장충단비(獎忠壇碑)

【유형문화재 제1호, 중구 장충동 197. 1969.9.18 지정】

장충단비는 1.5m쯤 되는 그렇게 크지않은 장방형 애석비(霽石碑)이다. 정면에는 고종(高宗) 황제가 손수 쓴 '獎忠壇'이란 제전(題篆)이 새겨져 있다(일설에는 純宗이 황태자로 있을 때 손수 쓴 것이라고도 한다). 뒷면에는 당시 원수부회계국환장(元帥府會計局換長) 겸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육군부장(陸軍副長) 민영환(閔泳煥)이 고종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짓고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음기(陰記)는 총 143자로 된 한자인데 내용을 보면

고종황제 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갑오(甲午)·을미(乙未) 등 사변을 만났을 때 군인으로서 그 어려움에 처하여 죽은 이가 많아 슬프다. 그 서릿발 눈보라에도 늠름하고 당당했던 뛰어난 절개는 밝기가 해, 별과 같다. 충성과 의리를 길이 감싸 제사를 지내라는 어명(御命)이 있어 단을 마련하고 비를 세워 길이 표창하고 또 봄, 가을로 제사를 드리니 백세(百世)에 빛남에 보답함이다. 그 사기(士氣) 군인들 마음을 북돋울지니 그 아름다움 크게 장하다

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예고(禮考)에 의하면 장충단이 이곳 남소영(南小營)에 설치된 것은 1900년 9월로, 처음에는 홍계훈(洪啓薰)·염도희(廉道熙)·이경호(李璟鎬)를 주신(主神)으로 제향(祭享)하고

김홍제(金鴻濟)·이학승(李學承)·이종구(李鍾九)를 배향하여 봄·가을에 제(祭)를 지냈으나 그 뒤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 등이 군인이 아니라 해서 빠지게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어 장충단의 제향신위에 증가하였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활개치는 시기에 이러한 항일(抗日) 인물들의 장충단 제향은 우리 군인에게 많은 감격을 주었고 또 고무되어서 일제의 만행이 극심하여 갈수록 일반시민의 장충단에 대한 경모심은 더욱 컸었다. 1900년 9월 19일 장충단이 설치되던 날 황성신문(皇城新聞)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예기치 않던 사변을 당하여 스스로 제몸이 반드시 죽어야 할 지경에 있음을 알고 어려움에 임하여 의기(義氣)를 발휘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으니 문신가(文臣家)·세록가(世祿家)·권귀가(權貴家)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을 이들은 했다. 가히 그 의기 그 충성은 해와 별같이 빛났다. 무릇 사람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함이 인정이라. 삶을 사랑함이 어찌 유독 높은 관리 세도가들 뿐이며 죽음을 좋아할 이 어찌 홀로 상민(常民)뿐이리요. 나라에 보답해야 할 날에 이르러 마침내 사람과 짐승이 다름을 나타내었나니 구차하게 산 사람이여 마음 속으로야 어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장충단은 원래 지금 ‘한국 유림 독립파리장서비’(韓國儒林獨立巴里長書碑)가 서 있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는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큰 길가 동쪽에 있었다. 단은 폐사(廢祀)된 뒤에도 건물만은 남아 있었으나 한국전쟁때(1950~53) 없어졌고 비는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신라호텔 전신인 영빈관(迎賓館)을 지으면서 1969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다.



고종이 제전(題箋)을 쓰고 민영환이 비문을 지은 장충단비

(3) 수표교(水標橋)

【유형문화재 제18호, 중구 장충동2가 197-1. 1973.6.7 지정】

수표교는 길이 27.5m, 폭 7.5m, 높이 4m되는 조선왕조 초기에 건설된 돌다리이다.

이 교각(橋脚)은 옆으로 4줄, 길이로 8줄을 배치하고 3장의 장대(長臺)를 건너지른 위에 다시 동틀돌을 놓고 청판돌을 놓았으며, 좌우의 개천둑에도 장대석(長臺石)을 쌓아서 굳혔다. 또 네모진 기둥돌은 두 개씩으로 겹쳐졌으며 아랫돌은 그것이 주초(柱礎)를 겸한 기둥이었던 듯 덜 다듬어졌고 위의 돌은 매끄럽게 다듬어졌는데 이들 기둥은 흐르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마름모꼴로 되어 있다. 교각·횡방(橫防)·종방(從防)·교각석 등의 구성과 형태는 조화있고 면밀하게 꾸며



장충단으로 옮긴 수표교

졌으며 또 다리 양가에는 돌난간(石欄干)도 베풀어져 있어서 더한층 아름답다움이 돋보인다. 전체적인 수법에 있어서는 성동구 행당동 중랑천(中浪川)의 살곶이 다리(箭串橋)와 같은 형태이지만 공법(工法)이나 기법(技法)에 있어서는 수표교가 월등히 정교하다. 따라서 살곶이다리는 석재(石材)가 장대하고 질박하여 호쾌한 느낌을 풍기는데 비해서 이 수표교는 진지하도록 아름답다.

조선시대 청계천에는 광통교(廣通橋)·장통교(長通橋)·하량교(河良橋)·효경교(孝經橋:永豐橋)·마전교(馬廐橋:太平橋) 등 돌다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차례로 놓여져 있었다. 지금의 중구 수표동(水標洞)과 종로구 관수동(觀水洞) 사이에 있는 수표교의 놓인 연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태종(太宗) 6년(1406)에 만들어진 청계천에 가설한 다리 중의 하나로 적어도 세종때까지는 완공하였다고도 하고 세종 혹은 성종시대에 가설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성종 3년(1421)에 가설된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고증은 없다.

원래 이 지점에 처음 놓인 다리는 마전교였으며 그 마전교 서쪽에 수표(水標)가 세워진 것은 세종 23년(1441)이었으며 이 때의 수표는 두 개로 된 부석(趺石) 위에 자의 칫수를 새겨 넣은 나무기둥을 끼워 세운 목제(木製)였는데 성종 때 돌로 만든 수표돌로 바뀌면서 마전교(馬廐橋)는 수표교로 고쳐 불리어진 듯하다. 다시 말하면 수표교라는 이름은 수중주석표(水中柱石標)라고 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청계천 가운데 수표교 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1959년 청계천이 복개됨에 따라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1973년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이 수표석은 1760년(영조 36)에 수표교를 수리할 때 새로 교체한 것으로(?) 높이 3m, 너비 20m의 화강석으로 된 부정 육면 방추형(不正六面 方錘形)의 돌기둥으로서, 위에는 연꽃무늬의 머리돌이 놓여 있고 밑은 모가 난 초석으로 땅 속에 박혀 있다. 돌기둥에는 양면에 주척(周尺) 1척마다 눈금을 1척으로 10척까지 새겼고 3, 6, 9척 되는 곳에는 구멍을 파서 각각 갈수(渴水), 평수(平水), 대수(大水)를 헤아리는 표시로 삼아 6척 안팎의 물은 보통 수위, 9척 이상되면 위험 수위를 나타내어 개천의 범람을 예고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물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다리돌기둥에는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수준(水準)을 새겨 물의 깊이를 재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경진년(庚辰年) 곧 영조 36년(1760)에 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준설한 사실을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존되어 오고 있는 수표석은 영조 36년(1760), 영조 49년(1773) 또는 순조 33년(1833) 등 제작 연대에 있어 많은 설이 있으나 ‘庚辰地平’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1760)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4) 승정전(崇政殿)

【유형문화재 제20호, 중구 필동 3가 26-1. 1974.1.15 지정】

① 건물의 구조

필동 동국대학교 안에 정각원(正覺院)이란 현판이 걸려진 정면 5칸, 측면 4칸에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이 건물이 승정전으로 이 현판은 마루 안 정문 위에 걸려 있다. 승정전은 원래 조선시대 오대(五大) 고궁(古宮)의 하나인 경희궁(慶熙宮)의 정전(正殿)이다.

주춧돌과 기둥이 둥글며 축부(軸部)는 기둥 상부를 창방(昌枋)으로만



동국대 경내에 있는 현재의 송정전 모습,
正覺院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짚을 뿐 평방(平枋)이 없다. 또 공포(拱包)도 주심(柱心)에만 있고 주간(柱間)에는 없다. 따라서 기둥은 직접 주두(柱頭)를 받치고 주두 위에 공포가 놓여 있다. 공포는 바깥쪽이 이출목(二出目)으로서 포작(包作)으로 되어 있으나 안쪽은 포작이 아니고 양봉형식(梁奉形式)으로 바뀌어서 보를 받쳤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창방(昌枋)위에는 화반(花盤)이 있어서 장혀(長舌)를 받쳤고 장혀는 도리(道里)를 받고 있다.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되어있는 중에 가운데 칸만은 조정(操井)천정이다.

평면은 정간(正間)이 양간(梁間) 1칸, 도리간(道里間) 3칸으로 되었고

퇴간(褪間)은 양간(梁間)의 앞뒤로 각 1칸이고 도리간 좌우도 각 1칸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종마루에는 취두(鷲頭), 합각(合閣)마루에는 용두(龍頭), 춘척(春舌)마루에는 잡상(雜像)이 얹혀 있다.

조선왕조 후기의 건축은 다포(多包)집과 익공(翼工)집으로 양별할 수 있는데 이 숭정전은 다포집도 아니고, 익공집도 아니다. 조선후기의 건축은 그 계열이 다포집과 주심포(柱心包)집이 있는데 다포집은 평방이고 공포(貢包)가 주심과 기둥사이에 모두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심포집은 평방이 없고 공포는 주심위에만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이러한 특징은 후기에도 계승되었는데 다만 주심포집의 공포가 변형되어 익공(翼工)으로 된 것이 달랐기 때문에 후기에는 주심포집을 익공집이라 하였다. 그런데 숭정전은 평방이 없으므로 그 짜임새는 익공계의 형식인데도 기둥 위에 도리를 받치고 있는 까닭에 구조상으로 익공의 모양이 아닌 포작(包作)으로 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②연혁

숭정전은 경희궁이 창건된 1616년(광해군8)에 건축되었으며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일제시대인 1926년으로 당시는 조계사(曹溪寺)의 본당(本堂)으로 쓰이다가 1976년 서울시에서 다시 보수한 뒤 법당(法堂)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부 바닥에는 널마루가 깔렸고 벽부분에는 유리창이 끼워져 있으며 기단(基壇)도 장대석(長臺石)만이 둘러워 있고 그 위로는 양회가 발라져 있을뿐 기단석의 대부분은 없어져 기단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다.

숭정전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있을 때에는 정전으로의 체모가 갖추어

져 있었다. 둘레에는 무랑(庶廊)과 담이 둘러 있었고 남쪽에는 숭정문(崇政門), 동남쪽에는 건명문(建明門) 그리고 동쪽에는 여추문(麗秋門), 서쪽에는 의추문(宜秋門)이 있었다.

숙종(肅宗) 36년(1710)에 보령(寶齡) 60세를 축하하는 헌수하례(獻壽賀禮)를 숭정전에서 받았고 경종(景宗)·정조(正祖)·헌종(憲宗) 임금의 즉위식을 올리고 숭정전에서 하례를 받은 유서깊은 궁궐이다.

(5) 남산 와룡묘(臥龍廟)

【민속자료 제5호, 중구 예장동 산 5-6. 1974.1.15 지정】

①당의 구조

와룡묘는 3간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된 건물로 왼쪽처마에 연이어서 정4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으며 사당 안에는 제갈공명인 와룡선생상이 석고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는 관성제군상이 체형(體形)을 지니고 모셔져 있으며 두 분의 신상 앞에는 길게 제단이 놓여 있다.

②유래

와룡묘는 고대 중국 촉한의 재상 제갈량(諸葛亮)을 모시는 묘로 예장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나 현재 행정구역은 필동으로 되어 있다.

이 묘는 위(魏), 촉한(蜀漢), 오(吳) 등 삼국시대에 유비(劉備)를 도와 촉한을 세운 제갈공명(諸葛公明)을 봉안(奉安)한 사당이다. 선생의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 량(亮), 자(字)는 공명이며 호는 와룡(臥龍)으로 이곳 남산의 와룡묘는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와룡묘 입구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약 6백여년전 이곳 뒷면 암벽에 제갈공명의 영상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며, 그 뒤 철종(哲宗) 13년인 1862년에 선생의 위대한 행적을 추모하는 유지들이 이 사당을 창건하였으나 1924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되었는데 유지들이 힘을 모아 다시 재건하고 이름도 와룡묘라 하였다. 이때부터 시봉인(侍奉人)이 상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분향(焚香), 배례(拜禮)했으며 탄신일과 기일(忌日), 명절 등에 제향(祭享)하고 각종 행사를 행하였다.

1976년에 건물이 퇴락하자 시봉인이 유지들과 합심하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③신상(神像)

와룡묘 안에는 중앙에 와룡선생상이 석고로 봉안되어 있다. 머리에는 와룡관을 쓰고 옷은 녹색 도포를 입었으며, 오른손은 우선(羽扇)을 들고 가슴쪽에 대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위에 놓고 좌정한 자세이다.

또 선생의 오른쪽에는 석고로 된 관성제군(關聖帝君, 關羽)상이 모셔져 있다. 황색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좌정해 있다. 오른손은 책을 펼치고 왼손은 책쪽으로 가볍게 구부리고 있으며 다리 사이에는 긴 칼을 세워 왼쪽 무릎에 기대어 놓고 있다.

와룡묘 뒤편에는 삼성각(三聖閣)이 있는데 산신각(山神閣)이라고도 한다. 중앙에는 산신님이 모셔져 있고, 오른쪽에는 칠성님(七星), 왼쪽에는 독성(獨聖)이 모셔져 있다. 산신님은 석고를 벽면에 붙여 양각형식으로 만들었다. 머리에는 복건같은 것을 쓰고 수염을 길게 늘였으며 붉은 도포를 입고 아래에는 녹색옷을 입었다. 또 왼쪽 무릎은 세웠으며 오른 손은 부채(羽扇)를 들고 있으며, 뒤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칠성(七星)님은 부처의 형상이고 독성님은 민머리에 붉은 도포를 입고 오른손에 단장(短杖)을 잡고 있으며 왼손에 염주를 쥐고 있다.

와룡묘 왼쪽 단군성전(檀君聖殿)의 단군상은 체형(体型)을 지닌 석고상으로 되어 있다. 복식은 상(像)위가 물감으로 칠해져 있으며 양손을 소매 안에 넣고 앉아 있다. 도포를 입고 있으며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다.

④도구 및 제의(祭儀)·제비(祭費)

와룡선생 앞에는 일산(日傘)이 놓여 있으며 관성제군 앞에는 청룡도(靑龍刀) 두자루와 삼지창(三枝槍) 한 자루가 놓여 있다. 그 밖에 제단

위에 향로와 촛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기(祭器)가 있다.

제사는 음력 6월 24일에 와룡선생과 관성제군 두 분에게 제사 지내며, 평상시에도 신도들이 주로 이른 새벽에 와서 득남(得男) 및 소원성취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

옛날에는 와룡선생의 탄신일과 기일, 명절 등의 날에 제향(祭享)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된 것으로 보인다.

제사 의식은 제수(祭需)를 진설한 다음 술을 올리고 시봉인(侍奉人)의 독축(讀祝), 배례(拜禮)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 때에는 신도들이 참석하여 치성을 드리는데 약간의 돈을 놓고 절을 하거나 초만 가져와서 불을 켜고 술을 올리기도 한다.제의(祭儀)가 끝나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복(飮福)한다.

제물은 떡·제육 그리고 각종 나물, 과일 등을 시봉인이 준비하며 제주(祭酒)는 소주를 쓴다.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몇 천원씩의 돈을 내고 절을 하며 초나 향을 사오는 사람들도 있다.

당을 관리하는 시봉인이 제수를 준비하며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당주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⑤제(祭)의 목적

후세에 이르기까지 숭앙을 받고 있던 제갈공명을 신격화(神格化)하여 제를 드리면서 가정의 안녕과 복을 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6) 장충동 관성묘(關聖廟)

【민속자료 제6호, 중구 장충동 2가 186-40. 1974.1.15 지정】

①당의 구조

대지 100평에 건물은 가로 250cm, 세로 약 300cm이며 입구의 문은 격자문(格子門)으로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다. 1.5m가량의 돌담이 둘러져 있으며 당이 정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마루를 통해 당에 들어가면 정면에 관운장(關雲長) 내외분 상이 있는데 왼쪽에는 관운장, 오른쪽에는 부인상이 있다. 평상시에는 금색 천으로 가려 놓는다. 왼쪽 벽에는 장군상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벽에는 신령님이 모셔져 있다. 평상시에는 장군과 신령님은 빨간색 천으로 가려 놓았으며 관운장과 장군, 신령님 사이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다. 마루와 방 사이도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위에는 關聖廟(관성묘)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다. 마루와 출입구 위에는 남영관성묘(南營關聖廟) 영신사원 방명록(永信社員 芳名錄)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고 백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②유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원병(援兵)으로 온 명(明)나라 군사가 이곳에 관성묘를 세우게 된 것이 그 시초인데 세우게 된 이유는 임란 때 명군의 주둔지이던 이곳은 명군의 야전병원 같은 것이 있어서 당시 유격장(遊擊將) 진인(陳寅)이 울산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하게 되어 완치되었다. 그는 특히 명나라 장수 중에도 관우(關羽)에 대해서 신앙이 두터웠고 자신의 상처가 완쾌된 것도 관우의 현령(顯靈)에 의한



좌측에서 본 관성묘

것이라고 믿었다. 선조는 몸소 이곳을 방문하여 명나라 부상 장병을 위문하기도 하였다. 일설에는 엄비(嚴妃)가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은 관성묘라고 부르나 1960년대에는 동네에서 부군당(府君堂)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은 동네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군당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관성묘라고 부른다.

③신상(神像)

묘당에 걸려있는 관운장(關雲長)상은 녹색 전복(戰服)에 금빛 견장(肩章)을 붙이고 투구를 썼으며,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앉았는데 오른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왼손에는 활을 들고 있으며 왼쪽 어깨 뒤로는 화살통을 메고 있다.

관운장 부인상의 모습은 머리 위에 봉황 무늬가 있는 띠 모양의 머리를 썼으며 녹색과 적색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부인의 양쪽 무릎 아래에는 시녀가 하나씩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시녀는 넓게 퍼진 갈모 형식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오른쪽 시녀는 분홍 저고리, 녹색치마, 왼쪽 시녀는 녹색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있는데 손을 앞으로 모으고 긴 수건을 걸치고 있다. 왼쪽의 장군상은 말을 끌고 있는 두명의 장군이 있고, 오른쪽의 신령님은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용과 봉황이 그려진 한복을 입고 있다.

④도구 및 제의(祭儀)·제비(祭費)

관운장 내외분 신상 앞에는 향노와 향합, 초가 있으며 장군님 앞 단위에는 촛대 2개, 잔대 2개, 대접에 젓가락 숟가락이 하나씩 있고 단(壇) 아래 조그만 단에는 향노와 향합이 있다. 그리고 신령님 앞에는 촛대 2개, 잔대 1개, 대접에 수저가 있고 작은 단에는 향노와 향합이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제기(祭器)는 단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마루구석에 단을 만들어 단 밑에 보관하고 있다.

장군상 옆에는 내림대라고 하는 창이 하나 놓여 있다.

관운장 왼쪽에는 방명록(芳名錄) 등 기록문서류가 들어 있는 궤(함)와 또 무복(巫服)으로 보이는 한복이 들어있는 또 다른 함이 있다.

제사 날짜는 음력 정월 초하루, 또 관운장 탄신일인 5월 13일, 6월 24일, 10월 19일 4번 지내고 매달 초하루에는 회장 홀로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사 의식은 제수(祭需)를 진설한 다음 촛불을 켜 후, 축관(祝官)이 있으면 독축(讀祝)하고 없으면 네번 절한다.

관운장 내외분에게 올렸던 제물은 물려서 장군님 앞에 놓고 제를 지내고 다시 제물을 신령님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제를 올린 다음 다시 당 밖에 있는 서낭(소나무) 앞과 문간쪽 담 안에 만들어진 단에 잠시 차려 놓는다. 밖에서는 한 두가지 제물만 올리고 절은 하지 않는다.

제사 비용은 관성묘관리위원회에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한다. 『제군전첩서(帝君前籤書)』의 기록을 보면 제물은 약주, 돼지고기, 전병, 사과, 배, 밤, 대추, 감, 강정, 숙주나물, 두부, 간천엽전, 인절미, 적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회장이 준비하는데 과일은 사과, 배, 감 등 3가지이며, 떡은 인절미로 하고 돼지고기는 삶은 것으로 하고 술은 소주를 쓰지만 산신령님 앞에는 맑은 물을 올리며 채소는 숙주, 무나물, 오이나물을 한 접시에 3가지를 담아 접시 2개를 준비하며, 전은 호박전과 감자전으로 역시 접시 2개를 준비한다. 또 탕은 무와 고기를 넣어 끓이고, 고기를 올리며 산신령님에게는 고기 대신 버섯을 넣으며 또 고기대신 다시마를 올린다. 메와 식혜도 준비하며 포와 생선은 쓰지 않는다.

제를 지낸 뒤에는 음복(飮福)을 한다.

⑤제(祭)의 목적

관우 장군을 잘 모시면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잘 된다고 해서 모신다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치성을 드린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안내판에는 서울의 남쪽 군영(軍營)이었던 남영군하(南營軍下)의 관성묘로 동민이 참례하던 곳이며 묘당 정면에 18세기의 화풍으로 그려진 관우상과 부인상을 좌우로 걸어 모시고 또 그 왼쪽에 무인상, 오른쪽에 문인상이 걸려있다. 이 부근은 남영이 있던 곳이며 묘의

전방은 큰 연못이 있었으나 메워져 지금은 주택이 들어섰다고 쓰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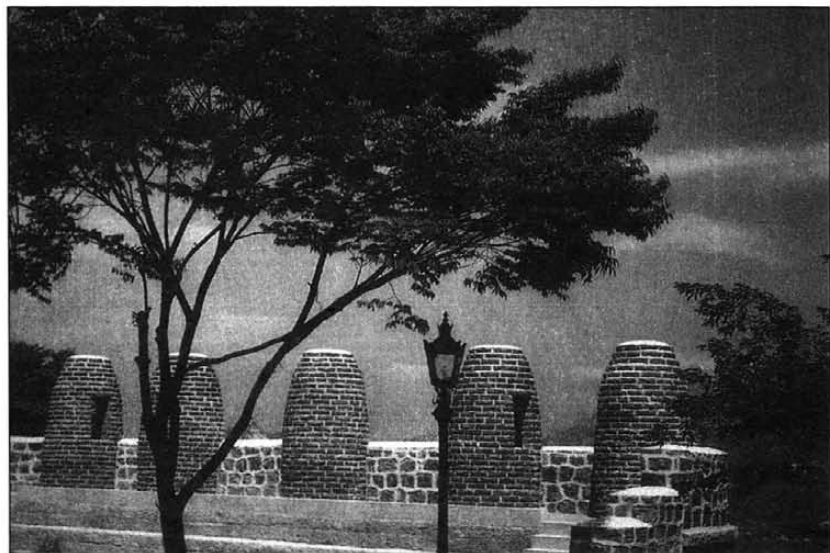
2. 사적지(史蹟址)

(1) 남산 봉수대터(南山 烽燧臺址)

봉수는 산 봉우리에서 긴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방법으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방의 다른 기지에 전달하는 통신체제였다. 즉 변경(邊境)의 한 봉대(峰臺)에서 경보(警報)를 알리는 횃불 또는 연기를 피워올리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봉대에서 지체없이 같은 신호로 하여 중앙까지 급속히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횃불하나를 들어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지만 적이 나타나면 횃불 둘을 들어 경보를 전달하고 적이 국경을 침입하면 횃불 셋을 들고 접전하게 되면 횃불 넷을 들어서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 대낮 같으면 불빛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대신 연기로 알리고 또 안개가 짙게 낄다든가 비바람이 심할 경우 연기나 불로 신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봉수군이 직접 급보를 전하게 된다.

봉수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헌상의 기록은 고려시대이다. 1123년(인종 1)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송(宋)나라 사신(使臣) 서궁(徐兢)은 그의 고려 견문록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밤이 되면 산마루에 봉화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 왕성(王城:송도)에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흑산도)에서부터 시



1993년에 복원된 남산 봉수대 전경

작된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흑산도에서 개성까지 봉수를 켜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 의종(毅宗) 3년(1149)에는 봉수의 거화수(炬火數)를 정하고 감독자를 배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고려말에는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봉수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세종대에 이르러 거화수(炬火數) 등의 관계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변방의 봉수대를 새로 축조했으며 봉수선로(烽燧線路)를 일제히 정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봉수는 중앙은 병조(兵曹)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은 그 지방의 군사책임자가 관장하였다. 거화법(炬火法)은 정세의 완급(緩急)에 따라 횃불(炬)의 수로 구분이 되었다. 세종 때 이후에는 해상과 육지로 구분하

여 5거(炬)의 체계를 갖추었다. 해상체계로는 무사시에는 1거(炬), 해안에 상륙하면 2거(炬), 접전시에는 3거(炬), 상륙시에는 5거로 하였으며, 육지에서는 적이 국경밖에 나타나면 2거, 국경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로 하였다.

봉수의 선(線)은 직봉(直峰)이라 하여 동북쪽은 경흥, 동남쪽은 동래, 서북쪽은 강계:의주, 서남쪽은 순천 등 5개처를 기점으로 하였는데 전국 686개소 봉수대가 모두 서울 남산에 집결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간봉(間峰)이라 하는 보조망이 있었다. 서울에는 남산에 5개, 무악산에 2개의 봉수대가 있었다.

남산 정상 팔각정 동쪽에 있었던 남산 봉수대는 전국 봉수의 종점으로서 국방상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경수대(京燧臺)라고도 하는 이 봉수대는 금위영(禁衛營)과 병조(兵曹)의 무비사(武備司)에서 관장하였으며 봉수군과 오원(五員, 지방의 伍長)이라 부르는 감고(監考)를 배치하였는데 이 감고는 봉수군의 근무상태를 감독하였으며 이 경봉수에는 종전의 15명이었던 봉수군을 1446년(세종 28)에 20명으로 늘려 상·하 2번으로 나누어 소(所)마다 2명씩 들어가 근무하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소마다 봉군 4명과 오원 2명을 배치했다고 하였다.

남산의 5봉수대는 전국의 봉수를 수신·접수하였는데 그 5개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제1봉수 : 아차산(峨嵋山)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강원·함경도와 연결되었다.

제2봉수 : 광주(廣州) 천천령(穿川嶺)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충청·경상도와 연결되었다.

제3봉수 : 무악(毋岳) 동쪽 봉우리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황해·평

안도와 연결되었다.

제4봉수 : 무악 서쪽 봉우리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황해·평안도 해안지방과 연결되었다.

제5봉수 : 제4봉과 같이 해로(海路)로 이어지는 봉수로 개화산(開花山)에 응하며 경기·충청·전라도 해안지방과 연결되었다.

이와같이 전국 봉수의 최종 접수처로서 국방상 중요한 통신기능을 담당했던 봉수대는 갑오경장(甲午更張)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5월 9일까지 존속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적인 전신·전화체제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옛 경봉수대(京烽臺) 5개를 고증작업으로 복원하였는데 전체면적 106.14m²에 공사비 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1992년 7월 16일에 착공하여 1993년 7월 16일에 준공하였다.

1994년 1월 1일 중구청(中區廳) 주관으로 복원된 봉수대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기원남산봉화식」(統一祈願南山烽火式)을 갖고 전통적인 방법에 따른 봉화를 올렸다. 연료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연기가 많이 나는 싸리나무와 쇠똥(牛糞)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어 민속놀이 통일합창 등의 각종행사도 있었으며 해마다 거행하는 이 축제행사는 1997년에는 무용, 토막극, 통일기원문낭독, 봉화점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2) 남소영터(南小營址)

남소영은 남소문(南小門) 동쪽인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있었으니 현재 장충동 2가 197번지의 장충단 공원 사전(祠殿)터 아래가 된다.

남소영은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으로 영사(營舍)의 규모가 194

간에 이르고 부근에는 군영(軍營)과 관계있는 건물이 집결되어 있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 의하면 남소영 북쪽에 137간의 남창(南倉), 남소영 내에 52간의 화약고(火藥庫) 등이 있었으며 초관(哨官) 1명과 향군(鄉軍) 12명이 있었다.

(3) 남별영터(南別營址)

남별영은 남산아래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있다고 했으니, 현재 한국 의 집 남쪽, 필동 2가 103번지에 있었다.

남별영은 금위영(禁衛營)의 분영으로 군사 주둔지였다. 남별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730년(영조 6)이며 남별영 아래 남쪽에 남창(南倉)이 있었는데 101간이었고 북쪽에는 104간의 하남창(下南倉)이 있었으며, 남창 서쪽 기슭에는 17간이나 되는 화약고가 있었다. 남별영 내에는 물 흐르는 골짜기에 천우각(泉雨閣)이란 정자가 있어서 여름이면 피서 및 놀이터로 유명하였다.

(4) 녹천정터(鹿川亭址)

남산 기슭 얼마전 예장동(藝場洞)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이 있는 터전은 일찍이 조선초기에 녹천정(鹿川亭)이란 정자가 있던 곳이다. 원래는 왕사(王師)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터를 잡은 곳으로 권람(權覽)이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녹천정은 소조당(素凋堂)·후조당(後凋堂)이 되었는데 일제때 이곳을 총독부 관사로 정하고 이토오(伊藤博文)가 녹천정(綠泉亭)이란 정자를 새로 꾸민 일이 있었다. 이 정자 아래에 어정(御井)은 세조(世祖)가 권람의 저택에 행차했다가 이 우물을 마셨다해서 붙여진 것이다.

(5) 노인정 회담터(老人亭 會談址)

노인정은 필동 2가 134번지 2호에 있었다. 현재 대한극장 남쪽 아파트를 지나 남산 기슭으로 오르면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한옥집이 있는데 이곳은 갑오개혁(甲午改革)을 강요한 곳이다. 지금 노인정은 없지만 서쪽 바위벽에는 「趙氏老基」란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노인정이란 이름은 조선말기에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정자는 조선후기 헌종(憲宗)때 세도정치(勢道政治)를 했던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조만영(趙萬永)이 세운 것으로 그 뒤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곳을 지키며 정자 뒤 바위에 「趙氏老基」라고 새겼다고 전해온다.

조만영(1776(영조 52)~1846(헌종 12))은 호는 석애(石崖)이며 시호는 충경(忠敬)으로 그의 딸이 익종(翼宗)의 왕비가 되고 그가 낳은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아우인 조인영(趙寅永)과 함께 안동김씨에 대립하여 세도정치를 한 인물이며 벼슬은 각조(各曹)의 판서(判書), 한성부 판윤(判尹, 서울시장) 등을 지냈으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나기 2개월전 일본의 강요로 우리대표 신정희(申正熙)·김종한(金宗漢)·조인승(趙寅承) 등과 일본의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가 이곳 노인정에서 회담을 진행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민씨정권이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원병(援兵)을 요청하자 일본은 천진조약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병하였다. 이에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점유하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먼저 일본은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 당하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력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즉 갑오년(1894) 6월 1일 오오토리(大鳥) 공사는 본국 정부의 훈령대로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제시하고 6일 정오까지 회답을 요구하였다. 전문 5조의 내용을 보면, 제1조는 중앙정부의 개조와 인재 등용에 관한 것, 제2조는 국가의 재정정리와 부원(富源)개발, 제3조는 법률개정과 재판법의 개정, 제4조는 병비(兵備)·경찰, 제5조는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부득이 신정희 등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회답에 참여기로 통보하고 고종은 이제까지의 폐단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전교(傳敎)를 내렸다.

이와같은 일본의 강압적인 위협속에 6월 8일 이곳 노인정에서 두 나



당시 노인정 모습

라 대표가 회담을 하게 되었으니 이른 바 「노인정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오오토리 공사는 모든 분야를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2년 이내에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선대표는 내정간섭이라 하여 거부하였다. 일본은 남산에 설치한 포대(砲臺) 포구를 경복궁을 향하여 조준하고 1개연대 이상의 병력으로 경복궁을 포위, 점령한 다음 민씨정권을 해체시키고 친일내각을 구성시켰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개혁조치를 단행한 것이 갑오개혁이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의 정치·경제적 침투가 용이하게 되고 각종이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6) 남묘터(南廟址)

남묘의 본 명칭은 남관왕묘(南關王廟)로서 남산 기슭인 현재 용산구 도동 1가 9번지에 있었다.

7년 왜란의 마지막해인 1598년(선조 31) 4월에 명나라 유격장 진인(陳寅)이 이번 왜란에 운장(雲長) 관우(關羽)의 혼령이 나타나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가 머물러 있던 남산기슭에 묘(廟)를 세우고 그 안에 관우와 주창(周倉)의 초상을 모시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건축 경비는 양호(楊鎬)를 비롯한 명나라 장수들이 은을 바쳤으며 우리 조정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준공된 것으로서 동묘(東廟)의 건립과는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었으며 숙종(肅宗)·영조(英祖)를 거치면서 보수를 해오다가 한국동란(1950~1953)때 불에 타버린 것을 1957년에 재건한 바 있으나 정문만 남겼는데 1979년 1월에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다.

3. 지정보호수

지정 보호수는 해당 시(市·道)에서 희귀한 수목, 곧 수령(樹齡) 5백년 이상되는 나무는 시 상징나무로 또 구(區·郡)에서 희귀한 수목, 곧 나무나이 3백년 이상되는 나무는 구(區)상징나무로, 나무나이 2백년 이상 나무는 동(洞)상징나무로, 그리고 나무나이 백년 이상의 나무는 마을상징나무로 지정하고 각 구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으며 표기는 시 보호나무나 시 지정나무가 아닌 시나무·구나무·동나무·마을나무로 쓰고 있다.

(1) 남산 느티나무

동나무로 지정번호 1-2-4-8이며 남대문로 5가 219번지 남산 정상 팔각정 옆에 있으며 나무 나이는 220년이고, 나무 높이는 20m, 나무 두께는 2.1m이다.

(2) 회현동 은행나무㉠

시나무로 지정번호 1-6이며 회현동 1가 36-3에 위치해 있다. 나무 나이는 450년이며 나무 높이는 25m, 나무 둘레는 5.5m, 수관(樹冠)직경은 15m이다.

(3) 회현동 은행나무㉡

구나무로 지정번호 1-2-7이며 회현동 1가 14-3에 위치해 있다. 나무 나이는 450년이며 나무 높이는 24m, 나무 둘레는 5.5m, 수관직경은 15m이다.



동상징나무로 지정된 남산 정상의 느티나무



구상징나무로 지정된 회현동 은행나무 ㉠

IV. 형승(形勝)과 명소(名所)

IV. 형승(形勝)과 명소(名所)

해발 265m의 그렇게 높지도 않은 아늑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남산이지만 북서쪽에는 암석이 층계를 이루고 있으며 골짜기마다 계곡이 깊고 그윽하여 풍경이 기묘하며 동남쪽으로는 봉우리가 길게 뻗어 내려가 구룡이 지며 한강변에 연결해 있다.

정상에 오르면 북서쪽으로는 넓은 시가지가 모두 눈아래 들어오고 민족의 젖줄인 듯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웅장하기만 하다. 동·서·남 삼면으로는 양주·광주·김포·시흥의 넓은 평야가 시야에 들어온다. 남산이야말로 가벼운 등반으로도 원근의 아름다운 경관(景觀)을 즐길 수 있는 유람의 승지(勝地)가 아닐 수 없다.

옛날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墨客)들은 남산에 올라 송림(松林)에서 불어오는 청풍(淸風)을 맞으며 끝없이 펼쳐지는 원근의 풍경을 시심(詩心)으로 표현하였다. 성종(成宗)임금의 친형인 풍류왕자 월산대군(月山大君) 정(婷)은 「한도십영」(漢都十詠)을 읊는 가운데 남산의 꽃구경(木覓賞花)을 읊었으며 그 시대의 대문호인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과 사숙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과 삼탄(三灘) 이승소(李承召)도 남산의 꽃구경을 한양십영(漢陽十詠)의 하나로 꼽았으며, 특히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는 「남산팔영」(南山八詠)이라 하여 남산의 여덟가지

경승(景勝)을 읊었다.

용재(慵齋) 성현(成僎)은 현재 필동 막바지의 동곡(洞谷)인 옛날의 청학동(靑鶴洞)을 한성도중(漢城都中)의 가경(佳景)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중종(中宗)때 문신이었던 용재(容齋) 이행(李荇)은 이 마을에 연거(燕居)하면서 지정(止亭) 남곤(南袞)을 비롯한 여러 시우(詩友)들과 함께 시연주석(詩筵酒席)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용재(容齋)의 증손인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은 필동에 단을 쌓고 석주(石洲) 권필(權輶)·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 등 당대의 명류(名流)들과 단상(壇上)에 모여 앉아 시심(詩心)을 읊었으며 영조(英祖)때 문신 귀록당(歸鹿堂) 조현명(趙顯命)은 남산 밑 묵사동(墨寺洞, 현재 필동 2가)에 귀록정이란 정자를 짓고 4계절의 남산의 풍경을 즐겼다.

영조 6년(1730)에 창설하였다는 남별영(南別營)과 구내 계곡물에 걸쳐 세워진 천우각(泉雨閣)주위는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 근방 석벽에는 「삼아계」(三丫溪)라는 각자(刻字)가 새겨져 예로부터 명소임을 전해주고 있다.

고종(高宗)때 당대의 고관이었던 굴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은 이곳에 쌍희정(雙檜亭)을 짓고 격동하는 사회에서 정치를 구상하였으며, 또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은 화수루(花樹樓)를 짓고 시심(詩心)으로 한때나마 전환기의 사회를 잊으려고 하였으며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도 이곳에 노인정(老人亭)을 짓고 때때로 풍치(風致)를 읊었다. 운석(雲石)은 이재(霽齋) 권돈인(權敦仁)·연천(淵泉) 김이양(金履陽)·경산 정원용 등 당대의 문장가들과 함께 이 노인정에 모여 주위의 경승(景勝)을 감상하면서 시주(詩酒)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경산의 노인정 아회시(雅會詩) 한 수를 소개해 보면

울창한 수림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데
 석옹(石翁)은 휴가 얻어 선정(仙亭)으로 찾아가네
 임천(林泉)의 흥취 좋은데 또 벼슬자리 차지했으니
 어진 덕(德) 더욱 귀한 것이 착한 이름 길이 전하오

葱蒨茂林色 潺湲清澗聲
 石翁撰公暇 詒約寄遐亭
 豈無林泉趣 孰非圭組榮
 所貴修令德 光垂簡策名

하였다.

남산의 북쪽 기슭인 회동(會洞, 현재 회현동)도 풍치가 수려하여 승지(勝地)로 유명하였다. 수천(守天) 정광필(鄭光弼)이 이 곳에 연거(燕居)한 이후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으니, 즉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는 이 곳(현재 회현동 2가)에 누정을 짓고 그 모양이 범과 같으므로 범은 산에 있다하여 누정 이름을 재산루(在山樓)라 명명하였으며 또 영·정조(英·正祖)시대에 서화가였던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은 홍엽루(紅葉樓)를 짓고 주위의 자연경관을 화폭에 담기도 하였다. 앞서 말한 정원용을 비롯하여 규당(葵堂) 정범조(鄭範朝)·용산(蓉山) 정건조(鄭健朝)·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규원(葵園) 정원조(鄭元朝) 등 많은 인물이 이 곳에서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중 경산(經山) 정원용은 만년에 회현동 본가에서 휴양하면서 남산의 풍광을 즐겼는데 당대 명망이 높던 운석(雲石)을 비롯하여 하실(荷室) 김좌근(金佐根)·영초(穎樵) 김병학(金炳學) 등이 자주 이곳에 들러 풍류를 즐겼으며 학문으로 이름이 있던 오서(梧墅) 박영원(朴永元)·청

소(晴沼) 조용화(趙容和)·승지(承旨) 윤정진(尹正鎭)도 자주 이곳을 찾았으며 특히 오서(梧墅)는 왜성대 부근 샘물 흐르는 언덕 위에 낙천정(鹿川亭)을 짓고 풍경을 완상하였는데 이 부근에 삼아계(三丫溪), 약수(藥水), 복천암(福泉庵) 등이 있어 한층 더 산수의 풍경을 조화시켰다. 경산(經山)은

남산 아래 우리집 봄만 되면 아름다워
 마음 내키면 술 한잔 들고 승지(勝地) 찾아 신발 챙긴다네
 숲속은 풍경 좋아 시가(詩歌)로 회포 풀고
 개울가 방초(芳草)따라 삼아계(三丫溪)를 건넌다네

我屋南山下 春深日日佳
 適清聯一酌 濟勝又雙鞋
 林木延清賞 歌吟叙雅懷
 綠溪芳草路 信步過三丫

하여 청한(淸閑)의 시심(詩心)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였다.

산 꼭대기에는 통신 연락망인 봉수대(烽燧臺)가 5개나 있어 무악(毋岳)의 봉수와 함께 전국 각처의 봉수망을 연결하였으며 또 고유의 토속신(土俗神)을 모신 국사당(國師堂)이 이곳에 있어 북악(北岳)의 백악신사(白岳神祠)와 함께 봄·가을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항(開港)과 함께 침략의 손길을 뻗친 일제(日帝)는 우리 선현(先賢)들이 자연을 찬미하여 시가(詩歌)를 즐기던 그 신선(新鮮)한 노인정(老人亭)을 소위 시정개혁(時政改革)을 위한 5개조항이란 것을 내세워 회담을 요청하면서 그 장소를 노인정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뒤 일제는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을 강제로 체결한 뒤 이곳 왜성대(倭城

臺)(현재 예장동)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침략의 원흉(元兇) 이토
오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매국(賣國)의 역신배(逆臣輩)들과 함께 국토 강
탈을 모의하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어느 뜻있는 인사의 「한양백운」(漢陽百韻)이란 제하(題下)의
한 부분을 보자.

남산 소나무 그늘 아래
늪은 여우 드나드네
천백(千百)가지 괴이한 소리
무슨 조화 부리려나
간악(奸惡)한 여우와 살괘이들
꼬리치며 따라 다니고
순하고 어진 소와 양떼들
해가 미칠까 무서워 떴다
많은 사람들 모여들어
큰 소리 외치며 공격하지만
위세(威勢)빌어 출몰하는 무리들을
당장에는 박멸하기 어렵구나
뿌리를 뽑아 버리지 못하니
가지(枝葉)도 제거하기 어렵네
오늘의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어찌하나

南山松陰下 老狐頻出歿
吐出千百怪 造化不可測
奸惡狐狸輩 搖尾侍從役
順良牛羊輩 戰慄恐害及
百吼千呼集 喊聲放攻擊

假威隱沒類 立地難撲滅
 不拔此根本 難除其枝葉
 現在此問題 吾人不能的

하였다.

통감부 부근에 있던 녹천정(鹿川亭) 옛터에는 이토오(伊藤博文)가 새 정자를 짓고 이름은 한자만 바꾸어 녹천정(綠泉亭)이라 하고 아침,저녁으로 이 정자에 올라 침략의 흉계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이토오가 이곳에서 시 한 수를 읊었으니 소개해 본다.

남산 발 아래 녹천정에서
 삼년 세월을 꿈 속에 보냈네
 마음이란 사람따라 변하는 것이
 때로는 한가롭게 푸른 구름도 바라본다

南山脚不綠泉亭 三載星霜夢裏經
 心緒人間隨境變 別時閒看岬雲青

이토오 등 일본 고관들은 일본인들을 남산 아래에서 살게하고 지명(地名)도 왜성대정(倭城臺町) 본정(本町) 옥정(旭町) 등 자의(恣意)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공사관 등을 설치한 다음 왜성대공원 등으로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보다 앞서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있는 2년 뒤인 1897년경에는 남산 남쪽 기슭에 사방 4천평의 땅을 빌어 소공원(小公園)을 설치하고 그 안에 소위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이란 것을 설치하였다가 경성신사(京城神社)로 바꾸기도 하고 또 남산 북쪽 일대에는 청학정(靑鶴亭) 황조정

(黃鳥亭) 전망정(展望亭) 등의 정자를 짓기도 하였다. 그 뒤 1925년경에는 조선신사(朝鮮神社)를 다시 세운 다음 우리 고유의 국사당을 인왕산(仁王山)으로 옮기게 하였던 것이다.

또 이들은 남산경내에 동본원사(東本願寺)라는 저들의 사찰을 세운 다음 용문산(龍門山) 상원사(上元寺)에 있는 대범종(大梵鍾)을 가져다 달기도 하였으며, 또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 때 순국한 이경직(李耕植) 홍계훈(洪啓薰) 등 순국장병의 충혼(忠魂)을 기리기 위해 남산 동북쪽 기슭에 설치한 장충단 부근에 경희궁(慶熙宮)의 흥정당(興政堂)과 흥화문(興化門)을 헐어 옮겨다 광운사(光雲寺) 박문사(博文寺) 등을 세우는가 하면 일제의 송덕비(頌德碑)를 비롯하여 그들의 동상까지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장충단 남쪽 아늑한 기슭에 우리의 옛 누정인 백운루(白雲樓)만이 옛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독립운동가인 우정(偶丁) 임규(林圭)는 그의 『북산산고(北山散稿)』에서 봄·가을로 백운루에 오르다(春秋登白雲樓詩)를 지어 당시의 풍경과 심정을 읊었다.

외롭게 선 누정 멀리 소남문(小南門)에 접했는데
 띄엄 띄엄 있는 집들 시내 위에 마을 이루었네
 이 동산 이 정자 어느 시대부터 있었나
 단(壇)과 사당은 그대로 머문채 세월만 흐르네
 풀꽃 쓸쓸하니 가을을 어디서 찾나
 단풍잎 헛날리는 소리 이 밤에 혼령있는 듯 하네
 오늘은 살아있으니 오늘만은 좋은 것이
 무어라 다른 일로 부질없이 논하겠나

獨樓迥接小南門 往往人家溪上村
 不省園亭何世代 空留壇社自朝昏
 草花寂寂秋無質 楓葉蕭蕭夜有魂
 今日猶存今日好 莫將餘事付餘論

광복이 되자 일제의 사찰인 동본원사 박문사, 광운사 등은 철폐되었으며 경성신사(京城神社) 자리에는 숭의여학교가 들어섰고 현재 분수대 앞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장충단 뒤편 일본 사찰이 있던 부근에는 이한웅(李漢應) 열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앞 계곡 하류에는 수표교를 옛 모습 그대로 옮겨 보존하였다. 또 용두봉(龍頭峰) 서쪽 산 기슭, 곧 일제때의 조선신궁(朝鮮神宮)자리에는 1956년 광복절을 기하여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남산 상봉(上峰)에 우남정(雲南亭)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의거를 계기로 이승만박사 동상과 우남정이 철폐되었으며 그 뒤 백범 김구선생의 동상이 남산 광장에 들어서고 또 남산시립도서관 양옆에는 퇴계 이황선생과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 왼쪽 아담한 비탈에는 소월 김정식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또 공명곡(孔明谷)으로 불리는 곳에 부영바위약수와 그리고 후암(厚岩)약수, 용암(龍岩)약수, 수복천(壽福泉), 불노천(不老泉) 등 샘이 있어 물맛이 좋으며 계곡이 그윽하고 샘물이 차서 시민들의 피서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1. 남산 꽃구경(木覓賞花)

남산의 언덕과 계곡에는 봄·가을 꽃철이 되면 한성팔영(漢城八詠)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꽃구경이 유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명사와 문인들이 남산에 올라 목멱상화(木覓賞花)란 제목으로 남산을 찬미하였다. 그 대표적인 분이 15세기의 월산대군(月山大君), 강희맹, 서거정, 성임, 이승소 등의 시가 유명하다. 이 중 삼탄(三灘) 이승소(李承召)의 시 한 편을 보자.

남산에 앉아보니 증성(曾城)도 높은 것이
 어구(御溝)의 버들 홍교(虹橋)에 스치네
 상원(上苑)에 꽃이 피니 붉은 노을 무르익고
 태액(太液)에 물결 따스하니 포도주 넘치는 듯
 큰 집들 구름에 닿고 봄은 담장에 가득한데
 동풍(東風)이 우유같은 비를 불어보내네
 천자만홍(千紫萬紅)의 고운 모습 보이는데
 무어라 서로 재촉하면서 마루 앞의 북을 칠거나

南山座對曾城高 御溝楊柳拂紅橋
 上苑花發蒸紅霞 太液波煖漲葡萄
 甲第連雲春滿塢 東風吹送如酥雨
 萬紫千紅總舍姿 相催不用臨軒鼓



활짝핀 남산 기슭의 벚꽃

2. 남산팔영(南山八詠)

조선 초기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찬성사(贊成事) 및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 즉 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교은 정이오(鄭以僞, 1354~1434)는 남산에서 볼 수 있는 여덟가지 경치를 〈남산팔영〉(南山八詠)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첫째, 구름이 북쪽 궁궐에 가로지른 것(雲橫北闕)

옥엽(玉葉)은 금빛대궐에 빛나고
 붉은 용마루는 푸른하늘에 비치네
 동쪽하늘은 새벽을 재촉하는데
 북쪽에 상서로운 구름 일어나네
 아름다운 기운 개인 날 서로 들렀는데
 높은 기상 바라보니 다시 잇따랐네
 남산같은 높은 복을 우리임금께 드리오니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 일만년을 누리소서

玉葉橫金闕 朱薨照碧天
 丁東傳促漏 戊北釀非烟
 佳氣晴相擁 高標望更連
 南山將獻壽 穆穆萬斯年

둘째, 물이 남강(南江)에 넘치는 것(水漲南江)

장마물 들판을 덮었는데
 강의 흰 기운 성곽까지 잇따랐네
 모래벌판 휩쓸어 가고

온갖 냇물 다 모았네.
 나룻터 언덕이 물히 줄 알았는데
 하늘가 가는배 아늑하게 보이네
 저녁때 비개이고 등근달 떠오르니
 용용(溶溶)한 그 모습 하늘에 닿았네

潦流橫被野 江氣白連城
 卷盡平沙去 包容衆派橫
 渡頭知岸沒 天際望舟行
 夕霽水輪上 溶溶混大清

셋째, 바위 밑에 그윽한 꽃(岩低幽花)

봄은 가고 꽃 이미 졌는데
 산에는 푸른 녹음 무성하네
 물 건너니 그윽한 향기 풍기고
 언덕 위 바위틈엔 기이한 풀있네
 늦은 풀 포기 수줍어 한 듯 사랑스럽고
 부질없는 꽃송이 피었다졌다 애석하여라
 정(貞)하고 길(吉)한 것이 스스로의 것인데
 하늘이 어찌 소나무만 가꾸었으리

春歸紅廬後 山容綠肥時
 渡水幽香逼 隈岩異卉奇
 晚叢憐隱逸 浪蕊惜興衰
 自是能貞吉 天工豈有松

넷째, 고개마루의 높은 소나무(嶺上長松)

집을 둘러 뒀리리 층층으로 솟았는데

허공을 버티고 푸른 일산되었네
 비 개이니 흰구름 속옷처럼 걸쳤고
 밤 고요하니 맑은 달 흥청이네
 벽은 세운지 천년은 될 듯하고
 바람소리 십리까지 전하네
 이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 없고
 떠들썩 명예만 좇아 다투네

繞屋層巒聳 撐空翠盖成
 雨晴雲襯白 夜靜月篩清
 壁立千年地 風傳十里聲
 無人回首見 擾擾競馳名

다섯째, 삼월의 담청놀이(三春踏青)

북쪽 바라보면 성시(城市)이지만
 남쪽 찾아들면 마을인 것을
 꽃을 찾으니 바람은 맑게 불어오고
 풀을 밟으니 햇볕 따사롭네
 이런 모임 아무에나 있겠는가
 고상한 정분 여러 신선보다 나을씨고

北望雖城市 南尋卽洞天
 問花風澹蕩 踏草日暄妍
 民會無多子 高情勝列仙

여섯째, 중양절(重陽節)의 등산놀이(九月登高)

슬병차고 높은데 오르니
 하늘도 맑은 9월 초일세

단풍 숲은 먼 골짜기에 한창이고
 푸른 소나무는 층층 언덕에 감췄네
 남동(藍洞)은 시짓던 바윗굴인데
 용산(龍山)까지 모자를 날렸었네
 예나 이제나 술에 취하는 것은 같은 것이
 마음에 맞으면 그 밖의 무엇을 구하리

佩酒登高日 天晴九月頭
 楓林解遠壑 松色護層丘
 藍洞題詩岩 龍山落帽秋
 古今同一醉 適意百無求

일곱째, 언덕에 올라 관등행사구경(陟巘觀燈)

초파일 연등행사 한창인데
 승평(昇平)세월 그 몇몇해인가
 일만 초롱불 대낮같이 밝은데
 사방은 고요하고 티끌하나 없네
 붉은 불길 천 길이나 서린 듯
 별빛 북두성으로 향하였네
 밤새도록 구경해도 부족하여서
 닭 우는 새벽이 된 줄도 몰랐네

八日觀燈成 昇平第幾春
 萬龕明似晝 四境靜無塵
 紅焰蟠千丈 星芒拱北辰
 通宵看未足 不覺到鷄晨

여덟째, 시냇물에 갇곤 빨기(沿溪濯纓)

도연명(陶淵明)은 물가 찾아나섰고
 종군(終軍)은 일찌기 긴 갓끈 청했네
 냇물 맑으니 발 어이 씻을까
 티끌 털고 세상물정 잊고 싶구나
 천천히 흐르니 이끼끼어 미끄럽고
 급이쳐 돌아오니 옥물결 감도네
 떨어진 붉은꽃잎 동구 밖으로 떠내려가니
 봉래(蓬萊) 영주(瀛洲)가 여긴가 하노라

靖節徒臨水 終軍早請纓
 流清何濯足 塵拂澹忘情
 宛轉苔溪滑 盤回玉流縈
 落紅浮出洞 還訝近蓬瀛

남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멀리 삼각산 아래 아늑하게 보이는 궁
 궐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남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물의 잔잔한 파도에 모래톱을 곱게 휩쓸고 그냥 떠내려 가는 듯한 돛
 단배가 평화롭기만 하고, 산은 녹음이 우거지고 골짜기의 바위틈에는
 기이한 풀들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윽하고 산마루에 우뚝 솟은 푸른 소
 나무는 허공을 버티고 있고 창공엔 흰구름이 한가롭게 떠돌고 고요한
 밤엔 휘영청 밝은 달이 좋으며, 남산의 남쪽 기슭은 봄철이면 꽃피고
 맑은 바람 불어오고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티없이 맑고 높은 하늘
 아래 골짜기마다 붉은 단풍잎 물들이고 푸른 소나무가 층층이 둘러싼
 속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한 수의 시를 읊고, 4월 초파일에 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장안 집집마다 연등놀이가 성대하며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아 그 구경 밤새도록 흥을 일으키며, 천천히 흐르는 골짜기 물은 맑
 고 깨끗하여 발씻기 아까우며 갓끈씻으면서 붉은 꽃잎이 한가롭게 동

구밖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노라면 여기가 도원경(桃源境)인냥 착각할 정도로 명소라는 내용이다.

3. 청학동(靑鶴洞)

남산 북쪽 기슭 남산1호터널 입구 일대가 옛날 유명했던 청학동이다. 용재(慵齋) 성현(成俔)은 그의 수필집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한성 도중(都中)에 경치 좋은곳(佳境)이 적기는 하나 그 중에서 놀만한 곳은 삼청동(三清洞)이 가장 좋고, 인왕동(仁王洞)이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백운동(白雲洞)·청학동(靑鶴洞)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하고, 특히 ‘청학동은 남학(南學)의 남쪽 동네로 골이 깊고 푸른내가 있어 놀만한 곳’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보아 남학동 남쪽 기슭의 이 마을은 골짜기가 깊숙하고 맑은 냇물이 흐르고 시원한 샘물이 고이던 곳으로 도성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임을 알 수 있으며, 또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제택조에는

“권람(權攄)의 집이 목덕산 기슭 비서감(秘書監) 동쪽에 있는데 그곳은 무학(無學)대사가 정해준 암석 위의 집터이며, 세조(世祖)가 이곳에 행차하여 그쪽 언덕 바위 밑에 솟구치는 샘물(石泉)을 마신 뒤로 어수우물(御井)이라 불렀으며 그 집터 위에 소조당(素凋堂) 옛 터가 있는데 뒤에 후조당(後凋堂)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녹천정(鹿川亭)이 되었는데 박영원(朴永元)이 차지하였다.”

는 기록을 보아 지금의 남산동 3가 34번지 2호일대, 즉 일제시대 왜성 대라 하던 언저리가 소한당(所閑堂) 권람(1416~1465)의 집터였으며 뒤에 그 집터가 녹천정으로 꾸며졌으며 철종(哲宗) 연간에 좌의정을 지낸 오서(梧墅)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비고』 기지조에는 이행(李荇)의 서재(書齋)가 목멱산 기슭 청학동에 있는데 집뒤에 병풍바위(屏岩)와 반석이 있어서 그윽하고 고요하기가 사랑할 만 하다고 하였다. 갑신정변 뒤에는 일본공사관과 뒤에 총독관저가 이곳에 있었고 그 경내에 일본군사령부가 들어있기도 했다. 당시 사령관인 하세가와의 이름을 따 호도원(好道園)이라고도 불러 청학동을 한때 오염시키기도 하였다.

명나라 당고(唐皐)가 청학동에 있는 이행의 서재에 대해 쓴 시가 『여지승람(輿地勝覽)』 산천조에 실려 있는데 소개해 보자.

조선 성안 청학동에

누가 이곳에서 높은 집 지었나

내 지금 사절 따라와서 처음 들으니

청학선인의 글독이라네

신선도 우연히 저자거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을 타고 저 하늘가에서 노닌다네

그의 의복 음식 무엇인가 물었더니

자색구름 의상에 옥같은 시내 샘물 마신다네

동구문이 바로 저기 구름 깊은 곳에 있으니

책상위의 책 권수 헤아릴 수 없네

근래에 종적 아는 사람 있어

왕문에 데리고 들어가 수양한다네

신선 사는 그곳이 인간세상 같으랴
 청학이 소리내어 공중에서 울고 있다네
 밤 깊지만 저 산에는 달이 밝고
 봄 돌아오니 바위 밑에 꽃은 전과같이 붉네
 내 신선사는 마을 그리워하며 가지못하니
 새로운 연시지어 마음을 표시하오
 머리둘러 황산 66봉 바라보니
 흰 학과 푸른 소나무가 먼 생각 일으키네

朝鮮城裏青鶴洞	誰向此間起雲棟
我隨使節始得聞	青鶴仙人作書甕
仙人偶爾寄書塵	有時騎鶴遊海天
問渠服食者何物	紫雲裳依玉澗泉
洞問正在雲深處	案上瑤篇不知數
邇來踪蹟有人知	携入王門葆眞去
仙居不與塵凡同	青鶴有聲常喉空
夜深猶來山月白	春歸未改岩花紅
我懷仙洞不得往	聯以新詩託心裳
回首黃山六六峰	白鶴蒼松動遐想

이 시에서 당시 청학동의 풍경과 용재(容齋)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청학도인이라하고 세상을 초연하게 마을이름처럼 학처럼 생활하
 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동국여지비고』에는 용재는 길 양쪽에 소나
 무·전나무·복숭아나무·버드나무를 심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곳
 청학동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 산 주위를 거닐었다고한다.

녹천청터에서 동쪽 방향으로 필동 끝짜기 서쪽 둔덕 바위에 ‘靑鶴洞
 李相國 容齋書舍遺址’(청학동 이상국 용재서사유지)라 새긴 암각글자가

있는데 이곳이 선생의 집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남산 재개발에서 청학동 일대를 ‘전통문화마을’로 만들 계획이라 하는데 옛날의 청학이 사는 선향(仙鄉)처럼 그렇게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동악시단(東岳詩壇)

필동 3가 동국대학교내에 있는 이 시단은 선조때 시인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이 이곳에 살면서 당시 명류(名流)들과 시를 지으며 즐겨 놀았던 곳이다.

『동국여지비고』 제택조에는 이안눌(1571~1637)의 집이 낙선방(樂善坊) 묵사동(墨寺洞)에 있는데 비파정(琵琶亭)위에 시단(詩壇)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경지략』 고적조에도 동악시단이 “남산 밑 묵동(墨洞)에 있다. 옛날 동악 이안눌(李安訥)이 집 후원 기슭에 단을 쌓고 여러 문사(文士)들과 시부(詩賦)의 글짓기를 자주하였다. 지금까지 그 터전을 동악시단이라 하며 이 단 옆에 홀술(單瓣)의 홍매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동국대학교 정문 안 왼쪽 언덕배기 바위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 새긴 암각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동악선생의 현손인 이주진(李周鎭, 1691~1749)이 영조연간 초에 새긴 것이었다.

이석(李穡, 1701~1759)의 『동강유고(桐江遺稿)』 동원기(東園記)에

동악선생은 날마다 당대 명류인 오봉(五峰, 李好敏), 석주(石洲, 權輶), 학곡(鶴谷, 洪瑞鳳) 등과 어울려 누(樓)에 오르기도 하니 사람들이 신선같다며 부러



동국대학교 경내에 있는 동악선생시단

위하였다. 단에 모였다가 글 외우고 시 읊는 소리가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울렸기에 그 다락을 가리켜 시루(詩樓)라 하고 그 단을 일컬어 시단(詩壇)이라 하였다. 도헌공(都憲公, 이주진)이 마침내 그 동산에 담장을 두르고 거칠고 더럽혀진 곳을 가지런히 다듬고 흙을 보태서 단을 수리하고 물을 끌어 연못도 파고 바위에 ‘東岳先生詩壇’이라는 글자를 쏘아 새겼다. 푸른 대나무, 붉은 단풍나무, 철쭉 따위를 고루 갖추어 연못 둘레 섬돌 계단 사이사이에 옮겨 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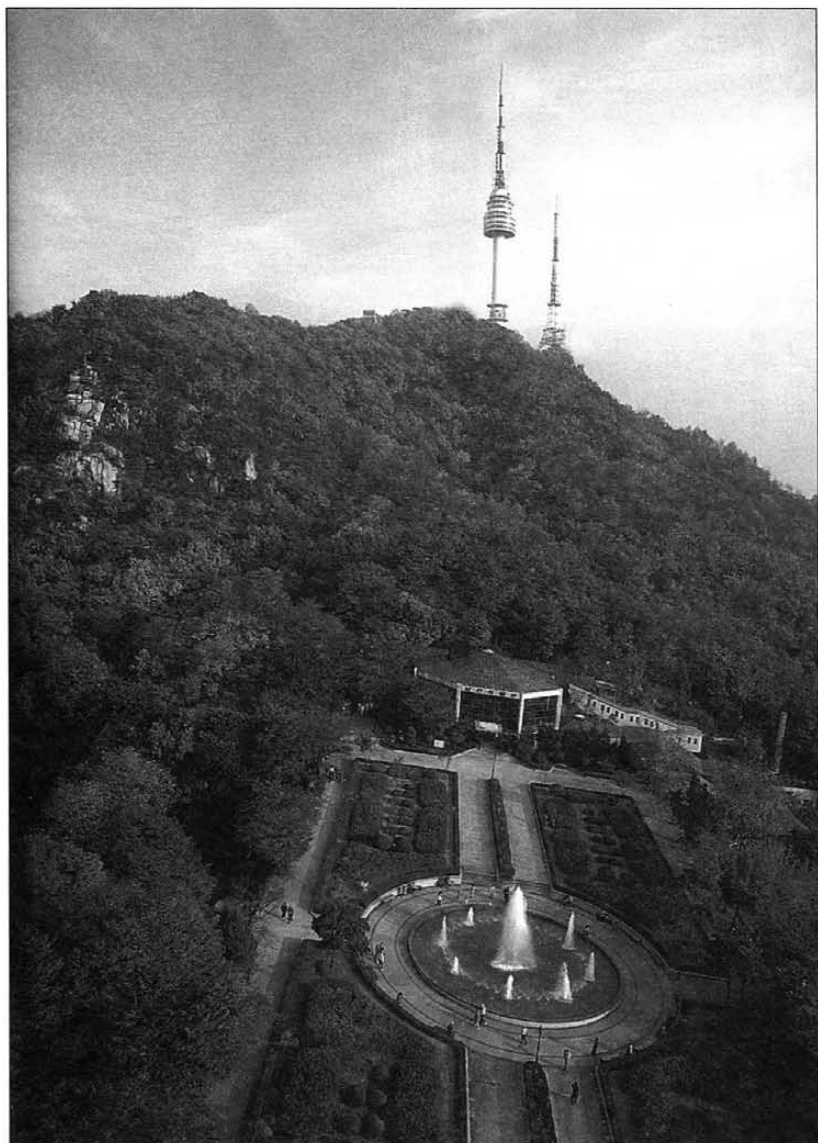
한 것을 보면 동악시단이 후세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다듬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동악은 청학도인 용재 이행(李荇)의 증손자이며,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提學)을 지내기도 했지만 항시 고결한 마음과 청아한 뜻의 시심(詩心)을 지니고 남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거닐며 마음 가는대로 유유히 생활하였다.

특히 석주(石洲)같은 참여시인이 즐겨찾기도 한 이 시단이야말로 의(義)와 불의(不義)를 일깨워 준 저항형태의 증명으로 오늘날도 무엇인가 잊어버린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듯 하다.

5. 서울타워 주변

남산 정상에 높이 솟은 탑이 있다. 바로 서울남산전파탑으로 줄여서 서울타워라 하며 일명 남산타워라고도 부른다. 대지 99,000㎡, 연건평 13,660㎡이며 해발 479.7m이며 탑 자체높이는 236.7m로 세계에서 모스크바타워(해발 537m)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다. 1969년 8월 중앙·동아·문화방송 등 3개 민영방송국이 공동으로 종합전파시설 및



현 서울과학교육원 13층에서 본 서울타워
그 아래 분수대와 식물원이 보인다.

관광전망대 시설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에 착공, 1975년 8월에 완공하였으나 1980년 9월까지 보안상 전과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미공개하다가 1980년 10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이 타워는 팔각정·식물원·케이블카 등과 연결되어 관광명소를 이루고 있다. 그 안에는 해양수족관, 해양박물관, 수석·분재전시관, 환상의 나라 등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입구에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발 355m높이의 2층에 오르고 3~5층은 계단으로 오른다. 4층은 노천전망대이고 5층은 회전전망대로 35분마다 1회전하므로 앉아서 서울시가를 한바퀴 내려다볼 수 있다. 서북으로 눈을 돌리면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의 연봉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산 아래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들이 5백년 왕도의 역사가 스치고 지나가고 남쪽으로 돌아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한없이 평화롭게만 보인다.

또 서울타워 앞광장에는 아담하고 아늑한 팔각정이 있다. 이 정자의 면적은 64.17㎡로, 1959년에 이승만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우남정(雲南亭)을 지었다가 1960년 4.19의거 때 철폐되었으며 그 뒤 1968년 11월 11일 다시 건립되었다. 이 팔각정도 남산 정상에 세워져 있어 1천백만의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시가가 눈아래 펼쳐진다. 한마디로 장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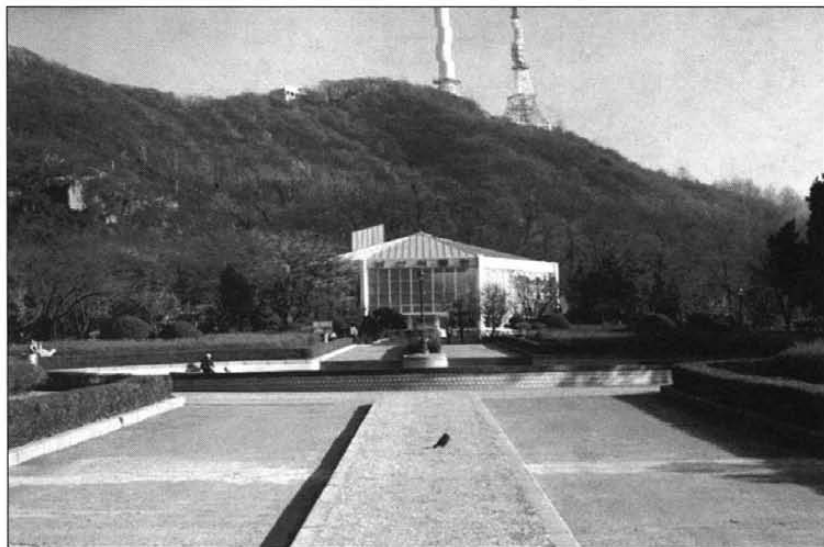
팔각정 옆에는 85타임캡슐이 있다. 1985년 10월 17일 중앙일보사가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남산팔각정 옆에 매설하였다. 이 타임캡슐은 5백년 후인 2485년 개봉될 예정이다. 길이 240cm로 15m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매설을 표시하는 석물(石物)을 세웠다. 이 타임캡슐안에는 태극기·주민등록증·화폐·크레디트카드 등 실물 2백점과 2만5천페이지분의 각종 기록·통계·VIR테이프·가요 및 오디오 테이프 등 총 466

점의 물품이 들어 있다.

6. 남산 식물원 주변

(1) 남산식물원

남산식물원은 중구 회현동 1가, 남산 분수대 동쪽에 서울시가 마련한 식물원이 있다. 약 8백평 규모의 이 식물원은 4개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68년 12월에 1호관이 개관된 이래 재일교포인 김용진(金容眞)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선인장류와 또 파월장병이 수집한 열대식물을 기증함으로써 3년 뒤인 1971년 9월에 제2·3·4호관이 증축, 개원되었다. 면적은 2,272㎡이며, 보유식물은 총 1,100종에 12,000여본이며 그 가운데 관엽식물은 303종에 3,180본이며 다육식물은 290종에 3,000본이고



분수대 앞에서 본 남산식물원

선인장류는 507종에 5,220본이 있다. 그 중에서 선인장 종류가 가장 다양하며 관엽식물관에는 커다란 야자수와 소철들이 뽁뽁이 서 있고, 새 울음소리까지 들려 청량함을 더해준다. 그런반면 선인장이 전시되어 있는 3호관에는 후끈한 바람마저 불어 사막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또 식물원 옆에는 작은 규모의 동물원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뿐 아니라 자연학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분수대를 비롯하여 안중근의사 기념관, 남산시립도서관이 있어 시민의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단군굴(檀君窟)

남산식물원 조금 위, 왼쪽 철조망 안에 단군굴이 있다. 이 굴은 통로



단군굴 입구

약 20m의 인조물로서 조선말기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설에는 일제(日帝)가 공습에 대비하여 파놓은 방공호라고 하며, 그 속에 자기네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위패(位牌)를 긴급 대피시켰던 곳이라고 한다. 현 식물원과 분수대 자리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짓고 그 곳에 천조대신 위패를 두었던 것이다. 천조대신의 위패를 대피시킨 바로 그 자리에 단군영정을 비롯한 삼신상(환인·환웅·환검)을 모시고 매년 개천절(10.3)과 어천절(3.14)에 행사하고 있으며, 입구 비석에는 대한민국성부조궁통일본단(大韓民國聖父祖宮統一本壇)이라 새겨져 있다. 바위에는 ‘단군굴’이라 새기고 ‘4290년(1957)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다.

광복 직후 학산(鶴山) 박효달(朴孝達)이란 분이 이 굴을 지은 뒤 10년전에 비관자살, 그 유지를 받들어 현재 강효식(姜孝植) 부부가 지키고 있다.

7. 백범광장(白凡廣場) 주변

이 광장은 전에는 남산 야외음악당이 있었고, 지금은 회현동 1가 100번지 115호에 있다. 일제 강점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8년 8월 23일에 개설되었다.

김구선생(1876~1949)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해주의 갑오농민전쟁(동학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 의병단에 입단한 이후, 1910년新民회(新民會)에 참가했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 상해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하면서 1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조직, 당수가 되어 항일 무력운동을 지휘



백범 김구 선생 동상

했으며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1944년에는 임시정부 주석(主席)에 선임, 1945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8·15광복으로 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48년 남북협상을 제창했으며 그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백범 김구선생 동상은 높이 5m로 1969년 8월 23일에 건립하였다.

이 광장에는 이승만대통령 동상을 세웠으나 4.19혁명때 철거되고 대신 백범선생 동상을 세웠다. 그 밖에 말탄 김유신 장군의 동상과 대한민국 초대부통령 이시영(李始榮)선생의 앉아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 장군 동상

김유신(金庾信, 595(진평왕17)~673(문무왕13))장군은 신라 명장으로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龍華香徒)를 거느리면서 화랑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였으며 그 뒤 고구려·백제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무열왕 7년(660)에는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연합,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문무왕 3)에는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고 668년에는 당과 신라 연합군의 대총관(大總管)이 되었으며 고구려 정벌후 태대각간(太대角干)에 승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여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수복하였다. 흥덕왕때(835)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다.

김유신장군 동상은 높이 4m로 1969년 9월 23일에 건립하였다.

이시영(李始榮, 1865(고종5)~1953)선생은 호는 성재(省齋)이며 독립



성재 이시영선생 동상

운동가이며 정치가로 1885년(고종2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쳐 평안남도 관찰사,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직제개정때 국무의원 겸 법무의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45년 귀국, 대한독립촉성회 위원장으로 민주진영을 영도했으며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의 비민주적 통치에 반대하고 1951년 부통령을 사퇴했으며 대종교도(大宗教徒)로서 1950년 원로원(元老院) 원장을 지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다.

성재 이시영선생 동상은 높이 2.7m로 1986년 4월 17일에 건립하였다.

8. 남산광장(安義士廣場)

(1) 안중근의사 기념관

남산 광장은 남대문로 5가 471번지에 있다. 이곳은 일제때 조선신궁(朝鮮神宮)이 있던 곳으로 1959년 5월에 승의여고 앞에 세웠던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사 동상(높이3m)을 1967년 3월 26일에 이곳으로 이안(移安)하였으며 안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으로 1970년 10월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건립,개관됨으로써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성을 내포한 역사적 명소가 되었다. 여기에는 의사의 사진과 유묵(遺墨) 등 소장품 11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영전이 마련되어 참배할 수도 있다.

1909년 1월 하얼빈 역두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오(伊藤博文)를 사살하



안중근 의사 동상

므로서 겨레의 얼을 세계에 빛낸 의사의 동상 대석에는

조국이 기울어 갈 때 정기를 세우신 이여

역사의 파도 위에 정기를 세우신 이여

해 달도 길을 멈추고 다시 굽어 보도다

라는 찬시가 새겨져 있고, 또 어록비(語錄碑)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분수대·꽃시계·벤치 등이 조경되어 있고 청소년 서예백일장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안중근(1879(고종16)~1910)의사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문을 수학하고 말타기, 활쏘기를 익혀 문무를 겸했다. 1895년 천주교에 입교,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1907년 남포에 돈의학교(敦義學

校)를 세운 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1908년에 대한의군참모 중장 겸 특과독립대장 및 아령지구군사령(俄領地區軍司令)의 직책을 맡아 의병을 이끌고 경흥(慶興)까지 쳐들어와 만주 하얼빈역에 잠입, 권총으로 이토오를 쏘아 죽인 후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川上俊彦) 궁내 대신 비서관 모리(森泰二郎), 만철이사(滿鐵理事) 다나까(田中清太郎)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0년 3월에 순국하였다. 재감중(在監中)에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해박한 사적(史的)감각으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2) 남산시립도서관 주변



퇴계 이황선생 동상

또 남쪽 낮은 지대에는 시립남산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부지 13,292.4㎡에 5층건물 9,362.1㎡로 1964년 12월 10일에 설립했으며 열람석은 724석이다. 정문 양쪽에는 퇴계 이황선생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1970년 10월 20일에 건립했으며 동상의 높이는 각각 3.50m이다.

이황선생(李滉, 1501(연산군7)~1570(선조3))은 호는 퇴계(退溪)로 1534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쳐 1566년(명종21)에 공조판서, 이어 예조판서를 지내고 1568년(선조1)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홍문관·예문관 대제학을 지내고 고향에 은퇴하여 학문에 전심하였다. 주자학(朱子學)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성(誠)을 기본으로 일생동안 경(敬)을 실천하고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키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이(理)에 따르는 것이 4단(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것을 타는(乘) 것이 7정(情)이라고 하였으며, 이 학풍은 뒤에 이원론에 반박하고 나선 기호학과에 대하여 영남학파를 이루어 뒤에 동·서 당쟁은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깊었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내리게 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했고 도산서원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으며 시문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명종·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퇴계 이황선생 동상은 1970년 10월 20일에 건립하였으며 높이는 3.5m이다.

정약용선생(丁若鏞, 1762(영조38)~1836(헌종2))은 호는 다산(茶山) 또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

는 여유당(與猶堂)으로
어릴 때 아버지에게 경
사(經史)를 배우고, 그
뒤 이벽(李蘊)에게 서학
(西學)을 배웠으며 1789
년(정조13) 식년문과(式
年文科)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천주교인이라 하여 공서
파(攻西派)의 탄핵으로
유배길에 오르기도 하였
다. 1795년 동부승지(同
副承旨)·병조참의가 되
었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에 연루, 금정도찰방
(金井道察訪)으로 좌천되

었으며 그 뒤 곡산부사(谷山府使)·형조참의 등을 지내며 규장각의 편찬
사업에 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1799년
공서파로부터 서학문제로 탄핵을 받아 사직했으며 1801년(순조1년)신유
박해(辛酉迫害)때 장기(長鬐)로 유배된 뒤에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帑
書事件)으로 강진(康津)에 이배(移配)되어 유배지인 다산(茶山)기슭에
있는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19년간 경서(經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1818년(순조1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로 풀려나와 고향에서 저술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유형원(柳馨遠)·이익(李滉)의 학풍을 계승하여 유학의 정신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 북학과(北學派)의 사상을 흡수,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1910년(융희4) 규장각 제학(提學)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은 1970년 10월 20일에 건립하였으며 높이는 3.50m이다.

남산도서관 동쪽 양지바른 곳에는 젊어서 세상을 떠난 외로운 서정시인 소월(素月) 김정식(金廷湜)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1968년 진달래가 한창 피던 3월 13일에 새운 이 비에는 다음과 같은 '산유화' 전문이 새겨져 있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남산 양지 바른 기슭에 세워진 소월시비

김소월(1902(광무6)~1935)은 본명은 정식으로 평안북도 정주(定州)에서 태어났으며 『오산학교(五山學校)』에 다닐 때 김억(金億)에게 사사(師事), 1921년 배재고보(培材高普)에 편입했다. 1922년 김억의 주선으로 《진달래꽃》을 『개벽(開闢)』지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 계속해서 《꿈자리》, 《님의 노래》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배재고보를 중퇴하고 낙향하였다. 이때 그의 유일한 단편소설 《함박눈》을 『개벽』지에 발표하였으며 나도향(羅稻香)과 친했고 한때는 동아일보사 정주지국을 경영했으며, 여러 가지 사업에 손댔으나 실패하고 33세에 요절하였다. 처음에는 정형시(定型詩)를 썼으나 말년에는 민요적인 서정시를 썼다.

소월시비는 1968년 3월 13일에 건립되었으며 높이는 1.2m이다.

9.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한옥마을은 현재 필동 언저리인 조선시대 청학(靑鶴)이 사는 선향(仙鄉)이라 하여 청학동으로 불렸던 곳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산골짜기에 천우각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장안에 이름이 있던 곳으로서 1989년 서울시에서 필동 수방사부지를 인수, 건물을 철거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1998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체 2만4,180평으로 전통정원, 타임캡슐광장, 한옥촌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전통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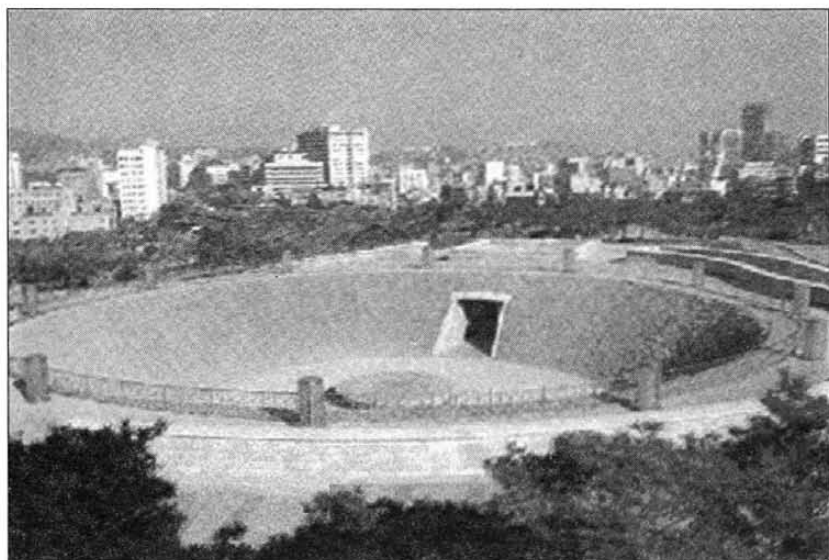
전통정원과 한옥마을 일부

2만 280평의 전통정원은 짜증나는 도심 속의 시원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연못을 비롯해서 골짜기, 누각, 다목적마당 그리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원은 전통양식을 복원하여 옛 정취를 느끼게 하며 나무도 소나무, 느티나무, 수양버들 등 향토 수종으로 배치하여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또 마당과 누각에서는 국악, 농악, 전통무예, 탈춤 등 전통놀이 마당이 펼쳐지고 세시절(歲時節)이 되면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도 할 수 있다.

(2) 94' 타임캡슐 광장

남산골 한옥마을의 상층부에 위치한 타임캡슐광장은 천5백평으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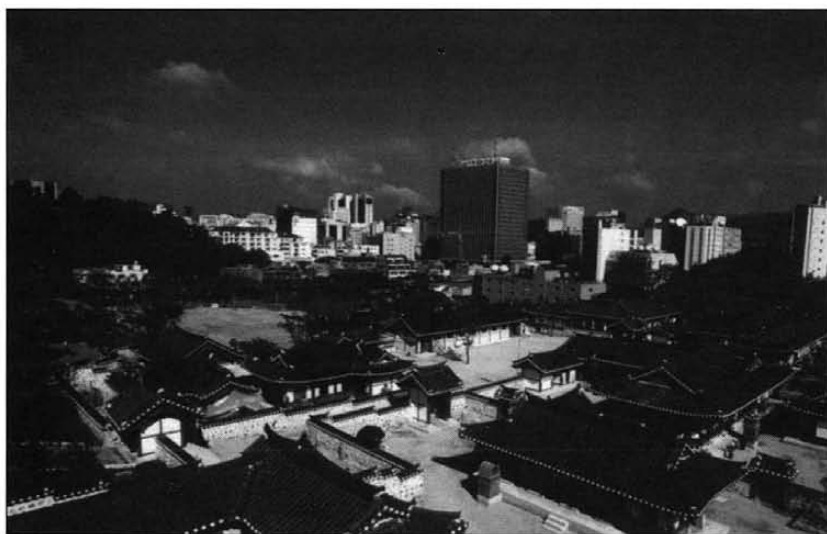


'94타임캡슐광장 전경

울의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서울시민들의 생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품목 6백점이 지하 15m에 매장되어 있다. 조선 태조대왕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즉 서울정도 6백년이 된 지난 1994년 11월 29일 문혔는데 정도(定都) 1천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마치 분화구 모양으로 된 이 광장을 돌고 있으면 감회가 새로워진다.

(3) 한옥마을

2천4백평의 대지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민속자료인 순정효 왕후 윤씨 친가, 도편수 이승업 가옥,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오위장 김춘영 가옥 등 한옥 5개동이 이전, 복원되었다.



남산한옥마을 전경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는 조선 27대 순종의 황비인 순정효황후 윤씨가 열세살 나이로 동궁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윤씨가라고도 한다. 이 집은 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 옮기지 못하고 건축양식대로 본떠 이 곳에 복원하였다.

집의 평면은 ㄷ자형 몸채 앞쪽에 사랑채를 두어 전체 평면은 ㅁ자형이다. 몸채와 사랑채쪽은 지붕에 단차이(段差異)를 두었으며 사랑채 대청부분은 바깥에서 볼 때 중층(重層)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지형을 살린 구성이다.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초익공, 운공을 사용한 점 후면과 측면 빗마루 바깥쪽으로 설치한 정자살창, 사고석과 전돌을 사용한 화방벽(火防壁)이 설치된 점 등에서 최상류층의 저택임을 알 수 있으며 일견 별궁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해평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해풍부원군 윤택영 덕 재실은 조선조 제27대 순종의 장인 해풍 부원군 윤택영이 그의 딸 윤황후가 동궁계비에 책봉(1906)되어 창덕궁에 들어갈 때 지은 집이다. 제기동 224번지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다.

이 집의 평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으뜸 원(元)자 모양인데 제일 윗터에 사당을 배치하고 그 아랫터에 몸채를 두었다. 사당은 1960년 4,19때 소실되었던 것을 금번에 복원하였으며 사당 앞에 두단의 석축을 쌓아 꽃계단을 구성하였다.

몸채는 일고주오량가(一高柱五樑架)이고 앞채는 삼량가이다. 장대석기단과 방형초석, 그리고 일부에는 굴도리를 사용하여 집의 격식을 높였다. 가옥 전체의 분위기는 살림집이라기 보다는 제실 용도에 걸맞게 되어 있다.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은 서울 8대 가문의 하나로 전해진다. 조선 25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

대 철종의 후궁 숙의 범씨 소생인 영혜옹주의 부군 박영효(1861~1939)가 살던 집이다.

이 가옥은 당초 안채,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행랑채로 이루어 졌으나 안채외에는 헐리어 없던 것을 사랑채와 별당채만 복원하였다. 안채는 ㄱ자형 몸채에 一자형 행랑간이 붙어 ㄷ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개성(開城)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형으로 서울의 주택에서는 보기드문 형태이다.

장대석을 사용한 기단, 칠량가의 가구(架構), 6간크기의 부엌 등에서 대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으며, 파련각(波蓮刻)한 보아지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마루밑 고막이 벽에 투공문양 벽돌을 사용하여 환기공을 설치한 점 등은 일반 민가에서 보기 드문 것들이다.

오위장 김춘영 가옥은 조선조 말기 오위장을 지낸 김춘영이 1890년



오위장 김춘영 가옥

대에 지은 집이다. 삼청동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다. ㄷ자형 안채에 一자형 사랑채를 연결시켜 ㄷ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은 오랑가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삼랑가이다. 판대공을 사용하고 흙치마로 꾸미는 등 전체적으로 평민주택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의 뒤쪽 벽측 길가에 면한 부분에 사귀석(四鬼石)과 전돌을 사용하여 화방벽(火防壁)을 쌓아 집의 격조를 더 높인 것은 특기할 만하다.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조선조 말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될 때 도편수(목수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업이 1860년 대에 지은 집으로, 삼각동 36-2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에 이전 복원하였다.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안채는 정(丁)자형이고, 사랑채는 ㄷ자형의 평면이다. 안채에서 부엌



도편수 이승업 가옥

과 안방쪽은 반오량(半五樑)으로 꾸며 전후면의 지붕 길이를 다르게 꾸민 특색있는 구조이다. 대청과 건너방 쪽은 일고주오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곳에서는 폭신평신했던 방석에 앉아 향긋한 우리의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옥마을내에 남산골 선님의 별칭으로 불리던 딸각발이에 대한 수필을 쓴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선생의 기념비도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맥을 이어온 찬란한 우리 민족문화는 훌륭한 전통 공예의 뿌리를 내렸다. 우리 민족은 각 시대마다 이웃을 통해 들어온 외래문화를 우리의 토착 문화속에 적절히 소화시키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냈으며, 그 가운데서도 공예문화는 생활습성에 알맞는 쓰임새



일석 이희승 선생 기념비

대로 다양하게 다듬고 꾸며서 만들고 사용하면서 대대손손 꽃피워 왔다.

옛 서울의 양반 마을의 정취가 서려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우리 전통공예품의 정수를 한 자리에 상설 전시하는 전통공예관은 한국 전통 공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서울 장안의 명소가 되어 국내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이곳에서 한국인 전통생활문화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전통공예가 관광상품이 되어 세계 속에 널리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조지훈 시비(趙芝薰 詩碑)

남산 북쪽 기슭 예장동에는 조지훈 시비가 길 옆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시비는 1971년 5월 17일 건립되었으며 높이 2.5m로 「파초우」(芭蕉雨) 전문이 새겨져 있다.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앞에 후드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조지훈선생 시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던고

조지훈(1920~1968)선생은 본명은 동탁(東卓), 경북 영양출신이며 청록파(靑鹿派)의 한 사람으로 1939년 문단에 나와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1967년에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 「조지훈 시선」·「시의 원리」·「한국문화사 서설」 등이 있다.

10. 장충단 공원(獎忠壇公園) 일대

남산 동북쪽 산 기슭 티 없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돌아가면 장충단 공원이 있다. 이 공원 내에는 분수대를 비롯한 각종 놀이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특히 장충단의 비석과 석호정(石虎亭), 그리고 임진왜란때 승장(僧將)으로 크게 활약한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동상과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분사한 이준(李儔)열사의 동상, 일제 강점기에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몸을 바친 류관순(柳寬順)열사, 김용환지사 동상과 최현배선생 기념비가 세워져있으며 1958년에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이곳으로 옮겨온 수표교(水標橋)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으며, 아시아 자유 반공연맹센터내에는 신의주반공학생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맞은 편에는 남산공원길과 연결하는 곳에 국립극장이 있으며, 동국대학교 구내에는 동악시단(東岳詩壇)이 있고, 또 하얏트호텔 맞은 편에는 남산야외식물원이 있다.

(1) 장충단

장충단비는 장충동 2가 197번지 공원내에 있다.

광무(光武)4년(1900)에 고종황제의 조칙(詔勅)에 의하여 원수부(元帥府)가 을미사변(1895)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경직(李耕植) 이하 여러 장병과 열사(烈士)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00년(광무4년) 9월 19일 당시 어영청(御營廳) 분영(分營)인 남소영(南小營)자리(현재 신라호텔영빈관)에 초혼단(招魂壇)을 만든 것이 곧 장충단이다. 처음에는 충의공(忠毅公) 부령(副領) 홍계

훈(洪啓薰), 진남영(鎭南營)의 영관(領官) 엄도희(廉道希), 무남영(武南營)의 영관 이경호(李景鎬)를 주신으로 제향하고 통위영(統衛營)의 대관(隊官) 김홍제(金鴻濟), 장위영(壯衛營) 대관 이학승(李學承), 진남영의 대관 이종구(李鍾九) 등을 배향하여 봄·가을에 제사 지냈고 다음해에 을미사변에 순국한 궁내부대신 이경직과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 등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제사에 빠뜨릴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 추가로 모셨다.

봄·가을로 제사를 올렸는데 군악을 연주하고 조축(조축)을 쏘았다.

남산 밑에 장충단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일세

이것은 바로 이 당시 이들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향(祭享)을 거행할 때 맨 먼저 우렁찬 군악소리에 따라 도열한 장병들이 총을 높이 받들어 올리던 그 감회를 민요조로 부르던 가락이다.

1895년(고종32년) 8월 20일 새벽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앞세운 일본인 자객과 난군(亂軍)들은 경복궁, 광화문으로 밀어닥쳤다. 궁중에서 숙직하던 부령 홍계훈은 때아닌 요란한 총소리를 듣고 재빨리 광화문을 가로막아서서 칼을 빼어들고

“웬 놈들이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일본인 자객과 난군들은 그 위엄에 질려 멈칫거리다가 마구 총을 쏘아댔다. 숙직군만으로는 그 수에 역부족이었다. 홍부령은 어느결에 적탄 여섯발을 맞고 이어 예리한 칼날에 쓰러졌다.

이처럼 무도한 폭거로 광화문 문짝을 밀어제치고 경복궁 안으로 들

浮舟審以來
 靜融萬宇竹野且公
 昨矣事終然政事每自付還
 云無老依 貴分付乃計矣
 惟由石海澄謝禮
 何生 弘基重書

부령 홍계훈의 서찰글씨

어선 저들은 궁궐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건청궁(乾淸宮)까지 침입하여 민황후(閔皇后)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때 숙직하던 궁내부대신 이경직이 홀로 몸으로 막아서서 저항하다가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직하였다.

이러한 야만적인 일제의 만행에 맨주먹으로 대항하다 죽음을 맞았다.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은 그 당시의 정황을 슬퍼하며 ‘고 연대장 충의공 홍계훈 애시’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먹구름으로 달 가리니 궁성 어둡고
 군인이 몸으로 지키니 그 노기(怒氣) 하늘을 찔렀네
 나라 불들고자 내 몸 바치니
 총칼에 죽어도 산 것만 같네
 임금께 간한 충언(忠言) 그 몇 번이던가
 벼슬길 대쪽같이 곧고도 맑았네
 어지신 어머니의 교훈 있었기에
 그 이름 천추만대 길이 빛나리

墨雲蔽月暗空城 連師當門怒氣橫
 隻身網常扶欲起 一身鋒鏑死如生
 伏浦幾進忠言苦 分竹曾聞吏事清
 更有家訓賢母訓 千秋彫管定垂名

이 시문중에서 ‘어지신 어머니의 교훈있었기에 그 이름 천추만대 길이 빛나리’라 한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외롭게 자랄 때 항상 어머니는 의리를 가르쳤다. 어느해 청주병사가 되었을 때 어물(魚物)을 보내드리니

“네가 나라의 은혜를 입고도 나라에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임금께서 내려주신 물건을 사사로이 나에게 보내다니 이 무슨 짓인가…….”

하며 도리어 엄하게 책망하였다고 한다.

또 한양가(漢陽歌)에는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집
나라 위해 몸바친 신령 되시네
태산같은 의리에 목숨보기를
터럭같이 하였도다 장한 분이네

하였다.

일제는 1908년(융희2)부터 대일감정을 악화 시킨다는 이유로 제사를 금지 시켰고 이 일대에 벚꽃 수천 그루를 심어 장충단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하려는 저의에서 이 근처에 박문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결국 장충단은 1910년 8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하면서 폐사(廢祀)되었다.

장충단에는 제단과 사전(祀殿)이 있었고 그 앞에 “장충단”이라 새긴 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은 한국전쟁때(1950~53) 파손되고 지금은 장충단비만이 쓸쓸이 남아 있다. 앞면에 전서체로 쓴 ‘獎忠壇’이란 세글자는 고종황제의 친필이고 뒷면의 비문은 충정공 민영환(閔泳煥)이 지은 것이다. 이 비는 1969년에 원래의 영빈관 자리에서 장충단 공원입구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장충단공원 입구에 들어설 때 길옆 가게에서 스물아홉의 꽃다운 나이로 가버린 가수 배호(裴湖)의 ‘안개낀 장충단공원’이란 노래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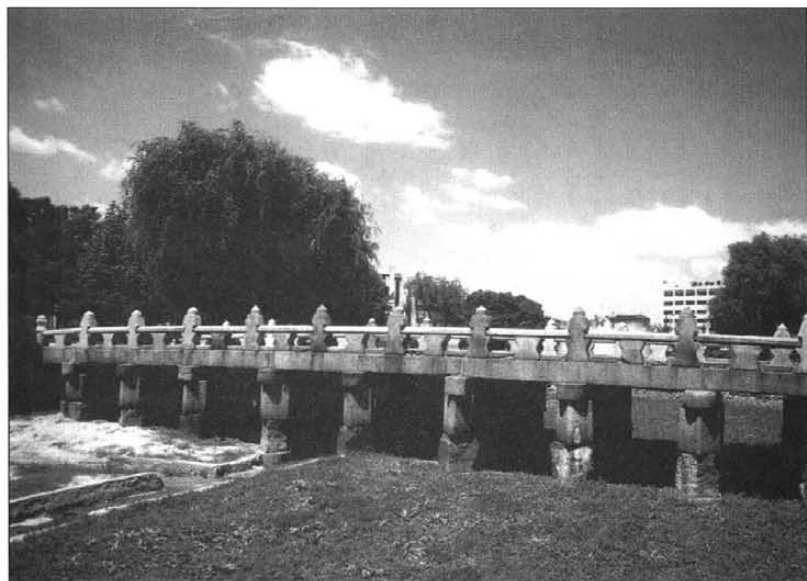
(2) 수표교(水標橋)

장충동 197-1번지에는 수표교가 있다.

수표교는 원래 수표동과 관수동 사이의 청계천에 있던 다리로 세종2년(1420)에 설치하였는데 그곳에 마전(馬廐)이 있어 처음에는 마전교(馬廐橋)라 불리어졌으나 세종23년(1441)에 청계천에 흐르는 수위(水位)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표석(水標石)을 세운 뒤부터 수표교라 하였다.

조선 성종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수표교는 장통교(長通橋) 동쪽에 있으며 다리 서쪽 중앙에 빗물의 양을 알기 위해 석표(石標)를 세웠다. (在長通橋東橋西中央 立石標 刻尺寸之數 凡雨 以知深淺)



수표석이 없는 수표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기록으로 보아 돌로 만든 수표석이 세워지면서부터 수표교로 불리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뒤 수표석을 다시 세운 것은 영조(英祖)36년(1760)으로 청계천의 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수표교 아래에는 높이 10척(3m)의 수표석을 새로 만들어 세우고 다리기둥에는 「庚辰地平」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광복뒤에도 이 다리는 서울의 명물이었으나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철거되어 장충단공원에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표교는 돌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나무로 조각한 다리처럼 화려하게 보인다. 모두 화강암으로 되었으며 다리기둥은 45개의 육모진 큰 석재(石材)위에 길게 모진 시령을 걸치고 그 사이에 돌을 깔았다. 또 양편가에는 돌난간도 달아서 그 구조가 우아하고 아름답다. 수표석과 함께 서쪽 시령측면에는 「戊子禁營改造」, 「丁亥改造」 등의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다.

수표석은 영조25년(1749) 또는 영조36년(1760) 영조49년(1773) 순조33년(1833) 등 제작연대에 있어 많은 설이 있으나 어쨌든 1973년에 장충단공원에서 다시 홍릉의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 보존되고 있어, 현재 이곳 장충단공원에는 수표(水標)다리가 아닌 수표교(?)가 있다. 수표교를 상징하는 것은 수표석(水標石)이다. 수표석이 없는 다리는 그냥 다리일 뿐이다. 우리 학생들이나 외국인이 「왜 수표교냐?」고 물었을 때 수표석이 없는 다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표석 없이 그냥 다리로 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날밤 밤을 세워가면서 답교(踏橋)놀이를 즐겼고 대보름날 전후 2~3일 동안은 수표교 아래 위에서 청소년들은 연날리기를 하던 유서깊은 다리이다.

(3) 사명대사(泗溟大師) 동상

장충단비와 동국대 중문의 중간지점에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사명대사 동상이 있다.

사명대사는 법명은 유정(惟政. 1544(중종39)~1610(광해군2))이며 성은 임(任),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泗溟堂:四溟堂)·송운(松雲)·종봉(鍾峯)이며 본관은 풍천(豐川), 수성(守成)의 아들로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 슬하에서 공부하였으며 1556년(명조11) 13세때 유촌(柳村) 황여헌(黃汝獻)에게서 맹자(孟子)를 읽다가 황악산(黃岳山) 직지사(直指寺)의 신묵(信默)에게서 승려가 되었다. 1561년(명종16)에 승과(僧科)에 급제하고 1575년(선조8)에는 선종(禪宗)계통의 봉은사(奉恩寺)에 주지로 초빙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에서 서산대사(西山大師, 休靜)의 법을 이어 받았다.

금강산·팔공산·태백산 등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도를 닦다가 43세때 상동암(上東庵)에서 소나기에 진 떨어진 꽃잎을 보고 덧없음을 느껴 문도(門徒)들을 해산하고 홀로 참선하였다. 1589년(선조22)에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된 뒤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머물렀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집하여 서산대사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서산대사의 뒤를 이어 승군도총섭(僧軍都摠攝)이 되어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을 수복한 다음 도원수 권율(權慄)과 의령(宜寧)에서 왜군을 격파하였다. 그 공로로 당상관(堂上官)의 벼슬을 받았으며 1594년(선조27)에는 왜장 가토오(加藤清正)의 진중을 3차에



사명대사 동상

걸쳐 방문하여 화의담판을 하는동안 적의 정황을 탐지하였다. 영남지방에 내려가 팔공·용기(龍起)·금오(金烏) 등지에 성을 쌓고 군량미와 무기를 갖추어 방비태세를 갖추었다.

1597년(선조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장수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의 도산(島山)에서 적을 격파하고 이듬해에는 명장 유정과 순천(順天)에 전공을 세워 1602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1604년에는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德川家康)를 만나 강화를 맺고 우리나라 포로 3천5백명을 인솔하고 귀국하였다. 그 공으로 가의대부 행 용양위대호군(嘉義大夫 行龍驤衛大護軍)에 올라 어마(御馬)를 하사 받았다.

그 뒤 치악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인사로 가서 그곳에서 열반하였다. 초서를 잘 썼다.

대사의 동상은 높이가 3m로 1968년 5월 11일에 건립되었다.

(4) 이준(李儁) 열사 동상

장충단 공원 깊숙한 곳에 이준(1858(철종19)~1907(광무11)) 열사의 동상이 있다.

이준 열사는 자는 순칠(舜七), 호는 해사(海史)·일성(一醒)·청하(靑霞)·해옥(海玉)이며 병관(秉權)의 아들로 북청(北靑)출신이다. 29세때 북청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바 있으며 1895년에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이듬해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다가 사임하고 서재필·이승만·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한 다음 초대 평의장(評議長)에 취임했으며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이해에 아관파천을 계기로 실권을 쥔 친러파(親露派)의 내각의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



이준 열사 동상

하여 1898년에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독립협회의 일을 보았다.

1904년(광무8) 일본이 국내의 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려고 하자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여 이를 저지 시키려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일진회(一進會)에 대항하여 윤하영(尹夏榮)·양한묵(梁漢默) 등과 공진회(共進會)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어 친일적(親日的)인 관료들을 규탄하다가 황주(黃州) 철도(鐵島)로 유

배되었다가 이듬해 민영환, 이용익 등의 주선으로 석방된 뒤 윤효정(尹孝定) 등과 헌정(憲政)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시 항일 국민운동을 벌였다. 1905년에는 유성준(兪星濬) 등과 국민교육회를 조직한 뒤 보광(普光)학교를 세웠다. 이 해에 평리원(平理院)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검사에 임명되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하여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이 되어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일진회의 공작으로 좌절되었다. 이해 고종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명을 받고 4월 2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李相勳)과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중(李瑋鍾)과 합류한 뒤 헤이그에 도착한 뒤

의장을 방문하고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전했으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울분에 못이겨 순국하였다.

열사의 동상은 높이가 3m로 1964년 7월 14일에 건립되었다.

(5)류관순(柳寬順) 열사 동상

류관순(1904(광무8)~1920) 열사 동상은 장충단길과 남산 제2호터널이 만나기 전 중간에 세워져 있다.

류관순 열사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중권(重權)의 딸이다.

1916년에 기독교 감리교 충청도 교구 본부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학당(梨花學堂) 교비생으로 입학했으나 1919년 3.1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천안·연기·청주·진천 등지의 학교와 교회를 찾아 다니면서 시위운동을 협의하였다. 드디어 1919년 음력 3월 1일 아오내(並川)장터에서 수천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행렬을 지휘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진압하기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공주(公州) 검사국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심법원(覆審法院)에 항소하여 서울로 호송된 뒤 7년형을 선



류관순 열사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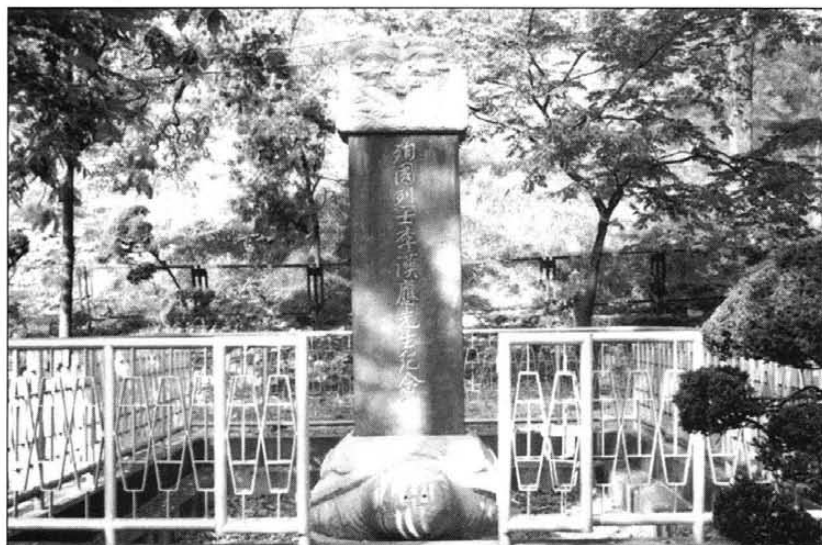
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감옥안에서 만세를 부르며 동지들을 격려하다가 옥사하였다.

열사의 동상높이는 3m로 1970년 10월 2일에 건립되었다.

(6) 이한응(李漢應) 선생 비

이한응(1874(고종11)~1905(광무9))선생은 자는 경천(敬天), 호는 국은(菊隱)이며 본관은 전의(全義)로 곤양군수 경호(璟鎬)의 아들로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1892년(고종29)에 18세로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고 1894년에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897년(광무1)에는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가 되고 1899년에는 관립영어학교 교관으로 진출되었다가 1901년 3월



이한응 선생 기념비

영국·벨기에 양국주차공사관(英白兩國駐筭公使館) 3등 참서관(參書官)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에 부임하였다. 1903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이듬해 주영공사(駐英公使) 민영돈(閔泳敦)의 귀국으로 서리공사가 되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제1차 한일협약으로 국세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는 영일동맹(英日同盟)으로 한국정부의 국제적 지위가 전락하자 이를 개탄하고 1905년 5월 12일 음독자결하였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조국의 제단에 그 한 몸을 바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가 남긴 유서 한대목을 보자.

아아 국가는 주권이 없고 인민은 평등을 잃었으니 모든 교섭에 망국한 치욕을 혈기있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구나. 종사(宗社)는 장차 빈터만 남고, 민족은 노예의 처지가 되고 말겠구나. 구차히 살아보았자 욕됨만 더할 것이니 차라리 죽음만 못하지 아니하리오.

고종의 특명으로 선생의 시신은 국내로 옮겨져 용인(龍仁)에 안장(安葬)되고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추증(追贈)하고 장충단(獎忠壇)에 제향(祭享)하였다.

기념비는 높이3m로 1960년에 건립하였다.

그 밖에 김용환 지상 동상(높이2m. 1970년 10월건립)을 비롯해서 최현배 선생 기념비(높이3m. 1971년 5월건립), 한국유림 파리장서비(높이3m. 1973년 10월건립), 반공청년운동기념비(높이8m. 1968년 10월건립), 제일강산태평세계비(높이1.2m. 1963년 5월건립), 자연보호현장비(높이3.6m. 1980년 5월건립) 등 기념비가 있다.

(7) 남산 야외 식물원

남산 남쪽자락 하얏트호텔 맞은 편에 야외식물원이 있다.

1994년 11월에 철거한 남산 외인 아파트와 외인주택터에 약 2년반 동안의 조성공사를 거쳐 1998년 2월 10일에 문을 열었다. 이 식물원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269종 11만 7천 132주의 식물이 야외에 전시되고 있어 기존의 남산 열대성 온실 식물원과는 달리 식물이 가지고 있는 4계절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기능과 특징에 따라 무궁화원, 유실수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덩굴식물원, 희귀식물원, 시각장애자식물원, 화목원, 살구나무원, 야생산초원, 철쭉·진달래원, 관목원, 경제림원 등 모두 1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관람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이 중 무궁화원에는 배달, 꽃피, 사임당, 설악, 산처녀 등 이름도 특



남산 야외식물원 입구

이한 무궁화 20여종이 전시되어 단일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궁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 시각 장애인 식물원은 점자 안내판과 함께 향이 독특하거나 가시가 있어 감촉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식물들로 조성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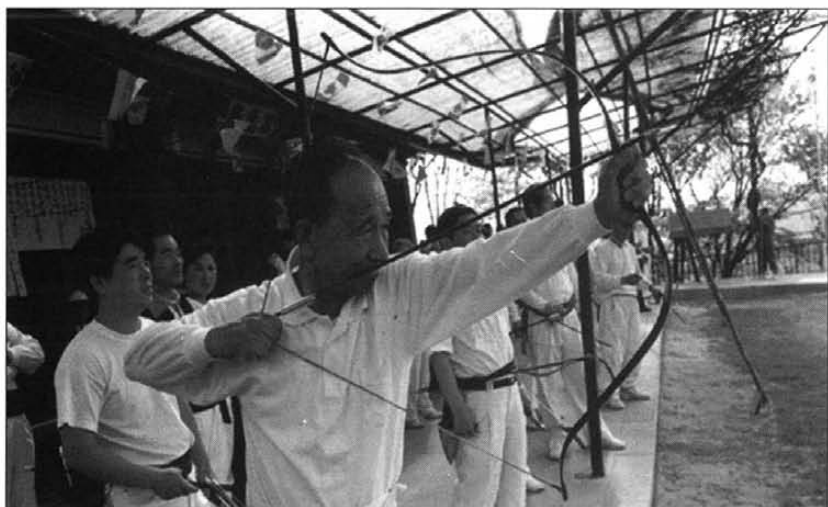
이 밖에 식용식물원에는 감나무·복숭아나무 등 각종 탐스러운 과실 수를, 또 약용식물원에는 두충·자작나무 등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희귀식물원에는 백송·금송·구상나무·미선나무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흔히 보기 힘든 식물들도 만날 수 있으며 단체 관람객들을 위해 자연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식물별 특성 및 활용방안, 재배방법, 환경오염과 식물의 관계 등을 배울 수 있다.

(8) 석호정

남산 국립극장 뒷편에 활쏘는 정자인 석호정이 있다. 조선시대에 장충단공원 뒷편 동국대 후문쪽에 남산골 선비들이 심신단련을 위하여 석호정이라는 활쏘는 곳이 현재 과녁 윗쪽에 있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때 없어졌다.

현재 위치의 석호정은 1956년에 이곳에 있던 노인정을 중수하여 석호정으로 고쳤으며 1970년대부터 비영리 단체로써 심신체력단련과 사우(射友)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회원은 60명이며 사석(射席:활쏘는 자리) 7석, 중국궁 표준거리 145m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구화(西歐化)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옛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언무사습(言無射習)처럼 묵묵히 승계하여 한민족의 얼을 보존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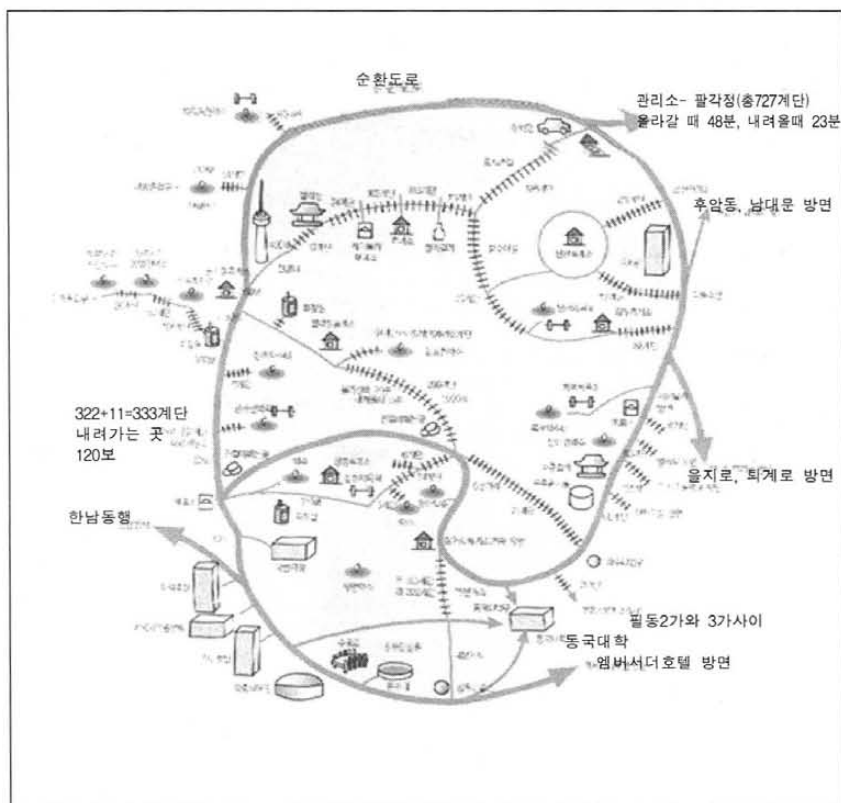
석호정에서 활 쓰고 있는 모습

(9) 남산의 약수터

약수란 곧 약물로 고형물질인 광물성물질, 방사성물질, 가스성물질 등이 함유되어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광천(鑛泉)이라 하고, 광천 중에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녹아있어 마셔도 좋은 물을 약수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 이후부터 상수도의 취수원인 한강이 1960년 이후부터 오염되기 시작하자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관리에 대해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수도물 대신 지하수나 바위틈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를 약수로 여겨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바위틈에서 솟는 약수는 칼슘·칼륨·라듐·황산염·규산·나트륨·마그네슘·철분 등 약간의 광물질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익할 수 있으며 또 차고 달아서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체내



남산 약수터 안내도(광희동 김영환옹 그림)

에 독물을 배설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흔히 약수터에는 약효와 효험 등을 미화·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위장병에 특효하다고도 하고 그 밖에도 피부병·신경통·안질·빈혈증·만성부인병 등에도 약효가 있다고 전한다.

남산의 약수는 예장동 부엉바위약수와 장충단약수가 유명하다. 부엉바위약수는 예장동 산 5번지 공명골(孔明谷)에 있으며 일명 범바위약수

또는 휴암(鵠岩)약수라고도 한다. 이 약수는 부엉바위 밑에서 솟아나오는데 물맛이 매우 좋으며 옛날부터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어 여름철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충동 산 14번지 장충단공원 부근에 장충단약수가 있다. 이 약수도 위장병에 특효하며 용출량(湧出量)은 2석(石) 8두(斗)라고 한다. 새벽에 이 공원으로 산책나온 시민들은 공원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가볍게 운동을 한 다음 이 약수를 찾아와서 달고 찬 약수 한 표주박을 마음껏 마시고 심신의 상쾌함을 만끽한다.

그 밖에도 수복천(壽福泉), 용암(龍岩), 불로천(不老泉), 잠두(蠶頭), 후암(厚岩)약수 등 많은 약수가 있다.

V. 제모습 찾는 남산

V. 제모습 찾는 남산

1. 왜성대(倭城臺)공원과 한양(漢陽)공원

(1) 왜성대공원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는 등 남산 가꾸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사철 푸르른 남산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상이라 생각하였다. 우리 애국가 2절 첫소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 하였듯이 늘 푸른 남산이기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우리 민족의 기상이며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었다.

그러나 1885년부터 일본인들의 도성내 거류가 정식으로 허용되고 진고개(泥岬)일대가 거류지역이 되자 그들은 지금의 예장동(藝場洞)일대인 속칭 ‘왜장터’, ‘왜장이’라고 불리어온 지역에 야외 모임이 있으면 으레히 이곳에 모이곤 하였다. 그것은 임진왜란때 이 지역 일대가 왜군의 주둔지였고 이곳 속칭이 왜장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지역이 왜장(倭將) 또는 왜성(倭城)과 관계있는 곳이라 하여 거류 초기부터 왜성대(倭城臺)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네들의 성역처럼 생각하였다. 앞서 연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곳은 옛날 영문군졸(營門軍卒)들이 무예연습장

(武藝練習場)이었던 때문에 예장(藝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음이 전화(轉化)되어 왜장이라 불린 것이지 왜장(倭將)과 관계된 이름은 아니다.

그들은 이지역을 성역(聖域)으로 생각하고 1892년(고종29)경부터 이곳에 황대신궁(黃大神宮)을 세울 것을 계획하였고 청일전쟁(淸日戰爭) 뒤에는 충혼기념비(忠魂記念碑)를 세울 것도 계획하였다. 이같은 거류민들의 계획을 들은 원경(原敬) 일본 공사는 이곳을 일본인들을 위한 공원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건양(建陽) 원년(1896)에 교섭하였으며 드디어 건양 2년(1897) 3월 17일에 이 지대 약 1ha의 땅을 공원경영의 목적으로 영구대차지(永久貸借地)로 하였으며 그 해 7월 거류민회(居留民會)는 이곳 명칭을 왜성대공원이라 명명하고 제1기 경상비(經常費) 3백 원(圓)을 계상하여 도로개설에 착수했으며 이듬해부터 휴게소·분수대·주악당(奏樂堂)·연무대(演舞臺)를 신설하고 벚꽃 6백그루를 심는 등 공원화(公園化)해 갔다. 또 1898년 11월에는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 뒤에 京城神社)이라는 것을 세워 그들의 수호신(守護神)으로 하였다.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된 다음해인 1906년 초에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이 생기자 그해 8월 15일에 경성이사청 고시(告示) 제23호, 이사청령(理事廳令) 제5호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산북면(南山北面) 일대지역 중 장충단, 체신국(일본) 주차군사령부(駐劄軍司令部), 통감부의 각 소속지, 왜성대일본공원 및 민유지(民有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를 경성공원(京城公園)이라 하고…앞으로 경성이사청이 이를 관리하며…수목(樹木)의 훼손, 토석(土石) 및 지초(芝草)채취·조수(鳥獸)의 포획 등 행위를 엄금한다.

라는 이른바 ‘경성공원규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들이 내건 표면상 이유는 주민들이 수목을 마구 벌채하여 풍치를 심히 해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하였지만 그 속셈은 장안 전주민의 마음의 귀의처(歸依處)가 되고 있는 남산 일대의 자연경관을 재빨리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 버리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렇게 광역(廣域)의 땅을 공원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연지대였지 도시공원은 아니었다.

(2)한양공원(漢陽公園)

거류민의 수가 점차 늘어가자 왜성대공원 외에 또 하나의 도시공원 조성을 계획한 일본인들은 왜성대공원에 바로붙은 서편(西便)의 땅을



고종황제 친필로 전해지는 한양공원 비석

눈여겨 보았다. 이 지대는 서울에 거주하던 구미인(歐美人)들이 자기들의 전용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국정부에 대해 사용권 획득을 교섭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재빨리 눈치챈 일본인 대표들은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 내부대신(內部大臣) 송병준(宋秉駿) 등 친일각료들에게 작용하여 이를 한(韓)·일인(日人) 공동의 공원으로 할 것을 획책하였다. 일본거류민단이 지금 남산식물원 서울과학교육원이 위치한 자리로부터 남대문까지에 이르는 남산 서북麓(西北麓) 일대 30만평의 땅을 영구무상대여 받기에 성공한 것은 1908년(隆熙2) 초였으며, 그해 봄부터 공사비 1800원을 들여 도로개설, 정자 기타 각종 공원시설을 시작하여 1910년 5월 29일에 정식 개원(開園)하였으며, 이때 고종(高宗)은 칙사(勅使)를 보내 치하하고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통감부(統監府)를 총독부(總督府)로 바꾼 뒤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1910년 5월 29일 개원한 한·일인(韓·日人) 공동 공원이자 한양공원을 새로운 설계의 공원으로 확장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한가지는 남산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대확장 계획이고 다른 한가지는 조선신궁(朝鮮神宮)에 관해서이다. 1916년에 수립된 한양공원 확장정리계획, 곧 남산공원 조성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경성부(京城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의 체제라는 면과 부민(府民)의 보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공원의 설비는 필요불가결하다. 이에 임학박사(林學博士) 본다정육(本多靜六)·전촌강(田村剛)을 초빙하여 설계를 위촉하였는데 그 계획은 한양공원·왜성대공원을 합병한 외에 다시 노인정·장충단의 일대까지 편입하여 일대 삼림공원(森林公園)을 현출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

리고 용산(龍山)도 소규모의 공원을 설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아직 가옥이 밀집되기 전에 적절한 용산의 시가지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계획만으로 그쳐 그 실현을 보지 못하여오다가 20년 뒤인 1936년에 경성부 행정구역의 확장과 더불어 경성부 도시계획과에서 전 경성부를 일대 공원도시로 만들려는 별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8년부터 한양공원에 이른바 관폐대사(官弊大社) 조선신궁(朝鮮神宮) 건립 계획을 진행하여 1920년에 지진제(地鎮祭)를 거행하고 150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신사(朝鮮神社(宮))를 건립하기로 하면서부터 사실상 한양공원은 폐쇄되었고 시설일체가 제거되었다. 다만 ‘漢陽公園’이라고 새긴 고종의 친필 비석 한 기가 남산3호터널 위에 남아 있다.

2. 일제(日帝) 침략기 중 남산의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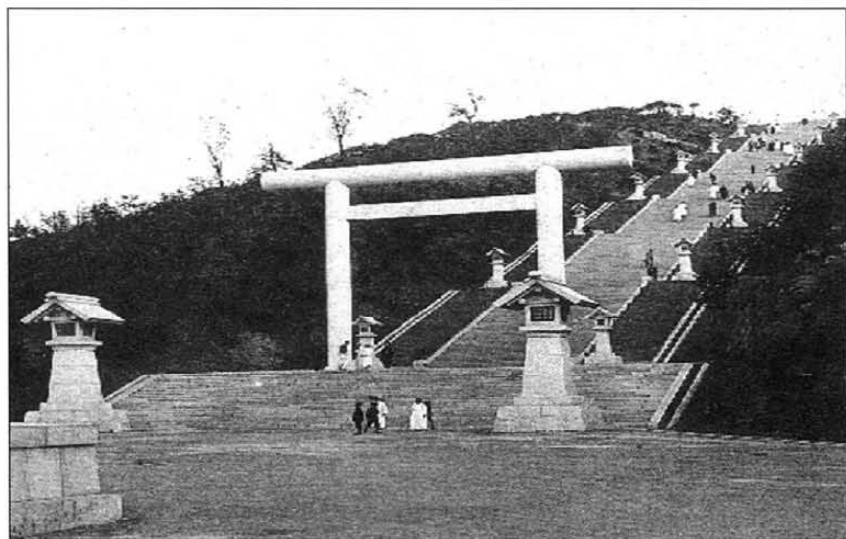
(1)조선신궁(朝鮮神宮)의 건립

조선신궁의 건립공사는 계획보다 늦어져 1925년에 완성되었다. 이 신궁이 건립됨에 따라 5백년이 넘도록 남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의 국사당(國師堂)은 인왕산(仁王山) 서쪽중턱으로 옮겨갔다. 경성부 안팎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수호신으로써 남산 북쪽 기슭에 설치하였던 경성신사(京城神社)를 1928년에 확충하여 본전(本殿)으로 개축하고 나서부터 일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사실 남산은 일제(日帝)의 일본정신(日本精神) 전파장으로 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총평수 12만7,900여평의 조선신궁의 면적은 남산공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신궁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은 공원에서 제외되었다. 신궁(神宮)터는 문자 그대로 신역(神域)이며 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정부 및 현지기관인 총독부 관리들의 논리였던 것이다.

당시의 남산공원은 수립이 무성하였을 뿐 아니라 봄 꽃, 가을 단풍이 화사하였으나 지세(地勢)가 급경사였으며, 또 일본신사(日本神社)들이 많았고 산책로라는 것도 조선신궁에 참배 도로로 꾸며졌던 탓으로 일반대중의 위락처(慰樂處)로서는 이용가치가 적은 공원이었다. 조선신궁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파괴 철거된 것은 광복직후의 일이었다.

1940년 3월 1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고시는 제1호 공원부터 제140호 공원까지를 고시(告示)하였다. 이때



당시 조선신궁 입구

남산공원은 제9호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넓이는 34만8,000㎡였고 이와 별도로 남산도로공원 19만1,000㎡를 제132호로 고시하고 있다. 이때부터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은 일체의 공식명칭에서 사라져 버렸다.

(2) 1936년까지 설치된 시설물

현 예장동 2번지의 수도방위사령부자리에 총독관저(總督官邸)가 있었다. 본래 정선방(貞善坊)에 있던 박영효(朴泳孝)의 저택을 일본공사관으로 사용했으나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으로 소실되자 공사관의 변상을 요구하여 이 일대를 주어 1893(1894)년에 건립하였다.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1905)이후에는 통감관저로 사용했으며, 합방(1910) 이후에는 총독관저가 되어 1939년 전 경무대 자리에 총독관저를 신축(최근에 헐렸음)·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현 예장동 8번지에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이 있었다. 목조 2층 건물이었으며 1906년 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2월에 준공되었는데 총독부관사(官舍)로 사용되다가 합방되자 총독부청사로 변경, 사용하였다. 1916년 현재의 세종로 1번지에 총독부 신축청사를 기공, 1926년 10월 1일 준공하여(중양청으로 최근에 헐렸음) 이전함으로써 한국내의 사회교화(社會敎化)를 위해 일본 황실에서 하사금 17만원을 준 것을 설계도면의 공모로 입선한 작품에 의해 건설되었다.

예장동 2번지 ‘한국의 집’일대에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이 총독관저와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공사관에서 경성이사청으로, 다시 증축하여 통감관저로 하였다가 총독관저가 되었다. 그 뒤 총독관저로 옮긴 뒤에는 정무총감(政務總監)관저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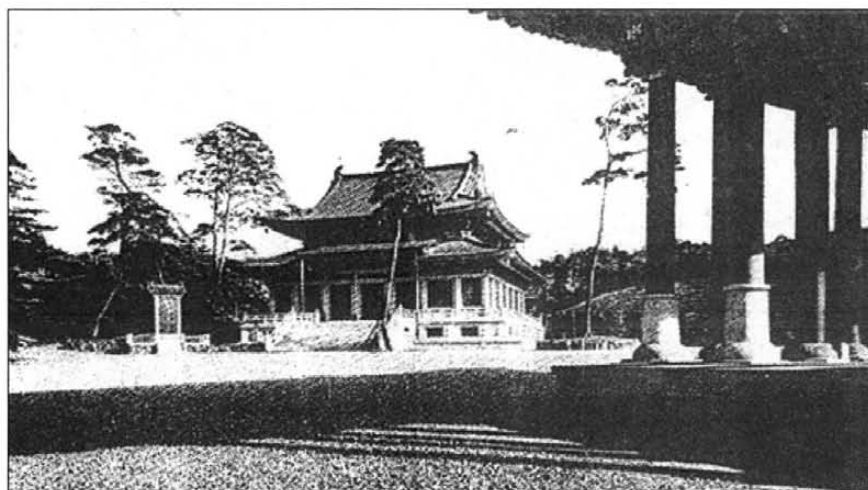
필동 2가 수도방위사령부 자리 및 한국의 집 일대에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劄軍司令部)가 있었는데 1908년 10월 1일 용산쪽에서 이전해 왔으며 1914년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로 개칭되었다.

그 밖에 1898년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이 세워졌으나 1928년에 경성신사(京城神社)로 이름이 바뀌어졌으며 부속신사건물로 내목신사(乃木神社), 도하신사(稻荷神社)와 천만궁(天滿宮), 팔번궁(八幡宮) 등이 있었다.

(3) 일제(日帝)의 남산공원 지정

1940년 3월 1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에 의한 경성시까지 계획공원결정고시(京城市街地 計劃公園決定告示)에 따라 예장동 일대 3만 4,800㎡를 남산공원으로, 그리고 장충동 2가 일대 41만8,000㎡를 장충단공원으로 각각 고시 지정하였다.

사실 장충단공원은 1916년부터 한양공원·왜성대공원을 통합하는 대삼림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장충단공원에 대한 시설을 시작한 것은 1919년 6월부터였다. 벚꽃 수천그루를 심는 외에 연못·광장·어린이놀이터·산책로·공중변소·교량 등을 시설하였으며 상해사변(上海事變) 때 결사대로 전사한 일본군인의 육탄(肉彈)3용사 동상도 세웠다. 이러한 장충단공원 동부 소나무가 우거진 지역 4만1,882평의 땅을 나누고 총경비 27만5천원을 들여 이토오(伊藤博文)를 기리기 위한 즉, 보리사(菩提寺)인 박문사(博文寺)를 1927년에 착공하여 1931년에 완공시켰는데 현재 신라호텔자리이다. 박문사의 본전(本殿)과 서원(書院)은 경복궁 내의 선원전(璿源殿) 및 부속건물을 옮겨 건축하였고 입구의 문은 경희궁(慶熙宮)의 흥화문(興化門)을 이축(移築)하였다.



당시 이토오를 기리기 위해 세운 박문사

3. 광복(光復)과 남산공원

(1) 남산공원의 확장

1945년 광복이 되자 먼저 철거된 것은 박문사 광문사(光文寺) 등 일제 사찰과 육탄3용사의 동상이었다. 이와함께 남산에 산재하고 있던 일제의 잔재를 없애긴 했으나 공원계획의 재검토 등에는 눈돌릴 새도 없이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월남민의 증가는 남산 일대에 피난민 정착지화를 형성하는 등 주거지로 점차 변모되어 남산의 훼손은 더욱 심해져 갔다.

1955년 7월 11일자 내무부고시 제303호 장충공원·남산공원 확장으로서 종전의 8호 공원인 장충공원과 9호 공원인 남산공원의 면적은 각각 41만8,000㎡와 34만8,000㎡였는데 이를 각각 69만9,500㎡와 125만

6,000㎡로 확장하였다. 이 확장은 종전의 두 공원이 남산의 일부분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인 보안림(保安林)으로 존치(存置)시켰는데 이 변경으로 기존공원의 일부분은 공원용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근 일대의 보안림을 편입하여 결국 119만100㎡의 광역(廣域)을 추가시켰는데 오늘날의 남산공원은 이렇게 해서 이룩된 것이다.

(2) 남산공원의 잠식과정(蚕食過程)

그러나 1957년 9월 30일자로 내무부고시 제395호로 남산공원의 최남단 완경면(緩傾面) 초생지(草生地) 16,600㎡를 외인주택(外人住宅) 50호 건립을 위해 해제하였고 남산공원 용지 동쪽부지 2만7,000㎡를 동국대학교 백성욱(白性郁) 총장이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특별승락을 받아 1958년에 착공, 1959년에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를 준공하였다. 이 부지는 1965년 8월 31일자 건설부고시 제1785호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다.

1962년 7월 30일자 건설부고시 제26호로 장충단공원 용지 12만2,700㎡가 해제되어 자유센터와 타워호텔이 들어섰으며 1963년 4월 16일자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장충단공원용지 10,800㎡가 해제되어 중앙공무원교육원(中央公務員教育院)이 들어섰다가 동국대학교 부지로 이관되었으며, 또 같은 날짜로 2,500㎡의 남산공원용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의 진정에 의해 제척(除斥)되었다.

1963년에는 처음으로 실내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이 건립되었다. 본래는 육군경기장으로 사용하다가 본격적인 경기장으로 개수하여 8천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체육경기 외에도 제4공화국 때까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이 외에도 각종 공개

행사가 이곳에서 자주 개최되고 있다.

1968년 11월 2일자 건설부고시 제681호로 8,440m²가 제척되어 그 자리에 재향군인회(在鄉軍人會)건물이 들어섰다.

1970년 6월 18일에는 3만2,000평의 대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16층, 17층 아파트 2개동을 외국인 임대아파트로 건설, 1972년에 완공함으로써 제척되었으며 1973년 10월 17일에는 국립극장(國立劇場)·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60,000m²의 넓이 위에 개관되었다.

1940년 3월 12일자 제8호로 지정될 당시 장충단공원 면적은 41만 8,000m²였으나 1955년 7월 11일자 내무부고시로 69만9,500m²로 확장되었으나 연이은 해제(解除)·제척(除斥)으로 1984년 당시의 면적은 29만 7,000m²로 축소되었다. 또 이상의 시설들 이외에도 어린이야구장·테니스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장충단 일대가 지녔던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손(汚損)되어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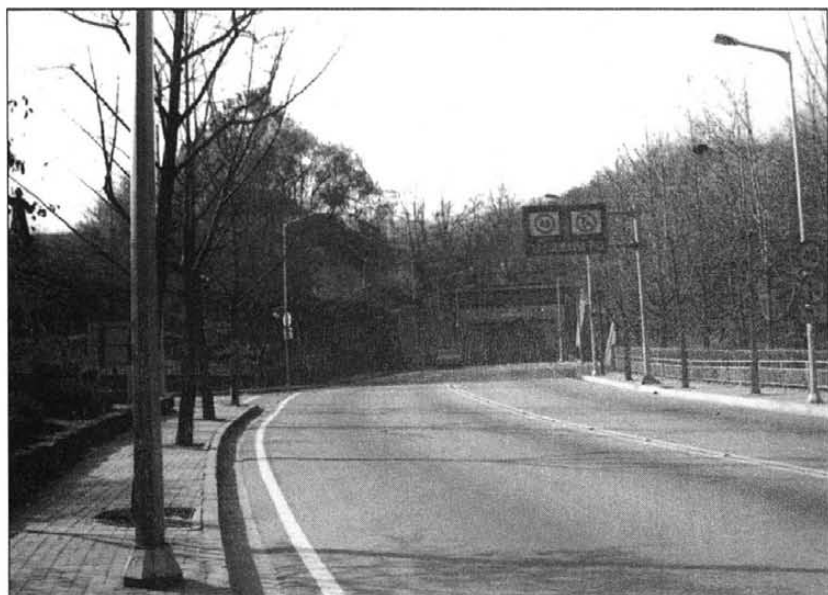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건설부는 첫째 장충단공원을 앞으로는 근린공원(近隣公園)으로 존속시킬 경우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에 흡수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은 원래 한 개의 산체(山體)를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해 온 관계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셋째 두 개의 공원을 합하여 하나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1984년 9월 22일자 건설부고시 제374호로 근린공원인 장충단공원을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하였다. 이리하여 남산공원의 면적은 297만1,000m²(약 90만평)가 된 것이다.

(3) 남산터널

강남(江南)의 개발로 남산이 교통장애가 되자 3개의 터널을 뚫어 소통을 원활케 하고 있다.

① 남산 1호터널

중구 필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길이 1,530m의 터널은 1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1970년에 준공하였으며 터널 단면은 건설 당시 터널너비 10.8m로서 순차선 너비 9.0m(3차선), 측대 90cm, 공동구 90cm로 구성되었으나 1975년 9월 1차 보수 실시 후 터널너비가 60cm 줄어든 10.2m로 되어 현재 2차선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 터널 안 설계속도는 60km/h로 설계되었으며 곡선부는 최소 평면곡선반경으로 되었고



남산 제1호터널 입구

반횡방향환기법(半橫方向換氣法)에 의하여 내부공기를 처리하고 있다.

강남지역과 강북 도심을 연결하는 주통로인 강남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통행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로부터 시내로 유출입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강남대로상의 타구간이 도로폭 22~35m(편도4차선)임에 비해 이 터널의 노폭은 10m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차선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시에는 터널의 일반통행을 실시하였다. 1987년에 터널의 안정 및 부식상태, 환기 및 오염상태, 배수 및 누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1990년에 쌍굴터널을 뚫어 체증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② 남산 2호터널

장충동 산 7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용산구 용산동을 거쳐 반포로로 이어지는 이 터널은 길이 1,620m, 폭이 9.6m의 터널로 1969년 5월 14일부터 1970년 12월 4일에 걸쳐 총공사비 1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시공되었다. 터널의 단면은 노건너비 0.5m, 높이 4.5m로 구성되었으며 수직측벽에 반단면원호아치를 연결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방수처리를 위한 라이닝의 두께는 500mm로 하였으며 포장의 횡단구배는 1.5%로 하였다. 1976년도에 1차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면에서부터 3.0m 높이까지의 수직측벽에 타일보수를 실시하고 조명 및 소화시설을 개선하였다.

③ 남산 3호터널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회현동을 연결하는 이 터널은 길이 1,280m, 폭 9.0m의 터널로 1976년 5월 14일에서 1978년 3월 31일에 걸쳐 총공

사비 9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다. 터널의 단면은 차선평 6.9m(2차선), 측대 1.4m, 노면폭 0.8m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수직측벽에 반단면원호아치를 연결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방수처리를 위한 라이니의 두께는 1·2차 각각 100mm와 600mm로 하였고 포장의 횡단구배는 1.5%로 하였다.

입출구부(出入口部)의 조명이나 소화시설도 노후한 상태이고 또 누수 현상과 벽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4. 남산공원의 현황과 남산 제모습찾기

(1) 남산공원의 현황

남산공원의 총 면적은 1991년 1월 1일 현재로 297만534㎡로 약 90만 평이며 그 중에는 국유지(國有地)가 238만2,808㎡(80.2%)이고 사유지(市有地)가 16만7,629㎡(5.6%)이며 사유지(私有地)가 42만97㎡(14.2%)를 차지하고 있다.

1984년말 현재로 남산공원의 총면적은 297만1,000㎡로 약 90만평이었으며 그 중에는 임야(林野)면적이 277만9,000㎡로서 93.6%를 차지하며 녹지대가 7만9,000㎡(2.6%)이고 도로가 4만2,000㎡(1.4%), 그리고 광장 및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 265m의 남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가 2.7km, 남북이 2.1km로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중구(中區)와 용산구(龍山區) 2구 11개동을 걸쳐 있으며 1968년 9월 10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557호로 공원관리 사무소(公園管理事務所)가 설치되어 있고 60여명의 직원이 관리를 담당

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임상(林相)을 보호하기 위해 철책을 쳐서 철책 내의 입산(入山)을 금지한 뒤로는 나무가 매우 우거졌고 산토끼·다람쥐·평등의 서식처가 되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임간도로(林間道路)가 뚫려 있어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어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시민의 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남산 제모습 찾기

서울시가 남산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 8월부터이다. 필동 2가와 예장동 각 일부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首都警備司令部)와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가 교외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훼손될 때로 훼손된 남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가능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시민의 위락공간(慰樂空間)이 되게 하는



남산전경

동시에 1,100만의 서울시민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푸른남산을 가꿈으로써, 즐거운 마음의 귀의처(歸依處)로서의 위용(偉容)을 되살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副市長)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국장급을 추진반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및 남산을 둘러싼 11개동(중구 7개동, 용산 4개동) 지역주민대표 100인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광범한 자문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 백인 시민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전문별로 자연보전·역사문화·경관관리(景觀管理)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남산골지역·한남동지역·남대문로축(南大門路軸)·장충동축·한남동축·용산동축 등 6개 지역의 대표 30명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 의견도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1991~92년에 걸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92년 11월에는 기본계획서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그 훼손의 실체가 모두 대형 건축물에 의한 훼손임으로 이를 단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것은 물리적(物理的)으로도 어렵고 시 재정 형편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시에서는 이를 20년정도의 장기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소나무 식재, 야의식물원 조성 등 현재 진행해 가고 있다.

VI. 남산(南山)과 민속(民俗)

VI. 남산(南山)과 민속(民俗)

1. 민간신앙(民間信仰)

(1) 국사당(國師堂 木覓神祠)

국사당은 지금은 종로구 무악동 산 3번지에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1925년 전까지 남산 팔각정 자리에 있었다. 이 당은 태조 이성계와 여러 호신신장(護身神將)을 모셨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명명했으며 또 태조 4년(1395) 12월에는 이조(吏曹)에 명하여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여 목멱신사(木覓神祠)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국사당이란 명칭은 태종때 3신인 천신(天神), 산신(山神), 수신(水神)과 태조 무학대사 그 이외에 여러 신장(神將)을 모시고 국사당이라 명명했다 한다.

이 당에는 동의 각심사(覺心寺), 서의 구과발, 남의 우수현(牛水峴) 등 세곳의 국무당(國巫堂) 대표자인 3대 만신(萬神)들이 모여서 받들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당이다.

1925년 남산에서 무악동으로 옮겨갈 때 건물을 해체해서 남산에 있을 때와 같이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과 같다고 한다. 현재 당의 구조를 보면 한옥으로 3칸의 맞배지붕이며 전면은 약 20여m이고 측면은 9m정도의 크기이다.



현재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 전경

신상(神像)의 배열을 보면 정면(왼쪽부터)에는 삼불제석·무학대사, 두 칸 건너 강씨부인·호구아씨·최영장군·별상님이 있으며, 좌측에는 나옹님·칠성님·용궁님·민중전이 있고, 우측에는 산신님·태조 이성계·단군님·신장님·곽곽님·창부씨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태조 이성계 신상은 두점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 우측의 이성계상은 검은색 수염이 길게 나 있으며, 흰색 바탕에 약간 붉은 색 무늬가 있는 곤룡포를 입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은 긴 턱수염을 쓰다듬고 있으며 왼쪽에 있는 다른 이성계상은 붉은 색 곤룡포에 황색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있으며 용두(龍頭)가 달린 팔거리 의자에 양팔을 팔 소매 안에 넣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국사당의 제사는 조선 고종(高宗) 때까지 매년 봄·가을 두 번 제사를 지내다가 폐지하자,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일제 때(1925)

일본인에 의해 이 사당이 남산에서 헐리게 되자 현판과 사당 일부를 인왕산 서쪽기슭 선바위(禪岩)아래로 옮겨지어 국사당의 명맥을 잇고 있다.

(2) 장충동 관성묘(獎忠洞 關聖廟)

장충동2가 186-40에 있는 이 묘는 대지 100평에 건물은 가로 250cm, 세로 300m이며, 입구의 문은 격자문(格子門)으로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으며, 담 안쪽으로 묘가 정동향에 위치해있고 옆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1960년대까지도 이 묘를 부군당(府君堂)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동네에서 별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묘라고 부른다.

이 묘는 임진·정유왜란때 명장(明將) 진인(陳寅) 등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하며, 일설에는 고종때 엄비(嚴妃)가 지었다고도 한다.

제일(祭日)은 음력 정월 초하루, 5월 13일(관운장탄신일), 6월 24일, 10월 19일 4번 지내며 또 매월 초하루에 간단하게 제사를 올린다. 제사 목적은 가정의 부유를 원하는 즉 개인치성이 짙다.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3) 남산 와룡묘(南山 臥龍廟)

예장동 5-6에 있는 이 묘는 3간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된 건물로, 왼쪽 처마에 연이어서 정4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다.

이 묘는 철종때인 1862년에 축한의 정승 제갈공명의 행적을 추모하는 유지들이 창건하였으나 1924년에 소실되자 다시 중건하고 와룡묘라 명명하였다.

제사 일자는 음력 6월 24일 와룡선생·관성제군 두분을 위해 치제하

며 평상시에도 신자들이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2. 민속놀이

(1) 씨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 단오(端午)조에 보면

젊은이들이 남산의 왜장(倭場·藝場洞)이나 북악산 신무문(神武門)뒤에 모여



씨름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자의 오른다리를 잡은 후 동시에 일어나며 상대자를 번쩍들어 메어친다. 그리하여 밀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내구(內局, 안걸이)·외구(外局, 발걸이)·윤기(輪起, 둘러메치기) 등 여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한 자가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을 도결국(都結局)이라 한다. 중국사람이 이를 본받아 그것을 고려기(高麗技)라 하기도 하고 또 요교(撓跤)라고도 한다.

또, 『경도잡지(京都雜志)』 5월 단오조에

서울의 소년들이 남산기슭에 모여 서로 씨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대하고 구부려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상대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번쩍 들어 메어친다. 여기에는 내구(內局, 안걸이)·외구(外局, 발걸이)·윤기(輪起, 둘러메치기)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고려기(高麗技) 또는 요교(撓跤)라 한다.

이상의 기록들을 보아도 남산 아래 예장의 푸른 잔디에서 5월의 태양 아래 청소년들의 씨름 경기가 성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사람들도 이를 본받아 고려희(高麗戲)라고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씨름의 여러 법식(法式)이 중국으로 전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2) 답청(踏青)

음력 3월 삼짇날(上巳日, 3월3일)이 되면 남산 언덕에 올라 화류(花柳)놀이(꽃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답청이라 하였다.

활짝 핀 진달래꽃을 따다가 참쌀가루에 반죽하여 쟁반처럼 둥근 떡



중구민 한가죽걷기대회

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지는데 이것을 화전(花煎, 꽃전)이라고 한다.

이날은 화전을 붙여먹으며 주위의 꽃들을 감상하고 하루를 즐긴다. 특히 서울에서 화류를 즐긴 곳은 필운대의 살구꽃, 성북동의 복사꽃, 동대문 밖의 버들구경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 화창한 봄날 벚들과의 야유놀이를 잊지 않기 위해 화전가라는 가사를 짓기도 하였다. 교은 정이오(鄭以吾)의 남산8영내에 답청이 들어있다.

(3) 연등구경(觀燈)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되면 집집마다 연등을 단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여 비용을 쓰는데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석탄일 연등 관경

하며 등은 여러종류가 있다. 즉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오행등·일월등·공등(毬燈)·배등(船燈)·종등(鍾燈)·북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항아리등·방울등·알등·봉등·학등·잉어등·거북등·자라등·수복등(壽福燈)·태평등(太平燈)·만세등(萬歲燈)·남산등(南山燈)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으며 등을 종이로 바르기도 하고 붉고 푸른 비단으로 바르기도 한다.

이날 저녁이 되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부터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또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면서 노는 사람도 있다. 이날은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불의 성을 만드는데 밤을 새우며 진행한다.

특히 장안 밖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

의 잠두봉(蛭頭峰)에 올라가 이 장관(壯觀)을 구경한다는 『동국세시기』의 기록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는 온 장안이 축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4) 탁족(濯足)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6월 삼복(三伏)이 되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개장이나 또 닭이나 죽순을 넣기도 하고, 밀로 국수를 만들어 청채(青菜)와 닭고기를 섞고 백마자탕(白麻子湯, 어저귀국)에 말아먹기도 하고 미역국에다 닭고기를 섞고 국수를 넣고 물을 약간쳐 익혀먹기도 하고, 호박과 돼지고기에다 흰 떡을 썰어넣어 볶기도 하고 또 굴비 대가리를 섞어 볶아먹기도 하며, 밀가루에다 호박을 썰어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부치기도 하는 등 이런 음식은 여름철 시절음식으로 참되고 조출한 별식으로 참외와 수박 등을 곁들이면서 남산과 북악산 계곡 등 청간(淸澗) 옥수(玉水)를 찾아 같은 또래들이 모여 맑은 개울물에 발도 담그고 갓끈도 빨고 하루를 즐겁게 놀았는데 이것을 탁족회(濯足會)라고 했다는데 요즈음 피서에 해당한다.

(5) 중양절(重陽節)의 등고(登高)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들기도 하고 국화주를 담그고 또 배와 유자와 석류와 갓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화채(花菜)를 만든 다음 이날이 되면 남산과 북악산 경치 좋은 곳에 모여 앉아 마시고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것은 등고(登高)의 옛 풍속을 답습한 것이라고 『동국세시기』에 기술되어 있다. 등고란 중국 후한(後漢) 때 여남(汝南)사람 환경(桓景)이 은사(隱士) 비장방(費長房)을 따

라 노니는데 비장방이 '9월 9일 여남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수유(茱萸)를 넣어 팔에다 메고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먹으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경이 그렇게 한 다음 집에 돌아와 보니 닭·개·양 등이 모두 한꺼번에 죽어 있었다. 비장방이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이 너 대신 죽은 것이다'하였다. 그 뒤 사람들이 이 날만 되면 산에 올라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수유를 넣은 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登高(登高)라 하였는데, 가을 단풍놀이이다.

(6) 활쏘기

남산에 활쏘는 석호정(石虎亭)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곳에서 활을 쏘았으나 갑오경장에 따라 옛 사풍(射風)이 위축되었다가 1899년에 사직동 황학정(黃鶴亭)이 설립되면서 다시 왕성하여졌으나 일제의



석호정에서 활 쏘는 모습

통치하에 활쏘기가 다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22년 조선궁도연구회(朝鮮弓道研究會)가 발족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1945년까지 서울에서는 40여곳의 활터가 있었는데 그 중 석호정도 유명하였다. 활터에는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녁 뒤에 토성을 설치하였다.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길을 연전(揀箭)길이라 하고 화살의 맞음과 떨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기를 고전기(告傳旗)라고 부른다. 활을 쏘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자세는 다음과 같다.

- ① 쏘는 사람의 기(技)가 옳고 사용하는 공구가 적합하면 반드시 관중하게 되어 있으며 부중(不中)일 때에는 반구제기(反求諸己)하여야 한다.
- ② 궁도에 연마된 사람이면 활을 사심없이 당겨서 심기(心氣)를 집중하며 활을 쏜다는 의식을 버리고 발사한다.
- ③ 궁술은 넓은 의미로 궁도에 속하지만 궁술 그 자체는 궁도의 대도(大道)에 입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덕(修德)에 철저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정진(正眞)함으로써 비로소 궁도를 터득할 수 있다. 활을 쏘는 동작은 일관된 연속동작으로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나 휴지(休止)는 없으며 이것들이 정(靜)과 동(動)의 균형에 따라 유연하게 종횡십자(縱橫十字)의 운동으로 누적되어 자연스럽게 발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활은 시대에 따라 형태의 변화와 제작기술에 있어 꾸준한 진보가 있었다. 그 종류를 보면, 용도에 따라 전시용(戰時用)·수렵

용·연악용(宴樂用)·습사용(習射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정량궁(正兩弓, 큰활)·예궁(禮弓, 본명은 大弓)·목궁(木弓)·철궁(鐵弓)·철태궁(鐵胎弓)·고(弓 동개활)·각궁(角弓 또는 弣弓·長弓) 등 일곱 종류가 있으나 현재 각궁(角弓, 長弓)만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정교하고 미려함이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고 유래 또한 요원하다.

3. 설화(說話)

설화란 보통 옛날 이야기로 통칭된다. 이 설화는 민속학개설(民俗學概說, The Hand Book of Folklore)을 처음 쓴 영국의 번(c.s.Bun)여사의 삼분법(三分法)에서 신화(神話)·전설(傳說)·민담(民譚)으로 분류하였다. 신화(myth)는 전승자(傳承者)가 진실되고 신성(神聖)하다고 인식하는 이야기로, 즉 신(神)에 관한 이야기든가 또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든가 또는 신성시(神聖視)되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진실성이 손상되지 않는다해도 신성성(神聖性)을 상실하면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따라서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神)중심으로 신적(神的)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숭고하고 종교적이어야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남산에는 신화는 없다.

전설(legend)은 진실성(眞實性)이 있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로서 그 증거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설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사람(話者)이나 듣는 사람(聽者) 또는 전승자(傳承者, transmitters)가 그 이야기의 사실(event)을 믿는다고 하지

만, 안 믿는 측도 있다. 이것을 분석하면 틀림없다는 확신자, 긴가민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자, 의심하는 자, 불신자(不信者),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자 등 5단계가 있으며, 이 5단계에 속하는 이야기하는 자(話者)와 듣는 자(聽者)가 대(代)물림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전설은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민담은(Folktale)은 간단히 말해서 신성(神聖)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진실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피울 때…’부터 민담은 사실이 아니고 화자(話者)가 꾸며낸 이야기임을 선언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민담이다. 조선시대에 나온 『고금소총(古今笑叢)』 · 『대동야승(大東野乘)』 · 『동야회집(東野彙集)』 · 『계서야담(溪書野談)』 등에서 수많은 민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역사와 설화의 중간적 서술체인 사화(史話)도 있다.

남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설화를 기존문헌에서 발췌,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남산은 서울의 안산(案山)

조선을 건국하고 처음 도읍터를 정할 때 태조 이성계는 과천 관악산(冠岳山)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그에게 선생이 있었다. ‘저 과천 관악산을 안산으로 대궐을 지으면 천년 도읍을 할 수 있으나 여러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산을 안산으로 삼으면 오백년간을 편히 지낼 수 있다.’ 해서 지배받기 보다는 편히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남산을 바라보고 궁궐을 지었으며 본래는 목멱산인데 도읍을 정할 때 남산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2) 국사당(國師堂)의 유래

함경도 영흥땅 어느 마을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았는데 슬하에 딸 하나가 있었다. 이태조가 아이때 그 집앞을 지나가자 노파는 태조에게 몰래 말하기를

“장차 임금이 될 것이니 몸을 조심하시고 시장하거나 무슨 의심나는 일 있거든 꼭 찾아오시오.”

하였다. 하루는 태조가 그 집 앞을 지나 가는데 비가 몹시 와서 그 집에서 자게 되었다. 노파가 웃으면서

“오늘은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잘 오셨소.”

하였다. 저녁이 되어 태조는 아랫목에 눕고 딸은 웃목에 누웠다.

밤이 깊자 할머니는 태조에게 앞으로 어찌어찌 할 것이며 임금이 되거든 도움을 한양에 정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그 딸이 말참견을 한다. 노파가

“방정맞은 년 왜 자지않고 이러는 것이여.”

하고 태조에게

“도련님 고년 뺨을 때리시오.”

한다. 말하던 것이 누설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여 뺨을 한 대 몹시 쳤더니 그 딸이 사지를 바르르 떨고 죽는다. 태조는 어이가 없어,

“내가 당신 딸을 죽였으니 나를 관에 고발하여 죄를 받게 하시오.”

하였다. 노파는 태연히

“이 일은 제가 잘못하여 죽은 것이고 저의 운명이요. 그러니 이 밤으로 나가 저 아이를 묻읍시다.”

한다. 태조는 그 아이의 시체를 지고 노파는 땅 팔 것을 메고 나가 뒷

산에 묻은 뒤에 태조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내가 도련님이 한 번 치면 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때리라고 한 것은 영특한 임금님의 큰 사업에 누가 끼칠까 한 것이요. 이 길로 가시어 대업을 이루시고 잊지나 마십시오. 나도 새벽이 되면 다른 데로 가겠소.”

하였다. 그 뒤 태조가 세상에 나와 현관(顯官)이 된 뒤에 그 할머니를 찾아 함경도 전역으로 수소문했으나 영영 찾을 수 없었다.

그 뒤 태조는 조선을 세우고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남산 중턱에 집을 짓고 그 모녀의 초상을 그려달고 ‘국사당’이라 칭호하고 봄·가을로 무당을 시켜 굿을 하며 그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3) 남산은 잠두산(?)

탐골공원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남산이 있는데 그 산을 잠두산(蠶頭山)이라고 한다. 그것은 누에가 뿜먹는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부인이 어린애 낳는 형상같다고도 한다. 한가운데가 툭 볼거져내려 있어 여자가 애 낳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가 애 낳는 형태의 문이 남소문(南小門)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면 서울 여자가 풍기가 문란해진다고하여 옛날에는 문을 닫아 놓았으며, 왜놈이 와서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이 없어져서 이 문자리가 있던 고개로 다닌다고 한다.

(4) 남대문이 승례문이 된 유래

남대문이 승례문이 된 것은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때 무학 대사란 지리학자를 데리고 경복궁을 지었는데 자주 불이 났다. 경복궁

에 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오행상 이 지구를 360도에 대해 24방위로 나뉘어 놓은 것을 나침반, 쇠철, 나전으로 분석해 봤을 때, 북방은 수(水)로서 물을 상징하고 중앙은 목(木)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남방(南方)은 화(火)로서 불을 상징하는데 남쪽 불을 막아야 경복궁이 불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숭례문이라 하였다. 숭(崇)자는 오행상 목(木)이며 예(禮)자는 오행상 화(火)에 속하니까 나무(崇)위에 불(禮)이 떨어지면 나무가 타버리게 된다. 또 현판도 글씨를 옆으로 쓰지않고 세워서 쓴 것도 나무에 불이 떨어져 화기(火氣)가 경복궁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불이 남대문에서 다 타버린다는 뜻으로 숭례문(崇禮門)이라 했고, 세워서 썼다고 한다.

(5) 필동(筆洞)의 유래

옛날에 필동에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 선비는 성실하고 행실도 착하고 어렸을 때에는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도 잘해서 마을 사람들 입에 칭찬이 오고갔고 그 선비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 마을에 큰 인물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비집은 너무 가난해서 붓을 살 돈마저 없어 나무를 깎거나 짐승의 털을 가지고 붓을 만들어 글씨를 썼다.

과거 시험 날짜가 되자, 그 선비는 정성껏 나무를 깎고 짐승의 털로 붓을 만들어 시험보러 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선비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위해 큰 잔치를 마련하여 그 선비를 대접하면서

“모두 너한테 기대를 건다. 너 뿐이다. 우리 마을을 살리려면 네가 장원급제를 해야한다.”

하고 마을 어른들은 그 선비에게 제각기 말하였다.

과거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만든 붓이 부러져 시험을 보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렸다.

이 선비는 동네 어른들의 부탁 등 실망이 너무 크고 또 고개를 들 수 없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다. 선비의 자살소식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마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고 재주있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붓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마을사람 몇몇이 붓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인근마을 선비들이 이 마을에 붓을 사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마을 이름이 필동이 되었다고 한다.

(6) 약수동 부어티 고개

왕십리에서 약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한다. 불을부자(附) 늘어자(於) 고개치(峙)자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옛날에 이 고개에 강도가 심해서 혼자는 넘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여럿이 함께 가라는 뜻에서 고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7) 버티고개 유래

버티고개는 약수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름이다. 도성(都城)의 주산(主山)인 부아악(負兒岳)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형국이므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서쪽에 모악(母岳)과 떡고개를 두어서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그 애를 달래서 머무르게 하고, 또 남쪽에는 벌아령(伐兒嶺)을 두어서 아이가 나가면 벌을 가하겠다고 하여 그 아이를 못나가도록 막았다는 것인데, 그 벌아령이 변하여 버티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

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예전 이 고개는 좁고 험한데다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도적이 들끓었다. 순라꾼들이 야경을 돌면서 ‘번도’라고 외치며 도둑을 쫓았는데, 이 말이 차츰 변하여 번티(番峙)라 하다가 버티, 버티라 하고 한자명으로 부어치(扶於峙)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고개에 도둑이 많았으므로 생김새가 험상궂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앓을 놈”이라는 농담이 생겨났다.

실제 버티고개에는 조선초기부터 도둑이 들끓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적혀있는 몇 가지 예를 보면 세종13년(1431) 4월에 버티고개에 있는 초막에 도적떼가 침입하여 승려 3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다. 조정에서는 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로 하여금 도성 4대문을 막고 수사케 하였다. 10여일만에 도적떼 6명을 체포하여 참형에 처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애꿎은 봉변을 당하였다. 예종 원년(1469)에는 버티고개 남소문에서 도적떼가 군사들을 죽이고 수문 선전관을 쫓아내어 도성 내외를 소란케 함으로서 그 뒤 남소문을 폐쇄하는 일까지 생기게 하였다. 또 성종 10년(1497)에는 버티고개 일대에 도적떼가 많은 것은 그 곳 일대에 소나무숲이 무성하여 도적들이 숨기 때문이라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소나무숲을 베게한 일도 있었다.

(8) 부엉바위

예장동 산5번지 남산 공명골(孔明谷)에는 부엉바위(휴암, 鵞岩)가 있다. 바위모습이 마치 부엉이처럼 생겼다 하여 부엉바위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간혹 범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 밑에는 물맛이 좋은 약수가 나오는데 예로부터 이 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조선후기 영조(英祖) 때 한은석(韓恩錫)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관직에 있다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을 보고 환멸을 느껴 벼슬을 그만 두고 초야에 묻혔다. 그러나 거느리는 식구는 많고 살림은 몹시 가난하여 생각하다 못해 죽기로 작정하고 어느날 밤 부엉바위 위에 올라갔다. 마침 이 바위 아랫쪽에 목을 매기에 알맞은 나뭇가지가 있어 목을 매기로 결심하고 나무로 오르는 순간 사람 살리라는 여인의 비명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 왔다. 어둠을 헤치고 그 여인을 찾던 중 삼십이 채 안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타나서 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좀 도와 달라고 하였다. 한은석이 그 여인에게 어디 사시는 누구냐고 물었다. 여인은 문안에 복숭아를 가지고 갔다가 날이 어두워 길을 잃고 말았는데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 급하게 소리를 외쳤는데 이제 살펴보니 알 것도 같다고 하고 혹 바쁘시지 않으면 저의 집이 요너머 과일밭이니 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여인을 따라 밤길을 더듬어 나갔을 때 여인의 집은 남산 너머 후암동 복숭아밭에 있었다. 그 집에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한은석은 차려온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날 밤 여인과 함께 잠을 잤다. 아침이 되어 한은석이 돌아가려 하자 여인은 수십냥의 돈까지 주었다. 몇 번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부터 한은석은 밤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달콤한 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날 밤도 한은석은 후암동의 여인의 집을 찾아 가려고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밤 그 계집 한테로 가면 죽고 마오.”

하면서 그 계집은 수천년 묵은 지네로서 사람의 진을 빼먹는다고 하고



와룡묘 옆에 있는 부엉바위

지금까지 그 계집한테 진을 빼앗겨 왔는데 오늘밤 담배를 피운다음 담배진이 있는 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으라고 하고 담배대 한개를 주었다. 한은석은 괴이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 담배대를 입에 물고 여인의 집으로 갔다. 여인은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한은석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땅에 뱉어 버렸다. 여인은 고맙다고 몇번이나 말하면서 저는 노인의 딸대로 지네라고 하고 그 노인은 천년묵은 지령이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해서 서방님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서방님은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여기 돈 만냥이 있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돈을 내어 놓았다. 한은석은 꿈만 같았다. 그날 밤 또 여인과 단꿈을 꾸었다. 이튿날 그 여인의 집을 찾아 갔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도 분명히 이 자리에 집이 있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지네의 변신인 그 여인이 사람이 되어 어디론가 가버렸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 뒤 한은석은 여인이 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도 번창했다고 한다.

(9) 회현동 은행나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서울로 쳐들어 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일본군의 소서행장(小西行長) 부대는 동대문으로해서 문 안으로 쳐들어 오고 가등청정(加藤清正)의 부대는 그 이튿날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 군사의 척후는 일본군의 동정을 지

금의 회현동 2가 36번지 집 뒷뜰에 있는 크나큰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정찰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입성하자, 그들은 이 은행나무를 베어 버리기 위해 도끼로 나무밑둥을 찍었다. 이상하게도 그 찍힌 곳에서 싹피런 핏물이 솟아 오르자 일본군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나무베는 것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10) 승례문의 현판

승례문(崇禮門)이라고 쓴 편액글자는 시골사람이 “거 참 잘도 썼더라.”라 감탄을 했다는 글씨는 과연 누가 쓴 것일까.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에 따르면 류진동(柳辰同)의 글씨라 하지만 참 주인공은 태종의 맏아들 풍류왕자인 양녕대군이라는 근거가 유력하다. 이 종액(從額)에 얹힌 설화를 소개해 본다.

임진왜란때 양녕대군이 쓴 액자가 없어지자 누군가 새로 현판을 써서 달았다. 그러나 다는 족족 떨어져서 사라졌다. 사람들이 괴이한 변고라고 의아해 하던 어느날 밤 남대문을 향해 서광이 번쩍거렸다. 불빛을 찾아가 보니 청과 배다리께 웅덩이 속에서 비치는 것이었다. 수상히 여겨 웅덩이를 뒤집어 보자 임란전에 달았던 원래의 현판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다시 남대문 제 위치에 달게 되었다고 한다.

(11) 양녕대군(讓寧大君)과 승례문 현판

양녕대군은 조선3대 왕인 태종대왕의 첫째 왕자로 글 잘하고, 글씨 잘 쓰는 왕자였다. 일찍이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태종대왕이 셋째왕자인 충녕대군(忠寧大君)한테 왕위를 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부왕(父王)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체하고 여

러 가지 괴이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세자책봉이 폐립(廢立)될 것 같이 되었다.

그 동생인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양녕대군이 그렇게 되니까 세자책봉이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부왕(父王)한테 잘뵈려고 몸가짐이며 말씨와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근신하고 글도 열심히 공부하였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효령을 발로 슬쩍 차면서,

“충녕을 모르느냐?”

하였다. 효령대군은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 차리고 절에 들어 늘 복을 쳤는데도 복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찢어지지 않고 질긴 것을 효령대군 복가죽이란 말이 생겼다.

양녕대군은 왕위에 뜻이 없어서 해괴한 행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종내는 세자책봉(冊封)도 폐립되고 말았다. 자유로운 몸이 되자 경향(京鄕) 각지를 두루 돌아 다니며 시흥(詩興)이 일어나면 시를 지었다. 어떤 절에 가서 지은 시에 이런 시가 있다.

산에 낀 안개는 아침밥을 짓고
 덩쿨에 걸린 달은 밤에 등잔불이 된다
 외로이 서 있는 바위 밑에서 혼자 자니
 오직 탑은 한 층만 남아 있네

山霞朝作飯 蘿月夜爲燈
 獨宿孤岩下 唯存塔一層

남대문에 걸려있는 승례문이라는 현판은 양녕대군이 쓴 것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이 현판이 떨어져 없어져서 다른 사람 글씨로 현판을

만들어 달았다. 그러나 다른 현판을 달았으나 계속 떨어졌다.

광해군 때 청파(靑坡) 배다리에 있는 웅덩이에 서기(瑞氣)가 비쳐서 그 웅덩이를 파는데 양녕대군이 친히 쓴 승례문의 현판이 나왔다. 이 현판을 달았더니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승례문의 현판은 그 현판이라고 한다.

(12) 윤희평의 조경

지금의 중구 쌍림동에 윤희평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타고나기를 수석이 연출해 내는 정경을 즐기는 성품이었다. 집안의 바위를 깎기도 하고 이리저리 쌓아서 산모양으로 하고 이끼를 자연스럽게 입힌다. 바위 사이사이에 진귀한 화초를 심고 도랑물을 끌어 들여서 못을 꾸민 다음 부용(芙蓉) 꽃을 심는다. 이렇게 애써 꾸며 놓았으니 그 숲과 연못 운치가 세속을 떠난 듯 보기 드문 근사한 조경이었다. 이 모양으로 그럴싸하게 꾸민 정원이어서 서울 장안의 사대부들이 찾아 오면 술을 대접하고 시도 읊으며 이곳 풍수에 젖어들곤 했다.

어느 날 성택선(成澤善)이란 친구가 놀러와서 대접을 받으며 한담을 나누던 중

“우리집에 괴상한 돌이 있는데 매우 크고 잘 생겨서 볼만 하이. 눈곱 만치도 쪼아 꾸미거나 간 것이 아니라서 천연 그대로인데 자네가 원한다면 서슴치 않고 줄터이니 언제고 달구지를 보내게나.”

이렇게 시원스럽게 말하고 돌아갔다. 윤선비는 매우 좋아하며 당장 이튿날 공용달구지를 빌리고 하인을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에 있는 성선비 집으로 그 돌을 실어 오도록 하였다. 하인 달구지가 당도하자 성선비는 남산 잠두봉(蠶頭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게 내집의 괴석일세. 재주껏 실어 가게나.”

한다. 하인은 어이없이 잠두봉을 치켜보다 돌아 갔다는 이야기이다.

자연 있는 그대로 남산을 아침 저녁 바라다 보며 살았던 문안사람들은 잠두봉이야말로 제집 뜰 안의 수석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윤희평처럼 인위적으로 애써서 조경을 해서 뽑내고 살던 것과는 생판 다른 자연관이 아니던가.

(13) 청학동 선인 이행

이행의 호는 용재(容齋) 또는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하였다.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성종의 폐비 윤씨의 복귀를 반대하다가 충주로 유배되었다. 중종이 들어서고 기묘사화로 조정암(趙靜庵)일파가 제거되자 재등용되어 부재학이 되고 이어서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라 대제학을 겸하였다.

그는 남산 기슭에 서옥(書屋)을 짓고 청학도인이라 하였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는데 의정부의 녹사(錄事, 아전)가 보고할 일로 청학동을 찾았다. 한 험수룩한 늙은이가 낡은 옷에 나막신을 신고 아이를 안고서 동구 밖에 나서기에 녹사가 말을 탄 채

“정승께서 집에 계신가?”

라고 묻자

“무슨 급한 일이기에, 내 여기 있네.”

라고 하자 그는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한 나라의 뜨르륵 하는 정승이기 이전에 수수한 청학도인으로 자처하며 운치를 따라 사는 글선비로 고고했던 그였다. 이런 수탈함은 보기 드문 일이어서 명나라 사신뿐 아니라 사도(史道)에 이르기까지 그를 대신으로 대하

기보다도 선인(仙人)으로 추앙하며 마냥 부러워한다. 10척 키에 수염이 텃수룩한 모난 용모하며 눈매가 해맑고 그 위에 그어진 눈썹은 그림 같아서 신선의 풍모를 지닌 문학취향이 그윽하던 분이였다.

청학동은 목맥산 기슭에 자리한 동네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승경지로 꼽혔던 곳이다. 명나라 사신 당고(唐皐)가 청학동을 시에서 찬양하고 있다.

조선 성안 청학동에 청학선인의 글방이 있다네
그 신선 저자거리에 나오기도 한다지만
때로는 학을 타고 저 하늘가에 노닌다네

이렇게 읊은 것으로 보아도 청학도인은 학을 타고 여유자적하게 신선 놀이를 한 모양이다.

(14) 회현동에서 잘 된 동래정씨

회현동 1가 14번지에 있는 정씨터는 동래정씨(東萊鄭氏)터이다.

중종때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이르기를

‘이 나무에 서각대(鼠角帶) 열 둘을 걸게 되리라’

하더니 드디어 그 집안에서 정승 12명이 배출되었다. 동래정씨를 서울에서 ‘회동정씨(會洞鄭氏)’라 별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15) 상가승무노인곡(喪歌僧舞老人哭)

옛날에 성종대왕(成宗大王)이 미복(微服)을 하고 서울 장안을 야간 순행(夜巡)하며 민정을 살폈다. 이날 남산골에 갔는데 어떤 오두막집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술상을 앞에 놓고 울고 있어 그 앞에 상제(喪制) 한 사람이 노래를 하고 여자 중(女僧)이 춤을 추고 있었다. 성종대왕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기를

“저 상제는 내 아들이요. 작년에 어미가 죽어서 상복을 입고 있소. 그리고 저 머리를 깎은 여자는 내 며느리요. 오늘은 내 환갑 날인데 집이 가난해서 환갑 잔치상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는 자기 머리를 깎아 팔아서 약간의 음식을 차려서 잔치상을 마련하였소. 아들은 이 애비를 즐겁게 하느라고 저렇게 노래를 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소. 아들 며느리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자연히 눈물이 나서 울고 있소.”

이렇게 노인이 말하는 말을 들은 성종대왕은 크게 감동하였다.

이런 사람을 구해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환궁(還宮)한 뒤에 갑자기 별과(別科)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科擧)의 글제를 「喪歌僧舞老人哭」으로 냈다. 즉 상주(喪主)는 노래하고 중(僧)은 춤추고 노인은 운다(哭)는 글제이다. 이런 글제목은 들어본 적도 없고 글에도 없는 제목이라서 과거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글을 써 바치지 못하였다. 오직 이 노인의 아들만은 글을 써서 바쳐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그 뒤로도 노부(老父)를 잘 봉양하게 됐다고 한다.

(16) ‘남자는 노래하고 여자는 춤추고 노인은 탄식하고’라는 문제를 낸 숙종대왕

옛날에 숙종대왕이 미복(微服)을 하고 야행(夜行)을 하는데 남산골에 갔다.

남산골에는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과거시험을 몇 번 봤는데 번번이 떨어졌다. 조반석죽(朝飯夕粥)도 불가능할 만큼 가난하였다. 마침 오늘이 그 선비 아버지의 회갑날인지 고희(古稀)인지 뜻있는 날이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음식을 해 드릴래도 아무런 계책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그 선비부인은 자기 머리를 깎아 팔고 그 머리채 팔은 돈으로 곡식을 한 되박 사고 찬거리를 조금 준비해서 조출한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남을 청할 수 없는 처지여서 밤늦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두 내외가 옆에 앉아 아버님께 음식 드시기를 권하고 공손히 절을 했으나 노인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때 며느리는 꼬깔을 접어서 머리에 쓰고 남편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아버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이다. 이때 노인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자기도 무능해서 재산이 없고 아들마저 무능해서 재산을 못가지고해서 며느리의 머리를 깎게 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먹자니 목이 메어 못 먹는 처지였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드시게 하느라고 아들은 만수(萬壽)를 비는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밖에서 남몰래 지켜본 숙종대왕은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밤이 늦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였다. 이때 주인이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맞이하였다. 숙종대왕은 그 방에 들어와서 앉으면서

“내가 본의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노친내는 울고있는데 어찌된 일지요?”

하고 물었다. 그 노인은 자초지종으로 숙종대왕에게 지금까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숙종대왕은

“참으로 가혹하고 효심이 지극하구려. 그 효심을 받아들이셔야지요. 노인이 거절하시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나그네도 배가 고프니 박주 한 잔 주시오.”

하고 같이 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나그네도 갈 길이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면서 그 선비에게 하는 말이

“과거에 몇 번 떨어졌다 하니 다시 한 번 응시해 보시오. 곧 과거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그 일이 있는지 며칠 뒤에 과거시험이 있었다. 그 젊은 선비가 과거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문제는 “한 여인은 춤을 추고 한 남자는 노래부르고 노인은 앉아서 울고”라는 시험제목을 내걸었다. 오직 며칠전 자기네 집에 있었던 일과 비슷해서 자기 심정에 관한 것을 글로 지어서 제출하였다. 얼마 뒤 숙종대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장원을 시켰다. 뒤에 효행(孝行)에 모범이 되는 관리가 되었으며 훌륭하게 되었다고 한다.

(17) 회현동의 흥가와 서울에 와서 제일 잘 된 동래정씨

서울 6백년동안 남산 밑 회현동에 와서 제일 잘 된 사람이 동래정씨라고 한다. 그래서 동래정씨를 회동정씨(會洞鄭氏)라 한다고 한다.

시골에서 책을 많이 읽은 정유길이란 사람이 서울에 왔으나 살만한 마땅한 집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남산 밑에 빈집이 한채 있긴 하나 밤이면 귀신이 나타나 야단법석을 떠는 흉가(凶家)라고 한다. 정유길 내외는 하는 수 없이 흉가도 아랑곳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부잣집의 샅바느질을 하고 정유길도 밤새 근무하는 즉 번을 서는 벼슬을 하나 얻어서 착실히 근무하였다.

어느 날 밤에 이불을 깔아 놓고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 오길래 남편인 줄 알았다. 곧 들어오자 자기의 무릎을 베고 드러 누었다. 얼굴을 보니 남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화로에 쫓아 놓았던 인두로 드러누웠던 사람의 이마를 지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새벽 너다섯시쯤 되어서야 남편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자 부인은 지난 밤에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 이상하구나. 건넌방으로 가봐야지.”

하고 건넌방으로 가서 이구석 저구석 살폈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정 반자 한 곳이 쳐져 있었다. 정유길은 쳐져있는 반자를 뜯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검은 칠을 한 관(棺)하나가 있었다. 관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내려 놓고 관 뚜껑을 뜯었다. 두 내외는 깜짝 놀랐다. 그 안에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금과 은이 가득하였다. 정유길은 마음을 가다듬고 난 다음

“이것이 조화를 부렸구나!”

하고 그 많은 금과 은을 나라에 바쳤다. 물론 나라에서는 정유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

* * *

여름 어느날 정유길이 무슨 일이 있어 남대문에 갔다가 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추녀끝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어떤 옷 잘 입은 한 선비가 옆에 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는 갓 위에 쓰는 갈모가 없었다. 그래서 정유길이

“선비는 갈모가 없소?”

“네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내게 갈모가 하나 더 있으니 이것을 쓰고 가시오.”

하고 정유길은 갈모 하나를 그 선비에게 주고

“내 집은 저기 열 몇번째 집 다음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집이요. 뒤에 보내 주시오.”

그 뒤에 아무리 기다렸으나 갈모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정유길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됐다. 그때 이조정랑(吏曹正郎)이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인사하러 왔다. 정유길이 자세히 바라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 젊은 사람 역시 이조판서를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다. 한참 만에야 갈모를 빌려간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정유길은

“나 모르겠소?”

그 사람은 갈모를 빌려준 어른으로 안다고 하였다. 그제서야 정유길은

“젊은이처럼 신용없는 사람이 인사권을 담당하는 귀한 요직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야.”

하고 나가보라고 하였다. 그 젊은 선비는 신용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8) 남산골 샌님의 나막신, 역적바라기

남산골 하면 가난한 샌님이 떠오른다. 남산골 샌님은 그냥 얼어 죽어도 결불은 안짜고 또 쫓신을 삼을 수 없으니까 굶이 달아 없어진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고 한다.

남산골 샌님 역적바라듯 한다는 말은 조선시대 서로 세력다툼을 하다가 한 패가 역적으로 몰리면 그 다음에 조정에서 데려다 쓸 사람은 남산골 샌님 밖에 없기 때문에 남산골 역적 바라듯 한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남산골 샌님이라는 시쳇말은 가난에 오기만 남은 선비를 비양할 때에 쓰였다고 하나 “남산골 샌님이 원 하나 내지는 못해도, 뭘 권리는 있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것은 남산 기슭에 청렴과 결백으로 살았던 선비들에게 했던 홀대가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남산골 샌님의 별명을 “남산골 딸각발이”라고도 했다 한다. 그 때에 남산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벼슬자리가 없고 가난하여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청렴과 결백 그리고 절조(節操)를 생명으로 한 선비들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선생의 「딸각발이」라는 수필이 유명하다.

(19) 동악 이안눌의 가연

어느 해 대보름날 밤 다리밟기에 나섰던 새 신랑이 초례를 치른지 며칠 안돼서 엉뚱한 새색시와 뜻하지 않게 기연을 맺게된 야담이 있다.

며칠 전 장가들은 소년 이안눌(李安訥)은 새신랑으로서 새옷을 입고 대보름날 밤에 수표교를 밟은 뒤 술이 곧드레가 되어 길가에 정신을

있고 쓰러졌다. 때마침 오늘 초례를 치른 신부집에서의 새신랑도 다리 밟기에 나갔다가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인들을 시켜 신랑을 찾아 돌아 다녔는데 소년 이안눌이 길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새신랑이라고 생각한 하인들은 고이 업어다가 신방에 눕혔다. 며칠 전 장가든 이안눌은 혼미한채 엉뚱한 새신부와 그날 밤 한 이부자리에서 잤다.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깨어난 이안눌은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때 신부는

“저의 집안은 대대로 역관(譯官)을 지내온 중인(中人) 집안이온데 무남독녀라서 차마 죽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더럽혀진 몸이나마 장차 섬길수만 있게하여 주신다면 소실이 되어 늙은 부모를 봉양하다가 명대로 살았으면 하온데...”

하면서 애처롭게 하소연하였다. 이안눌은

“집안의 범절이 엄한 데다가 미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초립동인 몸으로 어찌 축첩할 수 있겠소.”

하자, 신부는

“이모님이나 고모님이 계시면 거기에 저를 의탁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했다. 이안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가에는 물론 비밀로 했으며 또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 뒤 이안눌이 급제하자 신부를 집안으로 들이고 신부의 노부에게 그때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신부의 노부는 기가 막혀하면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군!”

하면서 흐뭇해 하였다. 드디어 이안눌은 벼슬이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이르고 홍문관·예문관 양관의 대제학(大提學)을 지내면서 계관시인(桂

冠詩人)으로 명망이 높았다.

(20) 남소문을 열면 서울여자가 바람난다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데 그 중 북문은 사용하지 않고 세 문만을 사용하였는데 불편해서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등을 만들었다. 남소문 자리는 지금 타워호텔과 남산 사이 조금 폭 꺼져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한남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고개가 남소문 자리로서 그 남소문을 사용하면 서울여자가 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 문을 못쓰게 하였다. 서울 장안 여자들이 풍기가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요즈음 여자들이 풍기가 문란하다면 남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21) 강감찬(姜邯贊) 장군과 남산 호랑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이 한양판관(漢陽判官)이 되어 한양에 부임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집마다 큰 그물을 처마 끝에서부터 땅에 닿도록 늘어 놓았다.

강판관이 보기에 너무 이상해서 아전을 불러 그 곡절을 물었다.

아전이 대답하기를

“한양에는 호랑이가 매우 많아서 저녁때만 되면 출입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밤이 되면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인가를 엄습함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친 그물입니다.”

하였다. 또 한양 백성들은 호환으로 말미암아 활동도 마음놓고 할 수 없다는 등 실정을 자세하게 아뢰었다.

강판관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걸음 잘 걷는 사령(使令)

한 사람을 시켜 남산잠두(南山蠶頭)로 보내서 거기에 앉아 있는 늙은 중 한사람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얼마 뒤 중이 당도하자 강판관은 대뜸 그 늙은 중을 보고

“너도 이 나라 산중에 살면서 이나라의 백성을 해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니 사흘 이내로 이곳을 떠나 멀리 가거라. 만약 내 명을 거역할 때에는 멸족을 시키리라.”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늙은 중은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잘 복종할 것을 대답하고 물러 나왔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천지가 진동하는 듯 요란한 소리가 연 사흘밤 동안 계속 들렸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 늙은 중은 호신(虎神)이며 요란한 소리는 호신이 부하 호랑이때를 거느리고 산속에서 떠나가는 소리였다.

강감찬의 호령이 있는 뒤부터는 한양에 호환이 없었다고 한다.

(22) 왜국사신이 들던 광희문

서울의 성곽에는 사대문 사소문등 도성 팔문이 나 있다.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 그 중간지점이 아니라 동대문 쪽으로 훨씬 치우쳐서 속칭 남소문(南小門)인 광희문(光熙門)이 자리하고 있다.

남소문 즉 광희문이 있었고 시구문(水口門)도 있어 문이 두 개나 있었는가 명칭도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지금의 중구 광희동에 남아있는 광희문을 남소문이라 부르지 않고 구태여 시구문(水口門)이라 불러 내려온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서울을 왕래하는 외국 사신들은 사대문, 사소문 중 마음 내키는 대로 들락거리지 못하게 제한을 받았다. 그들은 왕조에서 지정해 준 문으로

만 출입토록 되어 있었다. 조선의 정문인 남대문 즉 숭례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신은 중국 뿐이고 왜국사신은 어김없이 두무개(豆毛浦, 옥수동) 나루로 한강을 건너고 나서 시구문 곧 광희문을 통해서만 도성안으로 들 수 있었다. 또한 여진(女眞)사신은 동소문 즉 혜화문(惠化門)만을 이용하여 성곽을 통해 들어 올 수 있게 통제하였던 것이다.

서울 토박이들이 ‘수’를 ‘시’로 향시 발음을 해서 수구문을 ‘시구문’이라 불러서 이렇게 굳어진 이름인가 한다. 그러나 이 문 밖에는 늘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시궁창 같다해서 ‘시구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속언도 전하여 지고 있다. 어찌 되었건 왜국사신은 왜 팔문중에 유독 시구문으로만 출입이 허용되었을까.

(23) 남산골 샌님과 허생전

남산골 샌님에 얽힌 일화(逸話)는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의 「허생전(許生傳)」을 통하여 한층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다.

남산 기슭 먹절골(墨寺洞) 은행나무 고목아래, 겨우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찌리문 안 두어칸 초가집에 사는 허생원은 아내가 남의 삶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살면서도 글 읽기만 좋아 하였다.

어느 날 가난에 지친 아내가 훌쩍이면서 당신은 한 평생 과거볼 생각은 않고 글만 읽어 무엇하느냐고 다그치자 허생은 아직 글 뜻에 훤히 못해서 그런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물건만드는 장인(匠人)노릇도 못하느냐고 되물자 애초에 배우지 못하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자 다시 아내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되받아 묻자 밀천 삼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대꾸하자 아내는 그만 짜증이 북받쳐,

“당신은 밤낮으로 글 읽었다는 꼴이 겨우 어찌할 수 없다는 것만 깨우쳤구려. 장인 노릇도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 보시구려.”

하고 양탈을 부리자 허생은

“아! 애석하구나. 십년공부를 채우려 마음 먹었는데 이제 겨우 7년째 인데...”

라고 한탄하면서 책상을 뒤엎고 집을 뛰쳐나와 한양 장안에 제일가는 부자인 변(卞)가를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가난한 내가 좀 시험해 볼 일이 있으니 만금(萬金)만 빌려 달라고 청하자 변부자는 대뜸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건네 주자 허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때 옆에 있던 변부자의 자제와 손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허리에 두른 실띠는 술이 몽땅 뿔뿔하고 가죽신을 보니 뒷굽이 제껴졌고 망가진 갓에, 때가 번지르한 도포하며 콧물을 흘쩍이는 그 같은 사람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선뜻 만금이나 건네주느냐’며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자 변부자는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식견이 있었다.

“남에게 무엇을 바랄 때에는 흔히 일을 결행할 마음을 과장해 가며 믿음성과 의기를 나타내려 하는 법인데 그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비겁하거나 말을 주워 섬기거나 하지 않았다 비릇 옷과 신이 헤어지고 떨어졌어도 하는 말이 간결하고 눈매가 똑바르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으니 그는 물질을 기대하기 앞서 벌써 스스로 만족을 간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그가 시험해 보려는 방법도 그럴듯한 것일 것 같아서 나도 또한 그를 시험해 보고싶은 마음에 돈을 내어 준 것이다. 주지 않는다면 모르되 만금을 주기로 한 바에야 이름 따위는 몰어

서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허생은 만금을 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안성(安城)장터에 눌러 살면서 제사에 쓰이는 대추·밤·감·배·감자·석류·굴·유자 등을 모두 시세보다 곱절씩 주고 사서 저장해 두었다. 그러나 온 나라 안이 잔치나 제사를 차리지 못하게 되어 과일 장수들이 허생에게 애걸복걸 하며 판 값의 10배를 주고 다시 사다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 허생은 겨우 만금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여 보았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다음 시험으로 칼·호미·배·명주·숨 따위를 사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그 물건으로 갓, 망건을 만드는 원료인 말총을 깡그리 사들이고는 망건 값이 10배로 오른 후에 되팔아서 다시 큰 돈을 모았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그 돈으로 도처에 있는 도적 천명을 모아 여자와 짝을 짓게 하고는 4천명이 일년 동안 먹을 식량을 배에 가득 싣고 무인도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하여 3년 동안 먹을 식량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일본 구주(九州)지방에 내다파니 때마침 그 곳에 큰 흉년이 들어 식량난에 허덕이던 터라 순식간에 백만냥을 거둬 들일 수 있었다. 그는 도적떼들이 섬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주고는 남은 돈을 십만냥만 챙겼다. 그리고는 나머지 거금을 몽땅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는 빌린 돈을 갚으려 변부자를 찾아갔다. 허생이

“나를 알아 보겠소?”

라고 하자 변부자는 그를 보고

“얼굴빛이 전보다 좋지 못하니 돈을 몽땅 잃은게로구려”

라고 하였다. 허생은 껄껄 웃으면서

“재물(財物) 때문에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당신네들이나 하는 일이지. 만냥이 아무리 큰 돈이라 한들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한단 말이오. 내가 한 때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글 읽기를 매듭짓지 못했으니 그대의 만냥을 부끄러워 할 뿐이오.”

하고 변부자 앞에 10만냥을 내놓았다. 변부자가 깜짝 놀라 만냥에다 십분의 일의 이자만 받겠다고 하자 허생은

“나를 장사치로 대접하려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 박차고 나갔다. 변부자가 뒤를 밟아 따라가 보니 먹절골 오막살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변부자는 근처 샘가에서 어느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저 오막살이가 허생원의 집인데 몹시 가난하여도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 어느날 아침에 홀쩍 집을 나간 후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그 집 아내가 홀로 남아서 허생원이 집 떠나던 날을 제삿날로 삼아 제사를 지낸다.”

는 말을 듣고 비로서 그가 허생인 것을 알았다. 변부자는 이튿날 적지 않은 은화를 털어가지고 가서 내놓자 허생은

“내가 일찍이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백만냥을 버리고 10만냥을 챙겼겠는가. 이 돈은 받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는 그대를 믿고 밥술이나 먹겠으니 자주와서 나를 돌보아 주시오.”

라고 하며 끝내 사양하였다.

그 뒤로 의식(衣食)이 떨어졌으리라 짐작 되는 대로 변부자가 손수 날라다 주었으며 그때마다 허생원은 기뻐하며 받다가도 혹시 물량이 많다싶으면

“그대가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끼쳐 주려고 하는가?”

하면서 언짢아 하였다.

몇해가 지나는 동안 변부자와 허생은 서로 정이 두터워져 나라일에 관한 것까지 말을 나누게 되었다. 어느날 변부자에게 허생의 인물됨을 들은 어영대장(御營大將) 이완(李浣)이 어명(御命)으로 북벌(北伐)계획을 계획하며 고심하다가 변부자를 데리고 허생을 찾아 나라 다스릴 좋은 묘책을 물었다. 허생은

“지금 조정에서 당론(黨論)에 따라 사람을 쓰니 모든 일이 당파심으로 엇갈리고 따라서 나라의 정책도 일체 펴 나가기 어려운 지경인데 그대가 임금께 아뢰어 당론을 깨고 인재를 등용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완이 묵묵히 있다가 어려운 일이니 다음가는 좋은 정책을 말해 달라고 청하였다. 허생은

“지금 군포(軍布)를 마구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가난이 극심하니 앞으로 공정한 호포법(戶布法)을 실행케하여 비록 정승판서 자제일지라도 그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완이 그것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허생은

“굳이 그렇다면 지금 나라안이 온통 예법이라는 것에 얽매어 있는데 이제부터 과감히 상투를 자르고 되놈의 옷을 입고서 고관의 자제들을 청나라 과거시험에 응하게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까지 나아가서 장사를 하게하여 나라의 실력과 부를 쌓아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완이 이것도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허생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처음으로 세가지를 말 했는데도 단 한가지도 할 수 없다하니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자처하면서 겨우 이 꼴이란 말인가.”

하고 꾸짖고 칼을 들어 찌르려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크게 놀라 뛰어나왔다. 이완이 이튿날 다시 찾아 갔을 때 허생은 어디론가 떠나 버리고 없었다.

소설 「허생전」이 실제 인물의 전기(傳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독서를 즐기고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이루어 내는 뛰어난 재주와 또 의협심과 달관까지 겸하고 있어 조선시대 남산골 샌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4) 진고개(泥峴)

충무로 2가 중국 대사관 뒷편에서 세종호텔 뒷길에 이르는 고개를 진고개, 한자로 이현(泥峴)이라 하였다.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형성된 이 고개는 그리 높지 않는 고개였지만 흙이 몹시 질어서 비만 왔다 하면 사람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진고개라 불리었다.

일찍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 불렀으며 이 지역에는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글공부를 하며 지냈다. “남산골 딸각발이”라는 말이 있었다. 남산골에 살았던 샌님들이 가난하여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또 ‘남산골 샌님’이라는 말도, 가난하지만 오기만 남은 선비를 비아냥 댈 때 쓰였다고 한다. 샌님이란 생원님의 준말로, 남산골에는 불우한 양반이나 과거에 낙방한 생원님, 즉 샌님들이 많이 살았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광무 10년(1906)에 진고개를 깊이 8척(2.4m)가량 파내어 낮추고 길을 닦았으며 이 때 높이 5척(1.5m)의 방수형태의 하수관을 묻어 일대의 하

수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25) 진고개의 기인(奇人) 정수동(鄭壽銅)

말술에 해학과 풍자에 능했고 시문에 뛰어났던 기인 정수동(1808~1858)은 진고개에서 50평생을 살았다. 본관은 동래정씨로 본명은 지윤(芝潤)이고 호는 하원(夏園)이었으나 그 스스로 지어 부른 수동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수동이 어려서는 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했으나 그의 타고난 재주를 아끼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권유로 온갖 서적을 두루 섭렵한 뒤로 뜻을 흰히 깨쳤다고 한다. 시중 겸손한 몸가짐으로 당시 세도명문가의 지체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청지기, 장사치, 종들과도 친구처럼 상종하면서 남긴 일화가 수도 없이 많다.

어느 날 영의정 김홍근(金興根)의 집을 들어 서는데 계집종이 호들갑을 떨며

“아이고 제 애늬이 엽전을 삼켰으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고 당황해 하자 수동은

“남의 돈 7만냥을 먹고도 꼬덕 없는데 제 돈 한 닢 삼킨 것이 탈은 무슨 탈이겠느냐.”

하고 말했는데 사랑방에서 이 말을 들은 김대감은 뇌물로 받았던 7만냥을 대뜸 돌려 주었다고 한다.

* * *

정수동이 술을 좋아해서 남산골 술을 으레 외상으로 마시곤 하였다.

하루는 단골 주모가 외상값이 밀렸다면 술을 주지 않았다. 이때 돼지가 우리에서 나와 바깥 마당 명석에 널어 놓은 술밥을 먹어대자 주모가 뛰어나와 뒷마루에 시름없이 앉아 있는 정수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

“아 그래 술밥을 다 먹도록 보고만 있단 말이오?”

하고 불 멘 소리로 나무라자

“난 또 돼지는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 * *

부인이 산고(産苦)에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고 불수산(佛手散)을 지으려고 약방을 찾아 나섰다가 도중에 금강산 구경 간다는 친구를 만나 그 길로 따라 가서 3년만에 돌아와 보니 그때 난 아이가 온갖 말을 다 지껄일 만큼 자랐더라.

* * *

어느날 북촌(北村) 모대감집에서 주인과 한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의젓이 앉아 있는데 뒤늦게 주인 양반이 일어나더니 망건(網巾)이 없어졌다면 조바심을 하며 하인배를 불러,

“망건이 없어졌으니 어이된 일이나?”

며 불호령을 내렸다. 하인은 서둘러 여기저기 뒤져도 좀체로 눈에 띄지 않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더욱 화가 치민 주인이

“그러면 밤중에 도둑놈이라도 왔다갔단 말이나?”

하고 다그치는데 하인이 당황하여 죄송해하면서

“대감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고는 아랫목에 처놓은 병풍을 들추더니

“여기 망건이 있습니다.”

하며 다해진 망건을 들어올려 주인대감께 드리니

“아 이놈아 내망건이 이런 망건이었더라 말이나?”

하고는 다시 한 번 하인을 꾸짖는 것이었다. 이때 정수동이 앞으로 나서며

“대감 이 망건은 제 것이 올시다.”

하고 이제까지 제가 쓰고 있던 망건을 풀어서 내밀었다.

“이 사람 보게. 진작 그렇다고 할 일이지. 조참(朝參)에 늦을까봐 조바심하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토록 시치미를 떼었던 말인가”

노기어린 대감의 나무람에 정수동은 천연덕스럽게

“제 망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법석을 떨며 찾아 주겠습니까요?”

* * *

하루는 복춘 어느 대갓집에서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 한 병을 얻어 들고 눈 내리는 한밤중에 진고개 집으로 돌아 가다가 막 광교다리를 건너려는데 맞은 편에서

“게 섰거라, 통금시간에 나 다니는게 누구냐?”

하며, 순라꾼이 달려 오는 것이었다. 정수동이 잼싼 동작으로 다리 한 가운데 눈 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 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서서

“이 금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아들놈이다.”

하고 버티니 순라꾼이 선뜻 내키지 않아

“냉큼 이리로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정수동은

“자네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아들놈이 되게 그려”

하고 능청을 떨었다. 이렇게 나오라느니 들어오라느니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수동이

“여보게 자네나 나나 고달픈 인생이긴 마찬가지인데, 서로 실랑이하며 기운을 빼서 무엇하겠는가? 굳이 금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 금 밖으로 다가 앉게나, 눈 내리는 이 밤에 술이나 한 잔 나눠 마시세 그려”

하고 병째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건네 주니 순라꾼도 병을 받아 한 모금 들이키고는, 그 술이 감칠맛 나는 명주인지라 그제야 마음을 터 놓고 권커니 자커니 하는 사이에 어느덧 통금 해제를 알리는 파루(罷漏)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는 가도 되겠구먼 그려”

하고 정수동이 빙긋이 웃으며 발을 떼어놓자 순라꾼도 꾸벅꾸벅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배웅했다 한다.

VII. 남산 기슭에 살았던 역대 선현(先賢)

Ⅶ. 남산 기슭에 살았던 역대 선현(先賢)

조선시대 이래로 남산은 서울의 심장부였으며, 서울을 상징하는 듯 시민생활의 중심지였다. 궁궐이 있는 북악산 아래 고관대작(高官大爵)의 권문세가들이 주로 살았는데 비해 남산 아래에는 양반자손이기는 하나 벼슬하지 못한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살았다. 남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개울물, 청학동 골짜기 같은 그윽한 경관은 이들 청빈(淸貧)한 선비들의 처사적(處士的) 생활을 하는 데는 즐거운 곳이었다. 물론 권문세족도 거주하기도 하였지만 벼슬에 물러난 선비들이 만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기기도 하였다.

특히 동래정씨·청주한씨·풍양조씨 등의 고관(高官)·학자 등이 세거(世居)하기도 하였다.

남산 기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였던 인물을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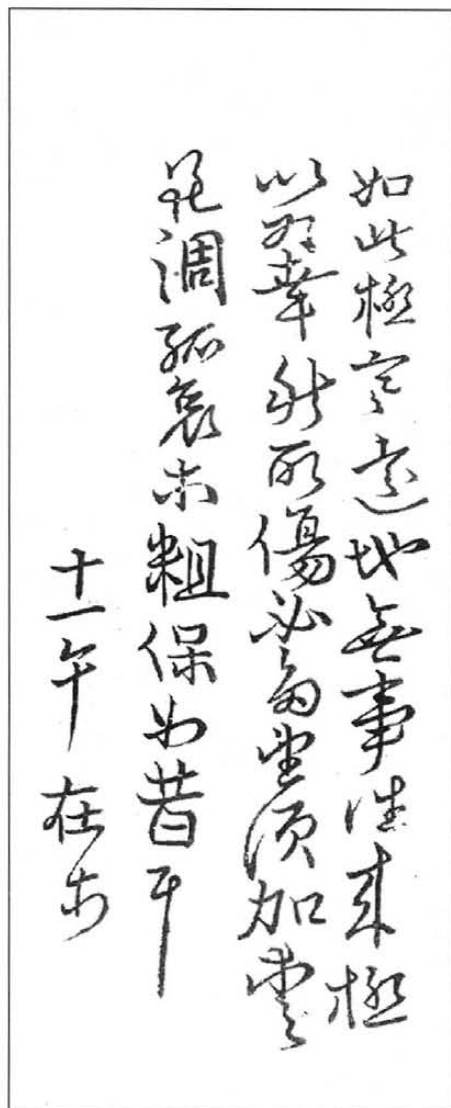
1. 남재(南在)

1351(충정왕3)~1419(세종1)

남재는 정승이기에 앞서 조선초기의 현인(賢人)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운다음 포상을 피하여 숨어살다가 태조에게 처소가

알려져 재(在)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개국공신 1등으로 중추원(中樞院) 학사(學士)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의성군(宜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남재는 초명은 겸(謙), 자는 경지(敬之),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검교시중(檢校侍中) 을번(乙蕃)의 아들이며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인이다. 일찍이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뒤 좌부대언(左副代言)을 지내고 아우 은(閔)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다. 그 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거쳐 1396년(태조5)에는 도병마사(都兵馬使)로서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였으며 1398년(태조7) 제1차 왕자의 난에 아우 은이 살해됨과 함께 잠시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다시 풀려나와 1400년(태종 즉위년)에는 세자사부(世子師傅)가 되었다. 뒤에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의정부 찬성사(議政府 贊成事)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이



귀재 남재의 글씨

르러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6년(태종16)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만년(晩年)에는 남산 북쪽 기슭에 귀정(龜亭)을 짓고 살았으며 집 근처에 바위가 있어 그 모양이 거북을 닮았으므로 귀암(龜巖, 일명 槽巖)이라 하였는데 이를 따서 아호(雅號)를 귀정이라 하였다.

경제에 밝고 문장이 뛰어 났으며 산수(算數)에도 능하여 당시 남산(南算)이라 불렸다.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며 저서로 『귀정유고(龜亭遺稿)』가 있다.

2. 조말생(趙末生)

1370(공민왕19)~1447(세종29)

조선전기의 문신인 조말생의 집은 회현동 2가에 있었는데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터를 본 명당으로 소문나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터가 낙양명원(洛陽名園)이라 하였다. 남산(南山)의 정간(正幹)이 직저낙동(直抵駱洞)한 형국(形國)이어서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伏龜形) 길지(吉地)라고 하였는데 이 거북이의 동쪽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바 있는 윤기동(尹耆東)의 집이 있고 서쪽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조말생의 집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거북이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공북헌(拱北軒)이 있는데 뒤에 박제헌(朴齊憲)이 살게 된 집이 되었다.

조말생은 자는 근초(謹初), 호는 화산(華山), 사곡(社谷), 본관은 양주(楊州), 서운관정(書雲觀正) 의(諡)의 아들이며 조용(趙庸)의 문인이다. 요물고부사(料物庫副使)로 1401년(태종1)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

하고 이어 감찰(監察)·정언(正言)·헌납(獻納)을 역임한 다음 1403년(태종3)에는 등극사(登極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다음 1407년(태종7)에는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고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이 되었다. 이듬해 장령(掌令)을 거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지신사(知申事) 등을 역임한 다음 1418년(태종18)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가 이해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승진되고 이어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하였고 이 해 세종이 즉위하자 주문사(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33년(세종15)에는 함길도 도관찰사 겸 함흥부윤(咸吉道都觀察使兼咸興府尹)으로 부임하여 우디거(兀狄哈)가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웠다. 1435년(세종17)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고 1437년(세종19)에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겸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경상·전라·충청 등 3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로서 축성(築城)을 감독하였으며 1439년(세종21)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 갔으며 1446년(세종28)에는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가 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3. 한명회(韓明澮)

1415(태종15)~1487(성종18)

조선 전기의 문신(文臣)이며 정치가로서 널리 알려진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의 집은 남산기슭 예장동 2번지에 있었다. 이곳 비서관(秘書監) 동쪽은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정한 암석(岩石)의 집터로 곧

한명회의 집이기도 하였다. 이집 서쪽 언덕에는 석간천(石間泉)이 있었으며 물맛이 좋고 또 세조(世祖)가 마셨기 때문에 어정(御井)이라 하였으며, 그 위에는 소조당(素凋堂)의 유지(遺址)가 있었는데 뒤에 후조당(後凋堂)으로 변하고 고종(高宗)때에는 녹천정(鹿川亭)으로 바뀌었다.

이 후조당을 중심으로한 일대는 한명회의 후손 및 종인(宗人)들이 살면서 이곳 남산기슭 경치 좋은 곳에 자주 모여 난정수계회(蘭亭修稷會)를 하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난정이문동(蘭亭里門洞) 또는 난정동(蘭亭洞)으로 부르다가 난동(蘭洞)으로 약칭되었다.

한명회의 자는 자준(子濬)이며 호는 압구정(鴨鷗亭) 또는 사우당(四友堂)이라 하였으며 본관은 청주(淸州)로 상질(尙質)의 손자이며 증영의정(贈領議政) 기(起)의 아들이며 예종(睿宗)의 비(妃)인 장순왕후(章順王后)와 성종(成宗)의 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아버지이다.

1452년(문종2) 음보(蔭補)로 경덕궁직(敬德宮直)이 되고 친구인 교리(校理) 권람(權攄)의 주선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가담하여 무사(武士) 홍달손(洪達孫) 등 30여명을 추천, 그의 심복을 삼게 하였다. 1453년(단종1) 계유정난(癸酉靖亂)에 수양대군을 도와 군기녹사(軍器錄事)가 되고 정난공신(靖亂功臣) 1등으로 사복시 소윤(司僕寺 少尹)이 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1455년 세조(世祖)가 즉위하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승진했으며 이해 가을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으로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이듬해(1456)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死六臣)의 단종(端宗)복위운동을 좌절 시키는데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의 주살(誅殺)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승진되었다. 1457년(세조3)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라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1459년(세

조5) 황해·평안·함길·강원 4도의 체찰사(體察使)를 지낸 후에 1461년에는 상당부원군에 진봉(進封)되었고, 이듬해 우의정에 이어 1463년에 좌의정을 거쳐 1466년(세조12)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병으로 한 때 사임했다가 다음해 신숙주(申叔舟) 등과 앞서 편찬에 착수했던 「신제대전」(新制大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1467년(세조13)에 이시애(李施愛)가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숙주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다는 소문이 돌아 피체, 신문을 당했으나 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1468년에 세조가 죽자 세조의 유교(遺敎)에 따라 원상(院相)으로서 서정(庶政)을 결재하였다. 이 해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翼戴功臣) 1등에 올랐고 1469년(예종1)에 영의정에 복직 되었으며 이 해 예종이 죽고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병조판서를 겸임하였다. 1471년(성종2)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이 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서 최항(崔恒)·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世祖實錄)』을 완성하고 1484년(성종15) 70세로 궤장(几杖)을 하사 받았다.

세조의 충신으로 왕을 보필하여 조선초기 문화의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 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했으며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윤비(尹妃) 폐사(廢死)에 관련했다하여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가 뒤에 신원(伸冤)되었다. 시호는 충성(忠成)이다.

4. 권남(權寧)

1416(태종16)~1465(세조11)

조선전기 문신으로 예장동 2번지에 살았다. 이 곳은 무학대사가 터를

잡은 곳이라 하며 그 서쪽 아래에는 석천(石泉)이 있는데 세조(世祖)가 권람의 집에 행차하였다가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어정(御井)이라 하였다하며 그 위에는 소조당(素調堂) 옛 터가 있는데 뒤에 후조당(後調堂)이라 하였다. 철종(哲宗)때 명신(名臣)인 오서(梧墅) 박영원(朴永元)이 개울물 흐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4계절의 풍경을 관상하기도 하였으나 고종(高宗) 때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이 체결되어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이토오(伊藤博文)가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를 짓고 「녹천정」(綠泉亭)이라 하였다. 그 뒤 이곳은 국군연합참모본부(國軍聯合參謀本部)가 자리잡기도 하였다.

권람의 자는 정경(正卿)이며 호는 소한당(所閑堂), 본관은 안동으로 찬성사(贊成事) 근(近)의 손자이며 찬성(贊成) 제(蹏)의 아들이다. 1450년(문종즉위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고 감찰(監察)을 거쳐 이듬해 교리(敎理)로서 『역대병요(歷代兵要)』를 함께 편찬하던 수양대군과 뜻이 통하여 그의 참모가 된 뒤 양정(楊汀) 등 무장을 포섭하였다. 1453년(단종1)에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한, 즉 계유정란때 앞장서서 정란공신(靖亂功臣) 1등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에 특진되었으며 1455년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발탁되고 이어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고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졌다.

1458년(세조4)에는 수찬관(修撰官)으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하고 우찬성(右贊成)에 승진, 1459년 좌찬성·우의정을 거쳐 1462년(세조8)에는 좌의정(左議政)에 올라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활을 잘 쏘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횡포가 심하고 많은 축재를 하여 여러번 탄핵을 받았다. 세조묘(世祖廟)에 배향(配享)되었으

며, 시호는 익평(翼平)이며 저서로 『소한당집(所閑堂集)』이 있다.

5. 정여창(鄭汝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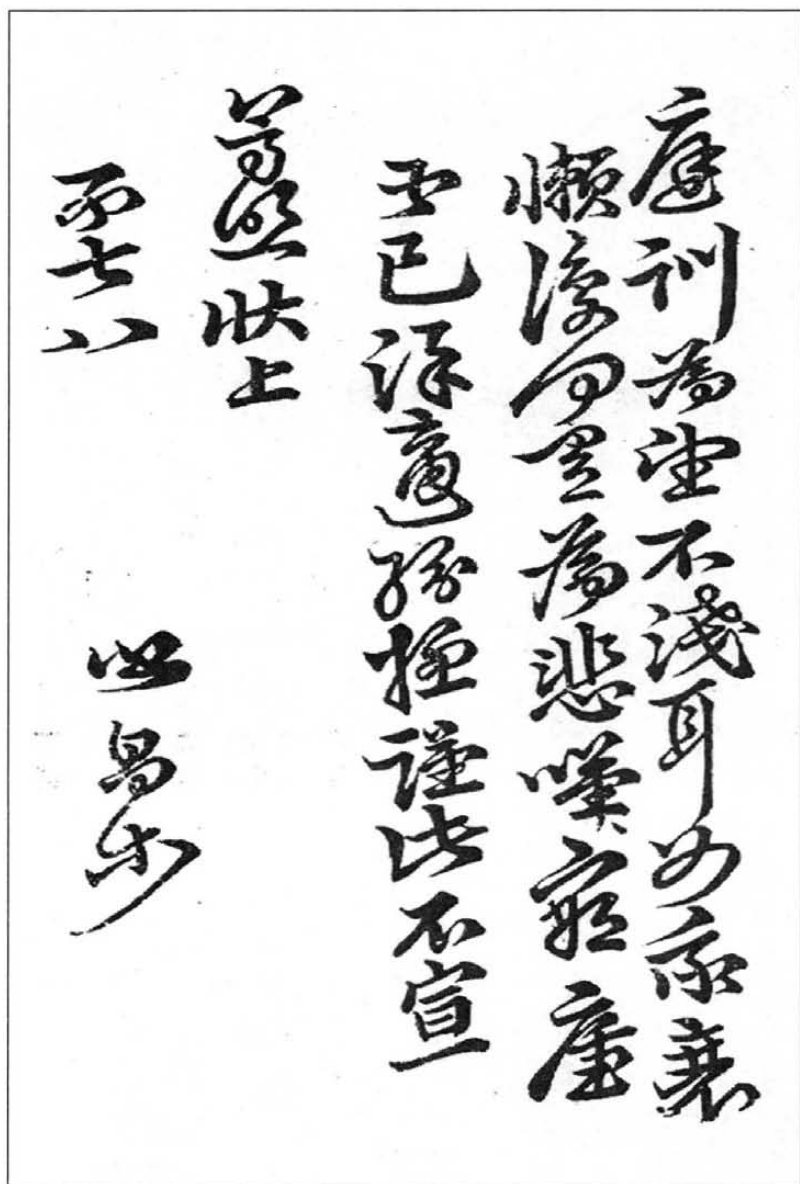
1450(세종32)~1504(연산군10)

조선시대 학자이며 문신으로 회현동에서 살았다.

자는 백옥(伯鬲)이며 호는 일두(一蠹),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함길도 병마우후(威吉道 兵馬虞候) 육을(六乙)의 아들이며 함양(咸陽) 출신이다.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 되고, 한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3년 동안 5경(五經)과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였다.

1483년(성종14)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성균관 유생(成均館 儒生)이 되었으며 1490년(성종21)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소격서 참봉(昭格署 參奉)이 되었다. 이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검열(檢閱)을 거쳐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 說書), 안음 현감(安陰縣監)을 지냈다.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종성(鍾城)에 유배, 죽은 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로서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역행실천(力行實踐)을 위한 독서를 주로 하였다. 『용학주소(庸學註疏)』 · 『주객문답설』(主客問答說) · 『진수잡저(進修雜著)』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때 부인이 모두 불에 태워버려 지금은 정구(鄭述)가 엮은 「문헌공실기」(文獻公實記) 속에 그 유집(遺集)이 전할 뿐이다. 중종(中宗) 때 우의정(右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광해군 때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시호는 문헌(文獻)이고 저서로 『일두유집(一蠹遺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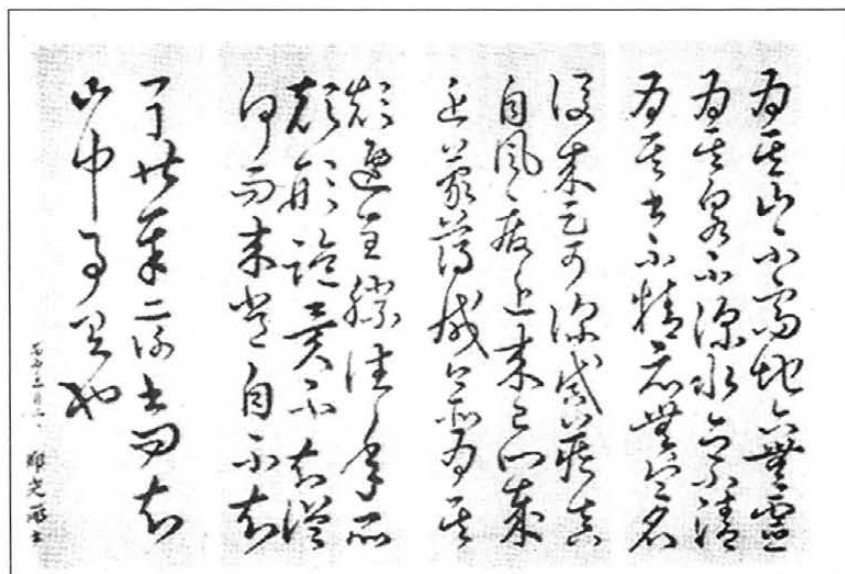


일두 정여창의 글씨

6. 정광필(鄭光弼)

1462(세조8)~1538(중종33)

조선시대 문신으로 회현동 즉 세칭 회동정씨(會洞鄭氏)를 이루었는데 현재 회현동 1가 14번지는 속칭 정씨(鄭氏)터라고도 부르며, 회현동이란 이름도 이들에게서 유래하였으며 유교를 상징하는 은행나무(鴨脚樹)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12개의 서대(犀帶-1품 벼슬의 관리가 허리에 두르는 띠)를 신인(神人)이 와서 이 나무에 걸어두고 간 뒤로 정씨들이 이 터에서 발복하여 정광필·정태화(鄭太和) 등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하며 그 뒤에도 세세손손(世世孫孫)이 이 회현동에 살았다.



수천 정광필의 글씨

정광필은 자는 사훈(士勛)이며 호는 수천(守天), 본관은 동래(東萊)로 좌참찬(左參贊) 난종(蘭宗)의 아들이다. 1492년(성종2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고 이어 부제학(副提學)·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때 왕에게 극간(極諫)하다가 아산(牙山)으로 귀양갔으며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부제학(副提學)에 복직된 뒤 이조참판·예조판서(禮曹判書)·대사헌(大司憲)을 거쳐 1510년(중종5)에는 우참찬(右參贊)으로 전라도 도순찰사(全羅道都巡察使)가 되어 삼포왜란(三浦倭亂)을 수습한 뒤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516년(중종11)에는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1519년(중종14)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었다. 1527년(중종22)에는 다시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나 실권은 좌의정 심정(沈貞)에게 있었고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면직되었다. 1537년(중종32)에는 총호사(摠護使)로서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陵-禧陵)을 불길한 땅에 들게했다는 김안로(金安老)의 무고로 김해(金海)에 귀양 갔다가 이 해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 나왔다. 이 때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에 의해 영의정으로 추천되었으나, 과거 영의정으로서 조광조를 구하지 못하고, 심정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위에 희릉(禧陵)의 땅이 나쁜 줄 알면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이유로 중종이 거절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로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가 있다.

7. 이행(李荇)

1478(성종9)~1534(중종29)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으로 남산기슭 예장동의 한 마을이었던 청학동(靑鶴洞)에 서당을 짓고 때로는 남산을 산책하면서 남산의 아름다운 풍광(風光)을 시문(詩文)으로 표현하면서 여생을 여기서 마쳤다.

청학동 풍류도인(風流道人)이던 이행의 자는 택지(擇之)이며, 호는 용재(容齋)·청학도인(靑鶴道人)·어택어수(漁澤漁叟)이며, 본관은 덕수(德水), 사간(司諫) 의무(宜茂)의 아들이다.

1495년(연산군1)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다음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으며 이어 검열(檢閱)·전적(典籍)을 역임하고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응교(應敎)로서 폐비(廢妃) 윤씨(尹氏)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忠州)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또 박은(朴堧)의 일에 연좌되어 다시 매맞고 귀양처로 돌아갔다. 이해 9월에 다시 응교 때의 일로 소급해서 잡혀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12월에 사형에서 감형되어 함안(咸安)으로 귀양가서 종이 되었다. 다음해(1505) 8월에 또 익명서(匿名書) 까닭으로 옥에 갇혀 고문 당했고 다음해(1506) 1월에 거제도(巨濟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506년(중종1)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교리(校理)로 등용되어, 이해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듬해에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14년(중종9)에 사성(司成)이 되어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했으며 이듬해에는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신진사류(新進士類)인 박상(朴祥)·김정(金淨) 등이 연산군의 비(妃) 신씨(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1517년(중종12)에 대사헌

(大司憲)에 올랐으나 왕의 신임을 받은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의 중용(重用)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좌천되었다가 곧 사임하였다. 이 때 모든 신진사류들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물러나서 면천(沔川), 창택(滄澤)에 가서 살면서 스스로 어수(漁叟)라 호를 지었다.

1519년(중종14)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자 부제학(副提學)에 승진되고 이어 공조참판(工曹參判)·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1527년(중종22)에는 우의정에 올라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하였다.

이 때에 남산기슭 청학동에 서당을 짓고 명나라 사신 당고(唐皐) 등이 시를 지어 보냈는데 스스로 호를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하였다. 공은 키가 10척이요 얼굴이 모나고 수염이 많았으며 길 좌우에 소나무와 전나무·복숭아나무·버드나무를 심고 공무(公務)에서 퇴근하면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거닐기를 즐겨 마치 야인과 같았다.

1529년(중종24)에 여지승람(輿地勝覽) 수찬당상(修撰堂上)이 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찬진(撰進)하였다. 이듬해 좌의정(左議政)에 올라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의 전횡(專橫)을 논박하다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로 전직되었다가 이어 함종(咸從)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으니 향년이 57세였다. 일찍이 신진사류들과 틈이 생겼을 때 공은 심언광(沈彦光)과 함께 힘써 김안로를 불러 들였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귀양처에서 죽은 것이다.

공은 문장뿐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으며 명나라 사신 당고는 시단(詩壇)의 노장(老將)이라 찬양하였다.

뒤에 신원(伸冤)되어 중종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고 시호는 처음에 문정(文貞)이었다가 문헌(文獻)으로 개시(改諡)되었으며 저서로 『용재집(容齋集)』이 있다.

8. 박은(朴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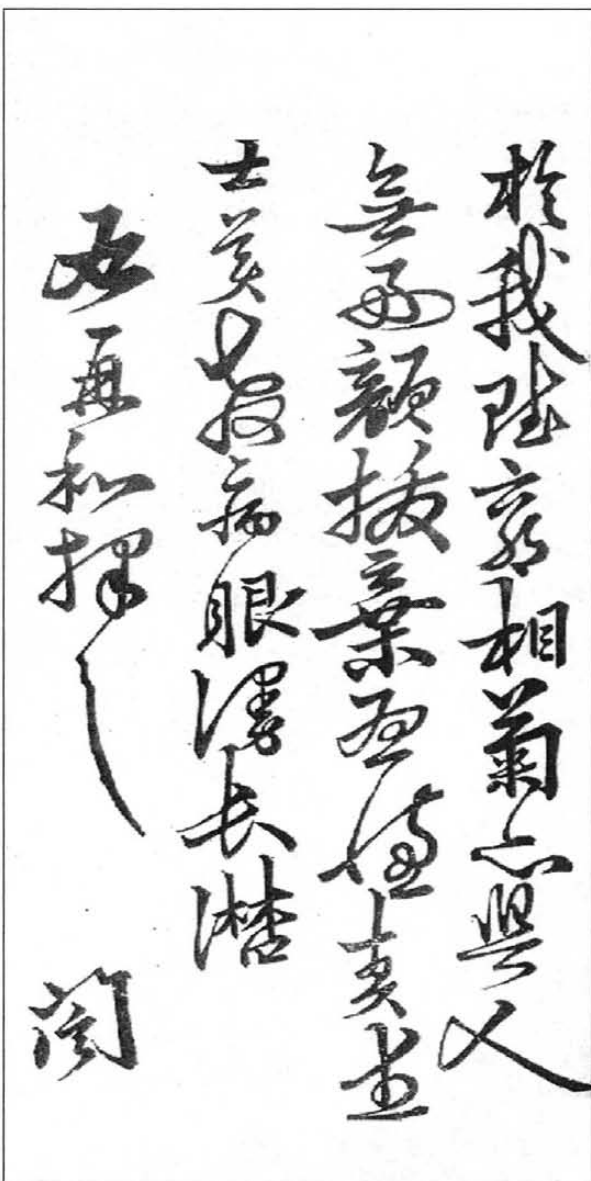
1479(성종10)~1504(연산군10)

조선중기의 학자이며 시인이다. 회현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으며 청학동의 이행(李荇)과 더불어 시와 풍류를 즐겼다.

박은은 자는 중열(仲悅)이고 호는 읍취헌(挹翠軒)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한성부 판관(漢城府 判官) 담손(聃孫)의 아들이다.

15세의 어린 나이로 문장에 능하여 대제학(大提學) 신용개(申用溉)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었다. 1495년(연산군1)에 진사(進士)가 되고, 이듬해 18세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승문원(承文院)에 발탁되었다가 홍문관의 정자(正字)·수찬(修撰)을 역임하고 5년 동안 경연관(經筵官)으로 있었다.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말을 서슴치 않자 왕이 그를 꺼리고 재상(宰相)들도 또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홍문관의 관원들이 서쪽 변방에 성을 쌓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고 논하여 권신(權臣)의 뜻을 거슬린 끝에 신문(訊問)을 당하였다. 이 때에 박은은 부모를 뵈려고 지방에 갔다가 조정에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곧 그날로 신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술하여 소(疏)와 차자(劄子)를 날마다 서너번씩 올렸다. 이때의 글발은 모두 격렬하였다. 10일이 지나도 그의 소가 그치지 않자 같은 반열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에 박은은 분연히 말하기를

“재화(災禍)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있리오, 신하로서 할 일은 충성이니 나의 도리를 다하다가 재화를 당한다



임취헌 박은 글씨

해도 두렵지 않다.”

하며 더욱 힘써 간하였다. 연산군도 마침내 그의 소를 들어 주었으므로 곧은 명성이 조정에 떨치었으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류자광(柳子光)이 간사한 사람임을 글로써 왕에게 아뢰고 또 성준(成俊)과 이극균(李克均)이 류자광에게 아첨하는 사실도 글로 올리자 성준 등이 크게 노하여 조정에 나아가 그를 신문하기를 청하고 다른 일로써 모함하여 옥에 갇히고 관직도 파면되었다. 이로부터 세속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산수(山水)사이를 방랑하며 글과 술로서

스스로를 자락(自樂)하였다. 술이 취하면 문득 붓대를 잡아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자 사람들이

“참으로 천재이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작품이 오래도록 없었다.” 하며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1504년(연산군10)에 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었으나 갑자사화(甲子士禍)로 동래(東萊)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사형 당하였다. 이때 나이 겨우 27세였다. 죽음에 이르러 하늘을 쳐다보고 세 번 크게 웃었다. 1506년(중종원년)에 신원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읍취헌은 정신과 골격이 맑고 눈과 눈썹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하며 조선5백년의 으뜸가는 한시인(漢詩人)으로 일컫기도 한다. 저서로 『읍취헌유고(挹翠軒遺稿)』가 있다.

9. 상진(尙震)

1493(성종24)~1564(명종19)

공은 남산기슭 남창동(南倉洞)에 살았다. 얼마 전까지도 상동(尙洞)이란 지명이 전하고 있었는데 한성부 판윤을 지낸 상진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상진의 자는 기부(起夫)이며 호는 송현(松峴) 또는 범허재(泛虛齋)이며 당호는 향일당(嚮日堂)이요, 본관은 목천(木川)으로 찰방(察訪) 보(甫)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의기가 강하고 작은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으며 활을 즐겨 쏘았다. 같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고는 글 읽기에 분발하여

仲玉兄 捷案
此行一登楓岳東臨大海北自叢石到生竹
西昨又乘艇歷探北壁龜島山海之觀可謂爛
熳虛其中而驚採外勞於回而甚拙不可缺
笑也他行文字有子後雖甚拙不可缺
光常而書在亂葉台族精寫仰呈耳
餘不宣
己
暮春念八
弟 起夫

송헌 상진의 글씨

다섯 달만에 글 뜻을
깨닫고 10개월 후에는
글 이치에 막힘이 없었
다.

1519년(중종14)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
(丙科)로 급제하여 사관
(史官)으로 뽑혔으며 교
열(校閱) 벼슬에 있을 때
고향에 내려 갔다가 아버
지가 소 두 마리로 밭에
쟁기질하는 것을 보고
“어느 쪽 소가 더 낫습니
까?”고 물었던 일이 있었
다.

이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
을 않더니 비밀히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 실인
즉 나이 어린놈이 낫더
라.”하고 말하자 공은
“진정 아버지께서는 명예
같은 것을 탐내지 않으시
는 은군자(隱君子)십니

다.”하고 사과드리고 그 뒤로는 가르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항시 남에게 꺼리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1526년(중종21)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으며 1528년(중종23)에는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이 된 뒤에 장령(掌令)·문학(文學)·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거쳐 집의(執義)·응교(應敎)를 지내고 1533년(중종28)에는 사간(司諫)·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올랐다. 1535년(중종30)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1537년(중종32)에는 형조참판을 거쳐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찰사·대사헌에 이어 1541년(중종36)에는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이 되었다.

그 뒤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의 판서를 지내고 1543년(중종38)에는 공조판서·우찬성(右贊成)·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중종이 돌아가시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했고 1545년(인종1)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이듬해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다시 우찬성(右贊成)에 보직되었다가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고 1551년(명종6)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며 1558년(명종13)에는 영의정(領議政)에 올랐으며 1563년(명종18)에는 치사(致仕)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전임된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궤장(几杖)을 하사 받았다.

인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15년간 대신으로 왕을 보좌하는 동안 조야(朝野)의 신망이 두터웠고 명정승으로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시호는 성안(成安)이다.

현재 남대문로 3가와 태평로 2가 북창동·남창동에 걸쳐있던 마을로, 영조(英祖)께서 거동하실 때 하배들이 “상정승골이요.”하고 외자 영조는 덩 안에서 몸을 굽혀 경의를 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상정승동이 언제부터 상동(尙洞)으로 약칭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새로나백화점 자리에 ‘상동교회’(尙洞教會)라는 이름이 보인다.

10. 이준경(李浚慶)

1499(연산군5)~1572(선조5)

동고(東皐) 이준경은 남산기슭 묵사동(墨寺洞)의 찬샘골(巔新井洞)에서 살았다.

이준경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남당(南堂)·양와(養窩)·홍련거사(紅蓮居士)라 하였으며 본관은 광주(廣州)로 부수찬(副修撰) 수정(守貞)의 아들이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화를 입은 조부와 부친에 연좌(緣坐)하여 형 윤경(潤慶)과 함께 괴산(槐山)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에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온 뒤 신승연(申承演)·황효헌(黃孝獻)에게 수학하였다.

1522년(중종17)에 생원(生員)이 되고 1531년(중종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다음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갔다가 사관(史官)을 거쳐 이듬해에는 홍문관의 정자(正字)가 되었다. 1533년(중종28)에는 저작(著作)·박사(博士)를 지내고 부수찬(副修撰)에 승진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때 조광조 등 피죄인의 무죄를 논하다가 김안로(金安老) 등의 미움을 사서 파직되어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 뒤 1537년(중종32)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된 뒤 다시 기용되었다. 이어 응교

無得遨遊樂應成日
涉趣東阜

동고 이준경의 글씨

(應敎)·보덕(輔德)·승지(承旨) 등을 거쳐 직제학(直提學)·부제학(副提學)이 되었으며 1543년(중종 38)에는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여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에 오르고 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 이듬해 중종이 돌아가시자 고부부사(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乙巳士禍) 때에는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를 면하였다. 1548년(명종 3)에는 병조판서·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을 거쳐 1550년(명종 5)에는 대사헌이 되었다. 앞서 병조판서때 이기(李芑)가 뇌물을 받고 구관자(求官者)의 이름을 적어 보내어 등용을 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던 일로 그 일당인 이무강(李無疆)의 탄핵으로 윤임(尹任)일파로 몰려 보은(報恩)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기가 파직되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었고 1553년(명종 8)에 함경도에 야인(野人, 여진족)들이 침입하자

함경도 순변사(咸鏡道 巡邊使)가 되어 그들을 불러서 타일렀다. 또 1555년에는 호남지방에 왜구가 침입하자 전라도 도순찰사(道巡察使)로 출정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돌아와 우찬성(右贊成) 겸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1558년(명종13)에는 우의정이 되고 1560년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며 1565년(명종20)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1567년에 명종이 돌아가시자 선조(宣祖)를 맞아 왕으로 세우고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을 보좌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노수신(盧守愼)을 비롯한 을사사화때의 피해자들을 유배에서 방환시키고 그 벼슬을 회복시켰다. 이해 70세가 되어 치사(致仕, 사퇴)를 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궤장(几杖)을 하사 받았다. 1571년(선조4)에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가 이듬해 타계하였다. 죽음에 앞서 차자(箴子,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글)를 올려,

- ①학문에 게을리하지 말 것
- ②위의(威儀)를 가지고 신하를 접견할 것
- ③군자와 소인을 분별하여 쓸 것
- ④붕당(朋堂)이 있을 것이니 이를 타파할 것

등을 진언하였다.

형 윤경(潤慶)과 더불어 강직하고 청렴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봉(二鳳)이라 불렀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사화(士禍)로 화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선비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신진사류와 기성사림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려다가 신진사류의 정적(政敵)이 되어 기대승(奇大升) 등의 공격을 받았다. 선조 35년(1602)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선조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고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저서로 『동고유고(東臯遺稿)』와 『조선풍속(朝鮮風俗)』이 있다.

11. 심강(沈綱)

1514(중종9)~1567(명종22)

남산기슭 회현동에 살았다. 옛날 회현방(會賢坊) 분호조(分戶曹) 앞이라 하였다. 임진왜란때 선조가 의주(義州)의 피난처에서 돌아와 보니 궁궐과 종묘가 모두 불타버리고 없었으므로 부득이 심강의 집에 신주(神主)를 임시로 봉안(奉安)하였다고 한다.

심강은 자는 백유(伯柔)며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영의정 연원(連源)의 아들이며 명종(明宗)의 장인이며 의겸(義謙)의 아버지이다.

1543년(중종38)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다음 음보(蔭補)로 활인서(活人署) 별좌(別坐)가 되었으며 1546년(명종1)에는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1548년(명종3)에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이 되고 1558년(명종13)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으며 상(喪)이 끝난 뒤 영돈령부사와 도총관을 겸하였다. 1563년(명종18)에는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화를 당하려던 박순(朴淳)등을 아들 의겸과 함께 구하고 권신(權臣) 이양(李樛)을 제거하게하여 청송을 받았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12. 이항복(李恒福)

1556(명종11)~1618(광해군10)

백사(白沙) 이항복은 남산 동쪽 기슭인 현재 남창동 202번지에 살면서 수목과 화초를 심고 집위 조그만 언덕에 손수 두그루의 전나무를 심고 부근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풍광(風光)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뒤에 종로구 필운동 9번지 필운대(弼雲臺)로 옮겨 살게되고 이곳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 전나무 사이에 정자를 짓고 쌍회정(雙檜亭)이라 하였는데 시인·묵객(墨客)들이 즐겨 찾았다.

그 뒤 순조(純祖)때에는 석범(石帆) 서염순(徐念淳)이 정자를 다시 고쳐짓고 부근에 단풍나무를 심고 정자 이름도 홍엽정(紅葉亭)으로 고쳤다.

그 뒤 철종(哲宗)말년에 백사의 후손인 굴산(橋山) 이유원(李裕元)이 다시 이 집을 사서 수리하고 선조(先祖)의 고사(故事)를 추모하여 편액(扁額)을 전과 같이 '쌍회정'으로 바꾸어 달고 없어진 전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고 많은 꽃나무를 재배하고 그곳 높은 바위에 '橋山:굴산'이라 새겼는데 굴산은 곧 남산을 뜻한다하며 또한 이유원의 호이기도 하다.

일설에는 이 쌍회정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지은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연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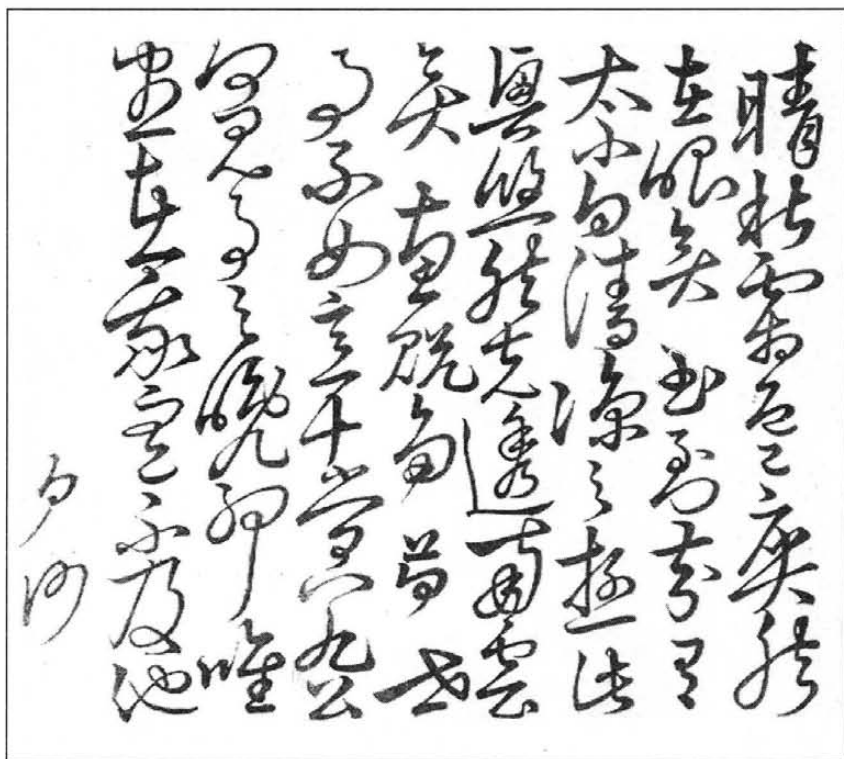
이유원이 이 땅을 매입하여 집을 아담하게 꾸민 다음 하루는 대원군을 비롯한 조정 백관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때 이유원이 새로 지은 정자의 이름과 휘호(揮毫)를 대원군에게 부탁하자 대원군은 쾌히 승낙하고 정자였을 보니 두 그루의 전나무가 우뚝 서 있기에 쌍회정이라고 '雙檜亭' 세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대원군이 평소

이유원을 미워하던 때이라 이때를 타서 잠깐 회롱하는 뜻으로 ‘송(宋)나라의 미회(美檜)는 1회(一檜)인데도 나라를 그르쳤는데 이유원은 2회(二檜)나 된다’는 말임을 뒤에 타인에게서 전해 듣고 두 그루의 전나무를 베어버리고 액자(額子)를 떼어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이유원이 죽은 뒤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다.

이항복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상(子常)이며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청화진인(淸化眞人)·동강(東岡)·소운(素雲)이며 본관은 경주로 참찬(參贊) 몽량(夢亮)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 이틀동안 젖을 빨지 않았고 3일간 울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몹시 염려하여 판수 박견(朴堅)에게 점을 치게 하니 이르기를 “이 아기는 크게 귀한 인물이 되리라”하였다고 한다.

선조 8년(1575)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선조 13년(1580)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가 되고 이듬해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이때 선조의 『강목(綱目)』 강연(講筵)이 있었는데 율곡 이이(李珥)에 의해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등과 함께 한림(翰林)이 되고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1583년(선조16)에 사가독서(賜假讀書)를 했으며 그 뒤 정자(正字)·박사(博士)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 1589년(선조22)에 예조정랑(禮曹正郎)으로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렸으며 이어 응교(應敎) 우승지(右承旨) 등을 거쳐 1590년(선조23)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으며 정여립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이 되었다. 이듬해 좌승지(左承旨)로 재직중 정철(鄭澈)의 죄를 처리하는데 태만했다는 죄로 파직되었다가 곧 도승지(都承旨)로 발탁되자 대간(臺諫)의 공격이 심했으며 당시 대사헌(大司憲) 이원익(李元翼)의 도



백사 이항복의 글씨

움으로 진정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비를 개성으로 호위하였으며 이어 두 왕자를 평양으로 호위하고 선조를 의주(義州)로 호종(扈從)하였다. 그동안 이조참판으로 오성군(鰲城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형조판서로 도총관을 겸직하고 1594년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자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기를 주장하고 전국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였다. 1595년(선조28)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우참찬(右參贊) 등을 역임하였으며 1597년에는 병

조판서로서 신병 때문에 사임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5차례나 병조판서에 있으면서 안으로는 국난타개, 밖으로는 명사응대(明使應對) 등 병권(兵權)을 잡고 크게 활약하였다. 1599년(선조32)에는 좌의정이 되고 이듬해에는 영의정에 승진되었으며 1602년(선조35)에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고 이해 성혼(成渾)을 구하려다가 정철(鄭澈)의 일당이라는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으며 선조 37년(1604)에는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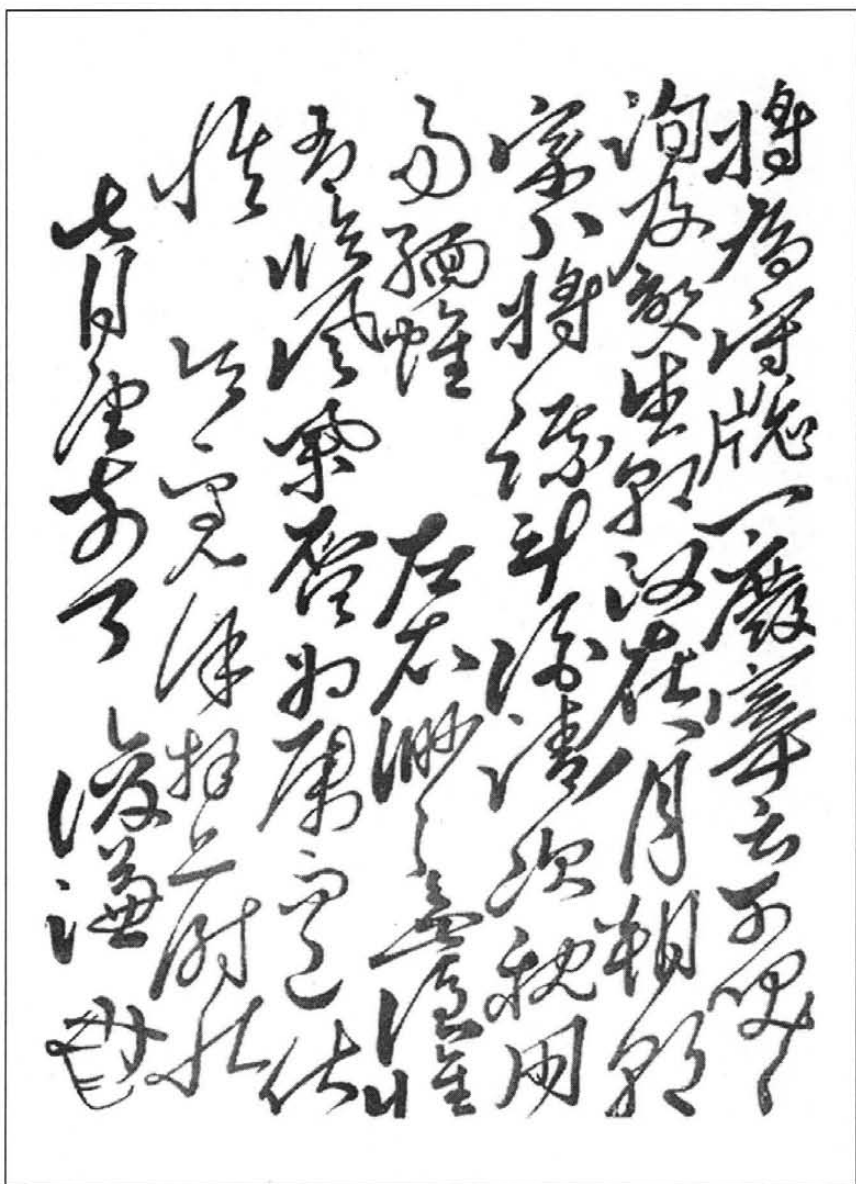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좌의정에 제수되고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였으며 1611년(광해군3)에는 우의정이 되자 사직소를 올리고 은거하였다. 1617년(광해군9)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를 극력 반대하다가 관직이 삭탈되고 이듬해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해에 복관(復官)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저서에 『백사집(白沙集)』이 있다.

13. 한준겸(韓浚謙)

1557(명종12)~1627(인조5)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회현동 2가에 거주하면서 난정수계회(蘭亭修契會)를 개최한 공은 자는 익지(益之)이며, 호는 유천(柳川), 본관은 청주(淸州)로 판관(判官) 효윤(孝胤)의 아들이며 인조의 장인이다.

1586년(선조19)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으며 선조가 출제한 유신(儒臣)들의 글짓기에서 장원하여 상을 받았다. 금천현감(衿川縣監)으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진길(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여러 달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원주로



유천 한준겸의 글씨

이사하였다. 1592년(선조25)에 다시 복직되어 예조정랑·원주목사를 지내고 1595년에는 지평(持平)으로서 도체찰사(都體察使) 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중 명나라 마귀(麻貴)를 도와 식량·마초(馬草) 수집, 저장을 담당하였다. 1598년(선조31) 왜란이 끝난 뒤 우승지(右承旨)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재직 중 문홍도(文弘道)의 무고로 파직되었다가 1600년(선조33)에 복직되어 체찰부사(體察副使)로서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살폈으며 1602년에는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1603년(선조36)에는 4도 체찰부사를 역임했으며 이어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1605년에는 호조판서가 되었다. 1609년 선조가 돌아가실 때 특별히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 받았다. 1613년(광해군5) 박응서의 모반사건인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사판(仕版, 관료의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유배형을 받아 충주에서 지내던 중 1621년(광해군13)에 여주(驪州)로 옮겨졌으며 이 해에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할 적임자로 뽑혀 유배지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고 5도 도원수를 겸임, 국경수비에 힘썼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딸이 인렬왕후(仁烈王后)로 책봉되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의정으로 왕을 공주까지 모셨으며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동궁을 모시고 전주까지 내려가 호남지방의 인심을 진정시킨 일도 있다.

기국(器局)이 큰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인물로 평해지며 선조의 유교7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이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로 『유천답기(柳川答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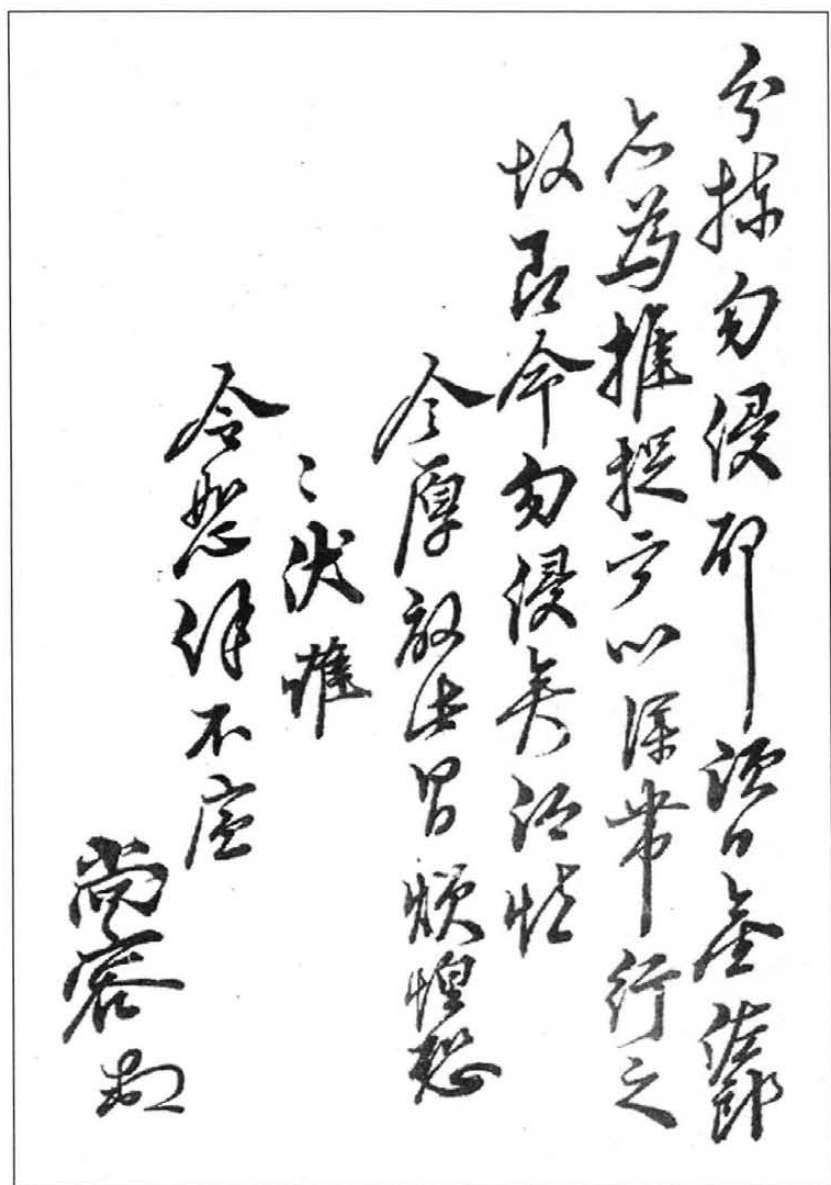
14. 김상용(金尙容)

1561(명종16)~1637(인조15)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회현동1가 14번지에 있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종로구 청운동 52번지일대의 백운동(白雲洞) 즉 청풍계(淸風溪)에서 살았다.

공의 자는 경택(景擇)이며 호는 선원(仙源) 혹은 풍계(楓溪) 본관은 안동으로 돈녕부도정 극효(克孝)의 아들이고 좌의정 상헌(尙憲)의 형이며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의 외손이다.

1582년(선조15)에 진사가 되었고 1590년(선조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 선원촌(仙源村)으로 피난하던 중 양호체찰사 정철(鄭澈)과 판서 김찬(金瓚)의 종사관으로 있었다. 그 뒤 병조좌랑·정언·수찬·응교 등을 역임하고 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호남지방을 드나들었다. 1598년(선조31)에는 그간의 공으로 승지가 되어 왕의 측근에서 전란 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하였으며 그해 겨울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 뒤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정주(定州)·상주목사(尙州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는 잠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도승지를 지낸 뒤 계속 한직에 있었다. 1617년(광해군9)에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관직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겨 화를 피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집권당인 서인(西人)의 한 사람으로 판돈녕부사를 거쳐 예조·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27년(인조2)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되었다. 1630년(인조8)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노령으로 관직을 사퇴하려 하였으



선원 김상용의 글씨

나 허락되지 않고 1632년(인조10)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거듭 사임을 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때 임금의 명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의 몸으로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稷壇)의 신주(神主)와 세자비(世子妃) 원손(元孫) 등을 모시고 강화로 피난하여 그곳을 굳게 지키다가 다음 해 정월에 강화섬이 함락되자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순절하기 직전 다락에 올라 몸종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이 옷을 집으로 보내서 장사지내게 하여라.”

하고 다른 모든 종들도 달래어 옆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서손자(庶孫子)인 수전(壽全)과 종 한사람이 옆을 떠나지 않자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공이 담뱃대에 불을 붙여오게 하여 미리 문 앞에 묻어둔 화약에 불을 댕기었다. 그 순간 뇌성벽력 같은 벼락소리가 터지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가 싶더니 문루(門樓)가 산산조각나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77세의 노인인 공의 몸도 산화되었다.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에 『선원유고(仙源遺稿)』, 『독례수초(讀禮隨抄)』가 있고 글씨 작품으로는 평양의 ‘숭인전비’(崇仁殿碑) 및 풍덕군수 장린정비(張麟禎碑) 전액(篆額)이 있다.

15. 박승중(朴承宗)

1562(명종17)~1623(인조1)

공의 제택(第宅)은 예장동 2번지 후조당(後凋堂) 동쪽 기슭에 있었다.

皇華先生
 却愧
 後一
 于將
 天啓元年仲春
 退夏

공의 자는 효백(孝伯)이고 호는 퇴우당(退憂堂)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병조판서 계현(啓賢)의 손자이고 안세(安世)의 아들이다.

1585년(선조18)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에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1589년(선조22)에는 봉교(奉敎)에 이어 지제교(知製敎)·병조정랑을 역임하고 1600년(선조33)에는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 왔으며 1604년에는 부제학이 되고 1607년(선조40)에는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며 1610년(광해군2)에는 형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고 1618년(광해군10)에는 우의정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였다. 이어 좌의정이 되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밀양부원군(密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정승의 자리에 오르자 항상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오리알 만큼 큰 비상을 넣어두고 말하기를

“불행한 시대를 만나 조석으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어찌 물건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고 번번히 진정하지 못하고 고요한 방안에 한가히 있으면서 흐느껴 울고는 하였다한다.

일찍이 광해군 4년(1612)에 폐비론을 주장하던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로 그의 심복인 윤인(尹訥)·이인경(李寅卿)일파가 경운궁에 난입하여 인목대비를 죽이려 할 때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인목대비를 지켰으며 전교(傳敎)를 기다리던 날(庭請)에도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1617년(광해군9)에 폐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극력반대하였다. 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폭음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술을 즐겨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속히 죽기를 원하여 그리하는 것이다.”

라 하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아들 자흥(子興)과 함께 조상이 묻힌 선산(先山)으로 달려가 선조(先祖) 묘 앞에서 목매어 함께 죽었다. 이 세상을 이별하는 글을 옷자락에 쓰기를

“임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계신 선왕(先王)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에게 죄를 뱉니다.”

하였다.

공은 죽은 직후에 가산을 몰수당하였고 또 관직도 추탈(追奪)되었으나 뒤에 신원(伸冤)되었으며 시호는 숙민(肅愍)이다.

『여지비고(輿地備考)』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인목대비께서 서궁(西宮)에 유폐되어 계실 때, 서궁이 성서쪽 백악산(白岳山) 아래 있었으므로 서궁을 향해 집을 짓고 그 당호(堂號)를 ‘읍백’(挹白)이란 편액(扁額)을 달았는데 읍백이란 서궁을 바라보며 손모아 절한다는 뜻이라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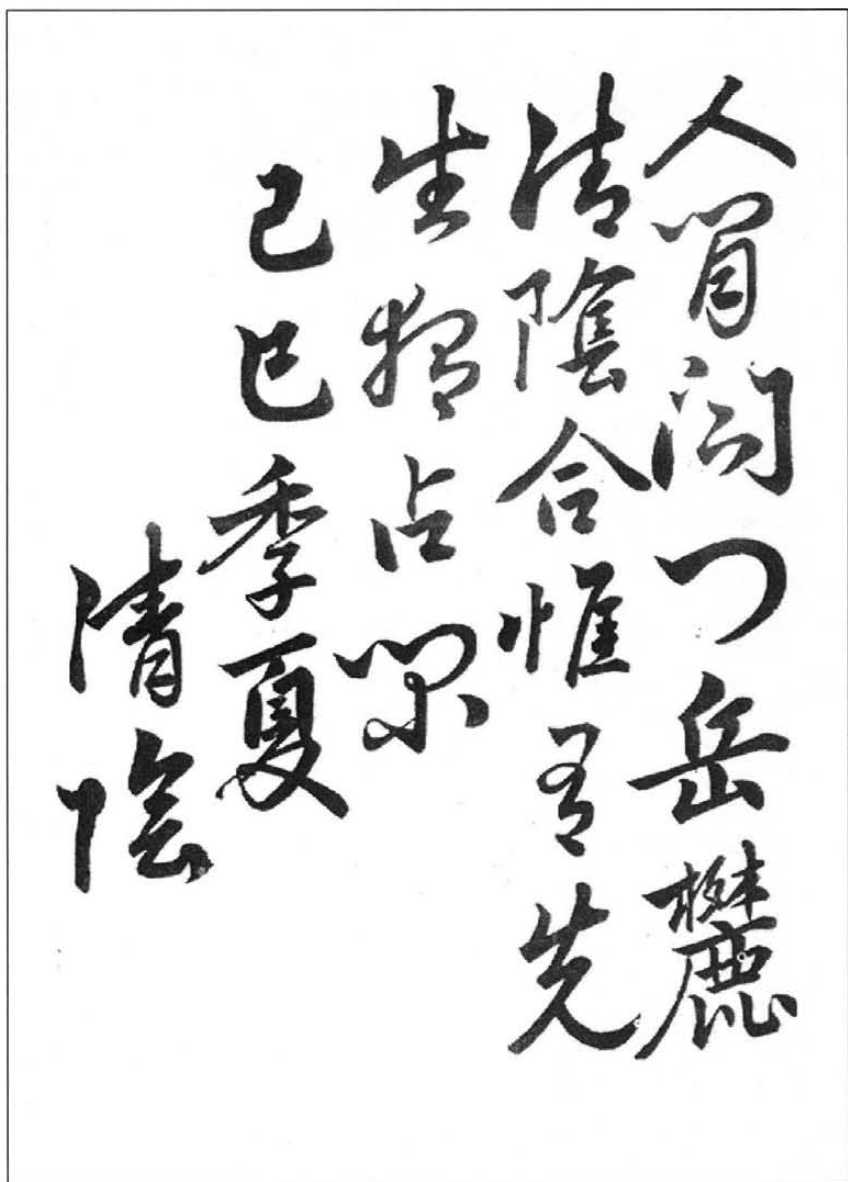
16. 김상헌(金尙憲)

1570(선조3)~1652(효종3)

조선중기 문신으로 회현동 1가 14번지에 있던 외가에서 태어났다.

공의 자는 숙도(叔度)며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으로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극효(克孝)의 아들이며 선원(仙源) 상용(尙容)의 동생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596년(선조29)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



청음 김상헌의 글씨

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등 여러 벼슬을 지낸 다음 1608년(광해군1)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교리(校理)·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이때 퇴계 이황(李滉) 배척에 앞장선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하다 광주부사(廣州府使)로 밀려났으며 1613년(광해군5)에는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의 역모(逆謀)사건이 일어났는데 김제남의 딸이 자부(子婦)였기 때문에 파직 되었으며 이에 북인(北人)의 박해를 피해 안동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어 대사간·이조참의·도승지·부제학 등 요직을 지냈으며 1626년(인조4)에는 성절겸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6조의 판서(判書)를 두루 거쳤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한 탓으로 파직되고 1639년(인조17) 청(淸)에서 명(明)을 공격하기 위한 출병(出兵)요구가 있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혐의로 심양(瀋陽)에 잡혀 갔으며, 이때 남긴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 다 시보자 한강수야’가 그의 애국충절을 말해 준다. 1642년(인조20)에 돌아왔으나 선천부사(宣川府使) 이계(李桂)의 국비(國秘) 밀고사건으로 이듬해에 다시 청에 압송되어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북관(北館)에 억류, 6년만에 풀려왔다. 1645년(인조23)에 귀국하여 이듬해 우의정에 제수되고 이어 좌의정으로 승진되었다.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추진된 북벌계획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대로(大老)로 추앙되었다. 성혼(成渾)의 도학(道學)에 학문적 연원을 두었으며 청서파의 영수로 비교적 초당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의 중화

적(中華的) 절의(節義)와 춘추대의(春秋大義)는 송시열(宋時烈) 등 산림파(山林派)에 계승되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는 『청음집(淸陰集)』, 『남한기략(南漢紀略)』, 『풍악문답(風岳問答)』, 『야인담록(野人談錄)』, 『독례수초(讀禮隨抄)』 등이 있다.

17. 이안눌(李安訥)

1571(선조4)~1637(인조15)

묵정동(墨井洞, 먹적골)에서 살았다.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이며 본관은 덕수로 이행(李荇)의 증손이며 진사 형(炯)의 아들로 재종숙부인 사헌부감찰 이비(李泌)에게 입양되었으며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과거를 포기하고 권필(權輅)·윤근수(尹根壽)·이호민(李好閔) 등과 더불어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시작(詩作)에 열중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동악집(東岳集)』 26권이 전하는데 여기에 4,379수의 방대한 양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 그는 특히 당시(唐詩)에 능해 이태백(李太白)에 비유되고 글씨도 잘 썼다. 그의 작품은 자신이 부임하는 고장을 중심으로 백성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 민중생활사 및 사회사적 자료를 담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명소편 상술)

愛爾孤雲獨鳥身老
 懷堪笑此酸辛恰如
 年少西行日浮碧樓
 前別義人
 崇禎歲庚午
 東岳病叟

18. 윤황(尹煌)

1572(선조5)~1639(인조17)

남산기슭 필동 2가에 살았으며 옛날 금위영(禁衛營) 서문 밖에 「팔송정」(八松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팔송 윤황의 집에 딸린 우물이었다.

윤황은 자는 덕요(德耀)이며 호는 팔송(八松) 또는 노곡(魯谷), 본관은 파평으로 창세(昌世)의 아들이며 장인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7년(선조30)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에 보직되고 1601년(선조34)에는 전적(典籍)에 올랐으며 감찰·정언(正言)에 이어 병조와 예조의 좌랑(佐郎)·예조정랑(禮曹正郎)·북청판관(北靑判官)·영광군수(靈光郡守)를 역임하고 봉상시정(奉常寺正)에 이어 군기감정(軍器監正)에 전임되었다.

1616년(광해군8)에는 대북(大北)의 탄핵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이산(尼山)에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등용되어 장령(掌令)·집의(執義)·대사간·검상(檢詳)·사인(舍人)·동부승지(同副承旨)·이조참의·전주부윤(全州府尹) 등을 역임했으며,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과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사간(司諫)으로서 척화(斥和, 主戰)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1637년(인조15)에는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이 척화신으로 청나라에 잡혀가게 되자 대신 잡혀 갈 것을 자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환도 후 상소문 중에 불손한 구절이 있다하여 영동(永同)으로 유배되었다가 병으로 풀려나와 세상을 떴다. 글씨에 능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로 『팔송봉사(八松封事)』가 있다.

子結或幸之也
 兄意如以為可
 昨命吾子為成
 何家福為之
 个家福為之
 已議和了
 庚弟煌

팔송 윤황의 글씨

19. 김육(金堉)

1580(선조13)~1658(효종9)

남산기슭인 회현동 2가에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 가문에서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다.

김육은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참봉 흥우(興宇)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38)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24년(인조2)에는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임명되고 1633년(인조11)에는 안변도호부사로 부임했으며 1636년(인조14)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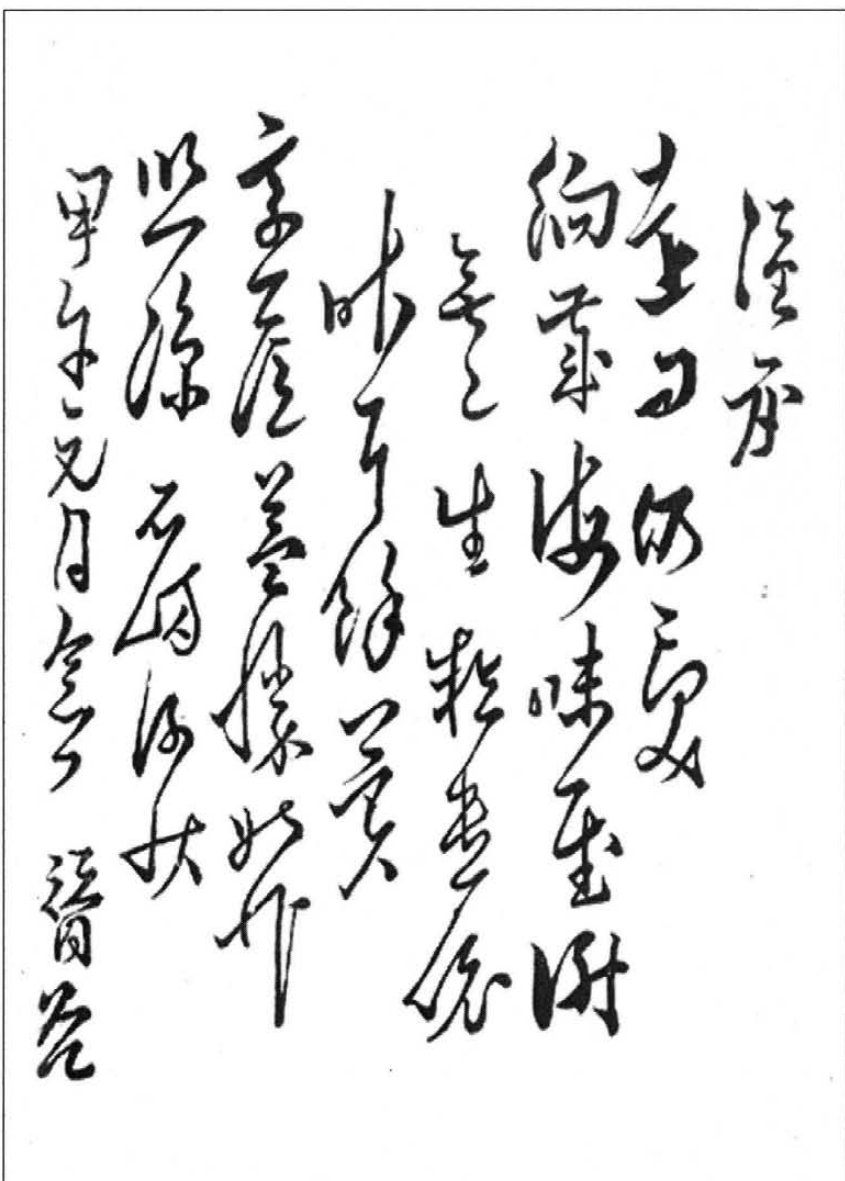
1638년(인조16)에는 충청도관찰사로 나가 대동법(大同法)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이듬해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대사성·부제학 등을 거쳐 1643년(인조21)에는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도승지가 되고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에 볼모로 잡혀가자 보양관(輔養官)으로 수행, 귀국하여 우부빈객(右副賓客)이 되었다. 1645년(인조23)에 관상감 제조(提調)가 되고 이듬해에는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의 북경에 다녀온 후 1649년(효종즉위년)에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으며 이어 사은(謝恩) 겸 동지사(冬至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온 뒤 1650년 대동법 실시문제로 김집(金集)과 논쟁하고 퇴직하였으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로 전직되어 진향사(進香使)로 또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령(高齡)을 이유로 사직했다가 이듬해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이 되어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을 맡아 보았고 다시 이 해에 우의정이 되

고 1652년(효종3)에는 좌의정, 1654년(효종5)에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使)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영의정이 된 뒤에 당시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하고 쌀과 삼베(米布)로 대납하는 제도인 대동법을 다시 주장하여 충청도 지방에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에 이를 반대하던 관리들도 선정(善政)이라고 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맏아들 김좌명(金佐明)에 의하여 전라도·경상도·황해도에 차례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또 관상감 제조로 재직중에는 한흥일(韓興一)이 구해온 서양의 역법인 『신력효식(新曆曉式)』을 보고 당시 4백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구식 역법을 개정하고자 건의하여 1653년(효종4)부터 시헌력(時憲曆)이라는 새 역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교통수단으로서 수레를 제작하였고 관개(灌溉)에 수차(水車)의 사용을 주청하여 1644년(인조22)에 황해도·평안도에 실시케 하였다. 한편 1651년(효종2)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건의하여 서울과 서북지방에 유통케 하였으며, 또 병자호란(1636)으로 소실된 활자를 새로이 제작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의 경제학은 실학(實學)의 원조(元祖)인 류형원(柳馨遠)에게 큰 영향을 끼쳐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병략(兵略)·복서(卜筮)·율역(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저서로는 『잠곡필담(潛谷筆談)』, 『송도지(松都誌)』, 『팔현전(八賢傳)』,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기묘록(己卯錄)』, 『잠곡유고(潛谷遺稿)』, 『종덕신편(種德新編)』, 『유원총보(類苑叢寶)』, 『당적내외세보(堂籍內外世譜)』 등과 편서(編書)로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등 여러 책이 있다.



잠곡 김육의 글씨

20. 이경여(李敬輿)

1585(선조18) ~ 1657(효종8)

남산동 3가 영화진흥공사 부근에 살았다.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 본관은 전주(全州), 목사(牧使) 수록(綏祿)의 아들이다. 1601년(선조34)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09년(광해군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611년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1623년 인조반정(仁組反正)으로 부수찬(副修撰)·부교리(副校理)를 거쳐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公州)에 호종(扈從)하였으며 이어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1630년(인조8)에는 부제학(副提學)·청주목사(淸州牧師)·좌승지(左承旨)·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호송했고, 이듬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그 후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대사성을 겸임하여 선비 양성의 정책을 상주(上奏)했고, 이조참판(吏曹參判)·형조판서를 역임했다. 1642년 배청친명파(排淸親明派)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계(李桂)가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심양(瀋陽)에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세자와 함께 귀국, 우의정이 되었다. 1644년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갔다가 다시 억류되었으나 그동안 본국에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귀국, 1646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昭顯世子嬪)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珍島)에 유배, 다시 1648년 삼수(三水)에 위리안치(圍離安置)되었으나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

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로 전임했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저서로 『백강집(白江集)』이 있다.

21 정태화(鄭太和)

1602(선조35)~1673(현종14)

회현동 1가 17번지에 거주하였다. 『한경지략(漢京識略)』 제택조(第宅條)와 각동조(各洞條)에 보면 ‘정광필의 집이 회현방(會賢坊)에 있는데 은행나무가 있다. 귀신이 이르기를 열두 서대(犀帶)가 이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보면 정씨 문중에서 정승이 된 이가 많은 중에 아직도 남은 띠(帶)가 있는 셈이라고들 말한다. 이 마을에 정씨 후손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세칭 회동정씨(會洞鄭氏)라 하는데 양파(陽坡) 정승의 옛집도 이 동리에 있다. 그 옛날 사랑채가 한칸 두옥(斗屋)이었지만 형제(泰和, 致和)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도 같이 살면서 좁은 줄을 몰랐다. 또 그 안채는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태어난 방으로 사람들이 열두 서대(犀帶)란 말이 들어맞는다.’고 전하고 있다. 어쨌든 수천(守天) 정광필이 영의정을 지냈고 그 손자 임당(林塘) 유길(惟吉)과 그의 아들 수죽(水竹) 창연(昌衍)이 좌의정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광성(廣成)은 형조판서가 되었고 또 그의 큰 아들 양파와 작은 아들 기주(棋洲) 치화(致和)도 영의정에 올랐으니 영광스러운 집안이 아닐 수 없다.

정태화는 자는 유춘(囿春)이고 호는 양파(陽坡), 본관은 동래로 형조판서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제곡(濟谷) 광성(廣成)의 아들이다.

謹謝狀上

江華留守

台臺前

暮服人太和謹封

暮服人太和自私家不幸室人奄忽
喪逝悲悼酸苦不自堪忍伏蒙

台即垂慰問且有下

惠聘感荷之至不知所喻太和半身
不遂妾顏度日而遭此慘感舊疾
添劇何能久於世乎末由

面訴只增哽塞伏惟

辛亥五月初五日

台諒謹謝狀上
暮服人太和

1628년(인조6)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631년(인조9) 정언(正言)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부교리·헌납·사인·부응교를 역임한 다음 1635년(인조13)에 사간(司諫)이 되었다. 1636년에는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원수부의 종사관에 임명되어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휘하에서 군무에 힘썼으며, 이해(인조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도원수가 도망가자 황해도에서 패전병을 수습하여 시석(矢石)으로 항전한 무용(武勇)을 펼친 유장(儒將)의 한 사람이다. 1637년에는 불모로 간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충청도 관찰사에 오르고, 승정원 동부승지를 거쳐 1639년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지낸 뒤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청나라 사관(査官)을 맞았다. 1640년(인조18)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오른 다음 대사간·평안도관찰사·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도승지를 거쳐 1644년(인조22) 이조참판으로 접반사(接伴使)를 겸하고 이듬해에 호조판서를 거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이 때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세제책봉을 반대하고 소현세자의 아들이로서 적통(嫡統)을 계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46년(인조24)에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고 1648년 형조판서로 전임되었다가 이듬해에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에 올라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영의정에 올랐다. 그 뒤 어머니 상(喪)으로 사직했다가 1650년(효종1)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고 이어서 좌의정에 재차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다시 영의정이 되어 1657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다음 해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곧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재등용되었다가 1659년(효종10)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이 해에 효종 임금이 세상을

뜨자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國政)을 처결하였다. 당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基年說)을 지지하여 이를 시행케 하였다.

1671년(효종12)에 70세로 기로소(耆老所)에 드는 영광을 입었고 죽은 뒤에는 현종(顯宗)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시호는 익헌(翼憲)이었다가 충익(忠翼)으로 하였으며, 저서에 『양과유고(陽坡遺稿)』가 있다.

22. 윤선거(尹宣舉)

(1610(광해군2)~1669(현종10))

충무로 4가에 거주하였다. 공의 자는 길보(吉甫)이며 호는 미촌(美村)·노서(魯西)·산천재(山泉齋), 본관은 파평으로서 대사간 황(煌)의 아들이며 증(拯)의 아버지이다.

1633년(인조11)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36년(인조14) 청나라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 유생의 소두(疏頭)가 되어 사신의 목을 베어 명나라에 대한 의(義)를 지키기를 주장하였다. 그 해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되자 처 이씨(李氏)는 자결하였고 공은 평민 복장으로 탈출하였다. 그 뒤 사헌부지평·장령·집의 등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대의를 지켜 죽지 못한 것을 자책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정통하였다. 평소 친교가 있던 송시열(宋時烈)과 윤휴(尹鑄)가 경전주해(經傳註解) 문제로 대립하자 윤휴를 변호하는 태도를 취한 까닭에 송시열에게 배척을 당하

였다. 이는 뒤에 노론(老論)·소론(少論) 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죽은 뒤 그의 아들 증(拯)으로부터 아버지의 묘갈을 청탁받은 송시열은 선거가 생전에 윤희와 절교하지 않은 점에 불만, 자기 글이 아닌 박세채(朴世采)가 찬술한 행장(行狀) 그대로를 인용하여 써 주자 두 사람의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서인에서 노·소로 갈라지게 되었다.

1715년(숙종41) 유계(兪槩)와의 공편(共編)인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발문으로 노·소론의 싸움이 일어나자 이듬해 아들과 함께 벼슬을 추탈(追奪)당했다가 1722년(경종2) 부자가 함께 벼슬에 복구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능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 『노서유고(魯西遺稿)』, 『계갑록(癸甲錄)』, 『우계연보후설(牛溪年譜後說)』 등이 있고 작품으로 글씨 '김집묘갈'(金集墓碣)이 있다.

23. 김석주(金錫胄)

1634(인조12)~1684(숙종10)

남산 북쪽 기슭인 회동(會洞), 즉 회현동 2가 재산루(在山樓)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 모습이 범과 비슷하였는데 범은 산이 있어야 좋다고 하여 택호(宅號)를 재산루(在山樓)라고 이름하였다하며 그가 손수 심었다는 노송(老松)이 있었고 폭포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찬 우물이 있었고 우물 동쪽 석벽에는 '창벽(蒼壁)'이라고 새겼다한다. 뒤에 종로구 관훈동에서 거주하였다.

공은 자는 사백(斯百)이며, 호는 식암(息庵),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영의정 육(堉)의 손자이며 병조판서 좌명(佐明)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陸承

今面書仍受歲維之
 既以望之而心之
 幸親安過乃幸
 祭能運之而心之
 今也陸承也

又騰之

錫曹

1657년(효종8)에 진사가 되고 1662년(현종3)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하여 전적(典籍)·이조좌랑·정언·지평·부교리·수찬·헌납·교리(校理)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했으나 서인 중의 한당(漢黨)으로 지목되어 집권당인 서인 산당(山黨)에게 중용되지 못하였다.

숙종 즉위년(1674)에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상(服喪)문제를 둘러싸고 2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남인(南人) 허적(許積) 등과 함께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등 산당(山黨)을 숙청하고 수어사(守禦使)·도승지(都承旨) 등으로 특진되었다. 그러나 남인정권이 점차 강화되자 이들의 기세를 꺾고 거세하기 위하여 다시 서인들과 제휴하여 송시열을 제거하려는 남인들의 책동을 꺾어 이때부터 노론파(老論派)로 지목되었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허적 등의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잔여 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허견(許堅)이 역모를 한다고 고변하게 하여 이들을 추방한 공로로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이 되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82년(숙종8)에 병조판서로 있을 때 금위영(禁衛營)을 설치케 하고 대장(大將)을 겸했으며, 그 해 5월에 우의정으로 승진되어 호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이어 김익훈(金益勳)과 함께 남인(南人)세력을 철저히 꺾기 위해 전익대(全翊戴)를 사주하여 허새(許璽) 등 남인들이 역모한다고 고변케 하는 등 음모를 꾀하였다.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인 타도에 적극적이라 하여 서인 소장파의 탄핵을 받아 서인의 노론파 소론으로 갈라지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신호(功臣號)를 추탈당했으나 뒤에 복작(復爵)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 『식암집(息庵

集)』, 『해동사부(海東辭賦)』가 있다.

24. 나홍좌(羅弘佐)

1649(인조27)~1709(숙종35)

남산동 1가 2번지에 살았는데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있는 부근의 마을로 흔히들 ‘나대장골’이라 불러왔는데 나홍좌 대장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약하여 ‘나동’(羅洞)으로 쓰기도 하였다.

공은 자는 제백(濟伯)이며 본관은 안정(安定)으로 구포(鷗浦) 만갑(萬甲)의 증손이며, 성원(星遠)의 아들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이었으나 무예를 닦아 선전관을 비롯하여 총부도사(摠府都事)·훈련원정을 거쳐 1685년(숙종11)에 내금위장(內禁衛將)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풍기를 문란시켰다고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 뒤 훈련도감 중군(訓練都監 中軍)·훈련대장 겸 총관총융사(摠管摠戎使)를 거쳐 훈련도정(訓練都正) 겸 주사당상(籌司堂上)이 되었다. 1699년(숙종25)에는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거쳐 한성부 좌윤(左尹)에 임명되고 이듬해 포도대장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중화부사(中和府使)·서흥현감·봉산군수·여산토포사(礪山討捕使)·숙천부사·춘천방어사·정주목사·해미현감·영흥부사·함경남도 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삼도통제사에 임명되었다. 1699년에 노·소론간의 대립으로 과옥(科獄)이 일어나자 이듬해 포도대장으로 과옥을 안치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무고를 입고 용천(龍川)에 유배되었다.

1703년(숙종29)에 김창집(金昌集) 등 대신들의 변론을 통하여 풀려나와 춘천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수원방어사에 부

임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공은 충·효가 돈독하고 식견과 도량이 넓고 청략간엄(淸約簡嚴)하였으며 특히 청송(聽訟)이 공평하고 지방의 황폐한 곳을 잘 다스렸다.

25. 조현명(趙顯命)

1690(숙종16)~1753(영조28)

남산 기슭 필동 2가에 귀록정(歸鹿亭)을 짓고, 벼슬살이보다 향리(鄕里)의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벼슬에 있는 중에도 집 근처에 사슴을 매어 놓아 언제든 그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향리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한다.

조현명의 자는 치회(稚晦)이며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 본관은 풍양으로 도사(都事) 인수(仁壽)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39)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719년(숙종45)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용강(龍岡)현령·지평 등을 지냈다.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때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이 되고 풍원군(豐原君)에 봉해졌다. 이 해 부제학에 승진되고 이어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도승지를 거쳐 1731년(영조7)에는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진휼(賑恤)에 힘쓰고 양사규제(養士規制)를 만들어 인재를 추천하는 등 공을 세웠으며, 이듬해 대마도(對馬島)의 화재로 조정에서 위문미(慰問米)를 보내려 하자 “왜인(倭人)이란 해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또 사신도 오지 않는데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위문미부터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적극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733년(영조9)에 전라감사로 다시 기용되어 총융사(摠戎使)·공조참판을 거쳐 1736년에는 이조판서에 오르고, 예조판서에 전임되고 이어 우참찬을 지낸 다음 판의금(判義禁)에 특진되었으나 형정(刑政)에 대한 불공정(不公正) 등을 상소하고 김성택(金聖澤) 사건에 바른 말을 하다가 다시 파직당했다. 1738년(영조14)에 이조판서로 복직된 뒤 여러 벼슬을 거친 다음 1740년(영조16) 우의정에 승진되고 1742년에는 숙종 말년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양역사정청(良役查正廳)을 복설케하고 이듬해 문안사(問安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746년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전임했다가 다시 우의정이 되어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750년(영조26)에 영의정에 오르고 이어 영돈녕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좌의정에 전임, 이 해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의 주장으로 호전법(戶錢法)의 실시가 논의되자 균역청당상(均役廳堂上)으로서 그 구체적 절목(節目)을 결정하여 양역(良役)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하였다.

당파로는 노론(老論)에 속했으나 탕평책(蕩平策)을 지지, 영조의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고 불의(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여 두 차례나 파직 당하기도 했으나 영조의 신임을 잃지 않았다. 청렴한 생활을 일관했으며 효행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며, 저서로 『귀록집(歸鹿集)』이 있고 편서로 『양역실총(良役實摠)』이 있다.

26. 강세황(姜世晃)

1712(숙종38)~1791(정조15)

남부 명철방 남소동(南小洞), 현 장충동 1,2가에서 태어났으며, 만년에는 남산 기슭 회현동에 홍엽루(紅葉樓)를 짓고 살았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 서화가인 강세황은 자는 광지(光之)이며 호는 표암(豹庵)·첨재(忝齋)이고 별칭 홍엽상서(紅葉尙書)라고도 하였으며 본관은 진주(晋州)로 대제학 현(鉉)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문장과 글씨에 재능을 보였으나 20대에 잇따른 부모상과 형의 귀양 등으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1744년 가난이 심해지자 처가에 있는 안산(安山, 수암, 부곡리)으로 이주하여 30년간 학문과 서화에 몰두하여 지냈다. 1773년(영조49) 영조의 배려로 61세에 영릉참봉(英陵參奉)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1775년(영조51)에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이 되었다. 1776년에 기로과(耆老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1778년(정조2)에는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으며 이때 또 문신(文臣) 정시(廷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가 호조·병조참판을 거쳐 1783년(정조7)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으며 1785년과 1789년에도 다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70세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치남 류경종(柳慶種)을 비롯하여 허필(許泌)·이수봉(李壽鳳)과 가까웠고 이익(李瀾)·심사정(沈師正)·강희언(姜熙彦) 등 여러 명사들과 교유했으며 김홍도(金弘道)·신위(申緯)에게 그림을 지도하였다. 창작과 이론을 겸비한 사대부 서화가로서 당시의 서화계를 계도했으며, 특히 남종문인화가 조선 후기 화단의 주도화풍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으며 새로운 서양화풍(西洋畵風)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말년에는 진경산수와 묵죽(墨竹)을 즐겨 그렸다.

공은 스스로 칭하기를 “왕희지(王羲之)의 글씨, 고개지(顧愷之)의 그림, 한퇴지(韓退之)의 글, 두목지(杜牧之)의 시를 나 광지(光之)는 겹했다”하여 자신을 합쳐 오지(五之)라고 하였다. 글씨는 왕희지·왕헌지(王獻之)·미불(米芾) 등의 글씨체를 본 받았고 전서·예서를 비롯한 각체가 모두 신묘하였다. 시는 중국의 육유(陸遊)를 본 받았으나 독자적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시호는 헌정(憲靖)이며 저서에 『표암집(豹庵集)』이 있고 작품은 『난죽도(蘭竹圖)』, 『묵죽도(墨竹圖)』, 『계산초청도(溪山初晴圖)』의 여러 작품이 있다.

27. 홍양호(洪良浩)

1724(경종4)~1802(순조2)

남부 훈도방 진고개 즉 지금의 충무로 2가에서 태어났으며 말년에는 우이동에서 보냈다.

홍양호는 초명은 양한(良漢)이며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梨溪),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단양군수 중성(重聖)의 손자이며 진보(鎭輔)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알려졌고 처 백부인 심저촌(沈樗村)에게서 글을 배워 당시 사장(詞章)에 얽매던 유학(儒學)의 폐단을 탈피하여 의리성명설(義理性命說)에 몰두하였다.

1747년(영조23)에 진사가 되고 1752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함

뒤 지평·수찬·교리를 지냈으며 1774년(영조50)에 등준시(登俊試)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1777년(정조1)에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횡포가 심해지자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정조(正祖)임금은 경흥부사(慶興府使)에 임명하였다. 홍국영이 실각되자 1781년(정조5)에 곧 한성부 우윤(右尹)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대사간(大司諫)을 지내고 이듬해에는 동지부사가 되어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대사헌(大司憲)과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1794년(정조18)에는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중국에 갔을 때 한림수선(翰林修選) 대구형(戴衢亨) 등 그곳 학자와 교유하여 고증학(考證學)에 대한 지식을 얻어 우리나라 고증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1799년(정조23)에는 양관대제학(弘文館·藝文館 大提學)을 겸임하였고 1801년(순조1)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도 겸하였다.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영조실록』, 『국조보감』, 『동문휘고(同文彙考)』 등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영조는 그의 박학(博學)함을 칭찬하였고 의심이 나면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지방관으로 나아가서는 치수(治水)와 식수(植樹)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였는데 곧 평안도 강동군(江東郡)에 만류제(萬柳堤), 충청도 강진군(康津郡)의 합덕지(合德池)를 준설하였으며 특히 통신사 일행에게 의뢰하여 1764년(영조40)에는 일본의 벚나무 묘목을 가져와 우이동(牛耳洞)에 심어 뒷날 경승지를 이루게 하였으며 「우이동 구곡기」(牛耳洞 九曲記)는 이곳의 경승(景勝)을 그린 명문이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진체(晋體)와 당체(唐體)에 뛰어났으며 작품으로는 곡산의 「신덕왕후 사제구기비」(神德王后 私第舊基碑)와 수원의 「북문루 상

량문」(北門樓 上櫟門)이 있다.

저서는 『이계집(耳谿集)』이 있고, 편서는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만물원시(萬物原始)』, 『목민대방(牧民大方)』, 『육서경위(六書經緯)』, 『격물해(格物解)』, 『고려대사기(高麗大事記)』, 『북새기략(北塞記略)』외 여러 책이 있다.

28. 조만영(趙萬永)

1776(영조52)~1846(헌종12)

종로구 재동 83번지에 살았으나 문우(文友)와 교유하기를 좋아해서 남산 북쪽 기슭인 필동 2가 134~2번지에 노인정(老人亭)을 짓고 문우와 어울렸으며 또 옥수동 한강변 동호(東湖)에 쌍호정(雙虎亭)을 지어 한강의 풍경을 즐겼는데 그의 딸 조대비(趙大妃)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노인정에는 많은 노인이 항상 모여서 놀았으므로 정자 이름도 ‘노인정(老人亭)’이 되었으며 정자 뒤 바위에는 ‘조씨노기(趙氏老基)’란 글자를 새겼다. 특히 당시 명문가이던 풍양조씨를 비롯해서 안동김씨·동래정씨의 문인(文人) 문관(文官)들이 이곳에 모여 여가를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평화롭던 노인정은 1894년(고종31)에 일제는 공사(公使) 다케시마(大島圭介)에게 훈령을 보냈으며 다케시마는 이 노인정에서 5개 조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만일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대병력을 출동시켜 왕궁을 포위, 강제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그해 6월 8일 다케시마는 당시 한국 대신(大臣) 신정희(申正熙), 김종한(金宗漢), 조정승(趙定承) 등과 이 정자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강제로 가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일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거센 저항을 받게되어

민왕후(閔王后)의 시해와 단발령(斷髮令) 등으로 울분에 쌓였던 민중들은 친일내각 타도와 국권(國權)수호를 외치며 의병을 일으켰다.

조만영의 자는 윤경(胤卿), 호는 석애(石崖), 본관은 풍양으로 이조판서 진관(鎭寬)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13)에 증광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뒤 검열이 되었으며 1815년에는 문필(文筆)이 뛰어나 홍문록(弘文錄)에 오르고 또 도당록(都堂錄)에도 오른 수재(秀才)로 지평·정언 등을 거쳐 1816년에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아가 게으른 수령을 다스리고 각종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1819년(순조19) 부사직(副司直)으로 있을 때 그의 딸이 세자빈(世子嬪, 익종비)으로 책봉되어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에 봉해지고 이후 풍양조씨가 정계에 등장, 그 중추적인 인물로서 안동김씨와 세도를 다투게 되었다. 1820년에 순조의 특지(特旨)로 이조참의가 되고 이듬해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어 이조·호조·예조·형조의 판서와 1828년(순조28)에는 한성부판윤을 거쳐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을 지냈으며 1845년(헌종11)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고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저서로 『동원인물고(東援人物考)』가 있다.

29. 정원용(鄭元容)

1783(정조7)~1873(고종10)

남산 기슭인 회현동 2가에 화수루(花樹樓)를 짓고 살았다.

정원용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 본

流光去將矣此唯
 榮祿前按事重水土
 他精力少無值換之
 志云且矣且善書公假
 句旁祿祿之症要叫
 甘領年一記回其然也
 十月三日康書元家

경산 정원용의 글씨

관은 동래로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 동만(東晩)의 아들이다.

1802년(순조2)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예문관 검열(檢閱)·홍문관 부응교(副應敎)·이조참의·대사간 등을 지내고 1821년(순조21)에는 관서위유사(關西慰諭使)로서 평안도의 민폐실정을 조사, 보고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뒤 1831년(순조31)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837년(헌종3)에는 예조판서에 승진되었으며 또 이조판서를 거쳐 1841년(헌종7)에는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으며 1843년(헌종9)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고 1849년에 헌종이 돌아가시자 영의정으로서 강화(江華)에 사는 덕완군(德完君) 원범(元範, 철종)을 왕으로 영립할 것을 주장하여, 즉위케 하였다. 그 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총호사(摠護使) 등을 지냈으며 관기(官紀)가 문란해지고 각 곳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나자 암행어사(暗行御史) 제도를 부활시키도록 건의하였다. 1862년(철종13)에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뒤 이정청(淸)의 총재관(摠裁官)이 되어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등 삼정(三政)의 문란을 시정하려 하였고 1863년(철종14)에 철종이 승하(昇遐)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고종(高宗)이 즉위할 때까지 정사를 맡아 보았으며 이듬해에는 실록청 총재관(實錄廳 摠裁官)이 되어 『철종실록(哲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저서로 『경산집(經山集)』, 『북정록(北征錄)』, 『문헌촬요(文獻撮要)』, 『황각장주(黃閣章奏)』 등이 있다.

30. 박영원(朴永元)

1791(정조15)~1854(철종5)

남산 기슭 예장동 2번지 시냇물 흐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계절의 풍경을 즐겼다. (앞서 소한당(所閒堂) 권람(權攄)이 이곳에 녹천정(鹿川亭)을 지은 바 있다) 그러나 고종(高宗) 때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에 의해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를 짓고 녹천정(綠泉亭)이라 하였으며 그 뒤* 이곳은 국군연합참모본부가 자리잡기도 하였다.

박영원의 자는 성기(聖氣)이며, 호는 오서(梧墅),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예조참의 종순(鍾淳)의 아들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1813년(순조13)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816년(순조16)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다음 가주서(假注書)로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으며 1837년(헌종3)에는 실록교수당상(實錄校讐堂上)을 맡았으며 1842년(헌종8)에는 한성부판윤을 지낸 뒤 호조판서를 거쳐 1846년에는 진하겸 사은사(進賀 兼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국조보감찬집청 교정당상(國朝寶鑑纂輯廳 校正堂上) 등을 지냈다. 1848년(헌종14)에 양선(洋船)의 출몰로 동해안 지방의 민심이 소란해지자 함경도관찰사로 특임되었고 1851년(철종2) 우의정이 되어 실록청 총재관을 겸했으며 이듬해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나 사임하였으며 1854년(철종5)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31. 정지윤(鄭芝潤)

1808(순조8)~1858(철종9)

진고개에서 50평생을 살았다. 자는 경안(景顔), 호는 하원(夏園), 본관은 동래로 조선후기의 시인이다. 태어날 때 손바닥에 수(壽)자의 문신이 있고 이름 지윤의 지(芝)가 한서(漢書)에 지생동지(芝生銅池)로 있다 하여 그 동(銅)자를 따서 수동(壽銅)이란 별호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규율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평생을 포의시객(布衣詩客)으로 만족하였으며 두뇌가 명석하여 아무리 뜻이 깊고 어려운 문장도 한 번 훑어보고 그 요지를 깨달았으나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였다.

그의 시풍(詩風)은 권력이나 금력에 대한 저항 속에 날카로운 풍자와 야유로 일관하여 많은 일화(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번거로운 문장이나 허황한 형식을 배격하고 간결한 가운데 격조 높은 시를 썼다. 특히 술을 즐겨 마셨고 김흥근(金興根)·김정희(金正喜)·조두순(趙斗淳) 등 명사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저서로 『하원시초(夏園詩鈔)』가 있으며 작품으로 『관동상매(關東賞梅)』, 『전춘시(錢春詩)』 등이 있다.

32. 이유원(李裕元)

1814(순조14)~1888(고종25)

남산 기슭 202번지에 거주하였는데 선조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옛 집터를 사서 수리하고 선조(先祖)의 고사(故事)를 추모하여 정자 이름도 전과 같이 ‘쌍희정’(雙檜亭)으로 바꾸어 달고 그곳 높은 바위에 남산을 뜻한다는 ‘굴산’(橘山)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유원은 자는 경춘(京春)이며 호는 굴산(橘山)·묵농(默農), 본관은 경주로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며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41년(헌종7)에 정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 규장각대교를 거쳐 1845년(헌종11)에는 동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의주부윤과 함경도관찰사를 지냈으며 1860년(철종11)에는 한성부판윤에 취임하였다. 안동김씨의 세도를 배경으로 고종 초에는 좌의정에 올랐으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그와 반목(反目)하였으며 1865년(고종2) 판부사로서 경복궁 중건에 대해 재정궁핍을 문제로 난색을 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좌천되었다가 이해 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되어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의 총재관(總裁官)이 되었다. 1873년에 대원군이 실각하자 곧 영의정에 올라 대원군 공격의 선봉이 되었으며, 1875년(고종12) 세자책봉의 주청사로 청나라에 다녀와 인천의 개항을 주장하다가 수구파(守舊派)의 공격을 받고 다시 영중추부사로 물러났다.

1879년(고종16)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으로부터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통상수호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1880년에는 치사(致仕)

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고 안동별궁(安洞別宮) 경연당(慶衍堂) 상량문(上樑文) 제술관이 되었으나 이듬해에 그의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유생 신접(申接)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왔다. 1882년(고종19)에는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서 일본 변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였다.

예서(隸書)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저서로 『임하필기(林下筆記)』, 『가오고략(嘉梧藁略)』, 『명일사(明逸史)』, 『굴산문고(橘山文稿)』 등이 있다.

VIII. 남산(南山)의 축제(祝祭) 및 공연(公演)

VIII. 남산(南山)의 축제(祝祭) 및 공연(公演)

1. 축 제(祝祭)

축제란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제전(祭典)의 준비를 위해 몸을 근신하면서 긴장속에서 지내다가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제전을 끝내고 해방된 상태에서 신명나게 마음껏 노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축제의 유래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등 자연신과 그리고 조상신에게 계절마다의 풍요로움과 축제초복(逐災招福)의 기원을 위한 간절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신에게 바쳐졌던 술과 고기 등 각종 음식과 춤과 노래로서 신을 즐겁게 한 다음, 그 믿음과 확신 아래에서 그 집단의 잔치는 시작되는 것이다. 신에게 바쳐졌던 가무(歌舞)와 제수(祭需)는 신성(神聖)하기 때문에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성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관념은 그 집단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고 협동과 단결을 가능케 한다.

‘축제(祝祭)’의 빌 축(祝)자는 경축(慶祝)의 뜻만이 아니며 기원(祈願)의 뜻도 담겨있다. 제사의 축문(祝文)이라든가 축복(祝福), 축수(祝壽), 축하(祝賀), 축도(祝禱)와 같은 말의 축(祝)자는 경하(慶賀)와 경축의 뜻보다는 신(神)에게 빌고 원한다는 의식의 뜻이 더 강하다. 이러한 어원

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축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축(祝)을 경하(慶賀)의 뜻으로 쓴 것은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서구(西歐) 페스티벌(festival, 축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제의(祭儀)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전통의 경건하고 엄숙해야 할 제(祭)가 무슨 제, 무슨 제라는 용어로 함부로 쓰이고 있는 것은 여흥위주의 축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에는 종교적(feast)인 특성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축제 행사가 있으면 놀자판, 먹자판으로 생각하여 이것이가끔 질서를 잃고 윗사람에게의 경(敬)과 서로간의 신의(信義)를 잃어 개판, 깡판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근거없는 소란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신성관념의 성스러운 대전제 아래에서의 난장판(orgy)이 되어야 한다. 이 난장판에서 연출된 놀이에서 황홀과 도취, 그것은 신성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 때 그 축제는 고달팠던 삶을 새로운 활력의 삶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남산에서의 몇몇 축제행사를 보기로 하자.

(1) 장충단제(獎忠壇祭)

장충단제는 1895년 10월 9일(음력 8. 20) 경복궁에서 일본인이 주동이 된 자객과 난군들에 의해 명성황후(明星皇后) 민비(閔妃)가 시해당할 때 당시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위대장 홍계훈, 시종 임최수 등이 일본인을 물리치다 장렬하게 전사한(을미사변) 영령(英靈)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전이다.



장충단 제향의식

이 제전(祭典)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0년 9월 19일인데 고종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도로변에 사당을 짓고 ‘장충단(獎忠壇)’이라 새긴 비를 세우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는데 올해(1998)로 103주기가 된다.

본래의 사당은 한국전쟁(1950~53)때 파손되고 비는 도로확장과 신라호텔 전신인 영빈관을 지으면서 1969년에 현재의 자리인 장충동 197번지로 옮겨졌다. ‘獎忠壇’이란 3자는 고종의 친필이며 (순종의 글씨라고도 함) 비문은 충정공(忠正公) 민영환이 고종의 칙명을 받들어 쓴 것이다.

봉향(奉享) 인물은 궁내부 대신 이경직을 비롯해서 군부대신(시위대장) 홍계훈, 시종 임최수, 진남영 영관 염도희, 무남영 영관 이경호, 통위영 대관 김홍제, 장위영 대관 이학승, 대관 이종구 등이다.

식순은 개회에 이어 국민의례, 제례(祭禮) 위원 및 내빈소개가 있고

제례위원장의 추모사가 있는 다음 제향의식(祭享儀式)이 진행된다.

제향 진행절차를 보면,

초헌관(初獻官)이 신위(神位)앞에 향(香)을 사르고 폐백(幣帛)을 드리는 의식인 전폐례(奠幣禮)를 행한 다음, 초헌관이 신위앞에 첫 술잔을 올리고 대축(大祝)이 축문(祝文)을 읽는 의식인 초헌례(初獻禮)가 행해지고 아헌관(亞獻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가 진행되며 그 다음 종헌관(終獻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가 행해진 다음 헌관이 음복위(飮福位)에서 음복잔을 마시는 음복례(飮福禮)가 있고 대축이 신위 앞의 제기·제수(祭需)를 거두는 철변두(徹邊豆)에 이어 초헌관이 망예위(望瘞位)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워 땅에 묻는 의식인 망예례가 끝으로 행해진다.

장충단제는 애국충절지사의 추모제례로서 장충단제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주최했으며 중문문화원과 성균관전례연구위원회에서 후원하였다.

(2)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

고려시대부터 고종32년(1895)까지 지속된 전국 각지의 봉수가 수합보고하는 남산봉수대(南山烽燧臺)에서 수행된 점을 착안하여 봉수대가 복원된 남산정상에서 통일을 향한 온겨례의 염원을 담은 통일기원 봉화식을 개최하여 구민의 통일의지와 화합을 다짐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올해(1998) 7회째 행사를 거행하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1부는 식전행사로 북춤이 공연되었으며 2부는 본행사로 개최에 이어 창작무용과 토막극이 공연된 다음 중구청장의 인사말과 축사가 있고 귀순자에 의해 통일기원



통일기원 봉화식

문을 낭독한 다음 창작무용인 (통일)기원무가 공연되고 이어 참가자전원이 봉화점화(축포, 팡파레, 풍선, 비둘기, 불꽃점화)를 하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으로 행사가 끝난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주관하였다.

참고로 통일기원문 전문을 소개한다.

1997년 정축년 1월1일 새해 벽두에 이곳 목멱산 봉수대에서 중구 구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통일을 기원하나이다.

한 형제 한 핏줄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44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냉전의 사슬을 끊어 내지 못하고

불신과 증오의 벽도 허물어 내지 못하고
 민족 화해를 통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
 이제 분단의 골로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냉전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하여
 대립의 구도를 벗어나 화합하고 하나되는 형제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 이나라 이겨레의 오래된 소망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나이다

여기 봉화대에서 피어 올리는 불빛과 연기에 멀고도 가까운 땅
 북녘땅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낸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함께 살아오지 못했던 이 땅을 이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형제끼리의 대결과 불신의 옷을 벗어 버리게 하소서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뭉쳐 분열의 담을 허물어 통일되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 땅에 사랑과 자유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민족과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인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중구가 그 통일을 주도하는 구(區)가 되게 하소서
 알찬 문화의 구가 되게 하소서

15만 중구민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3) 목멱산 천제(木覓山 天祭)

목멱산제는 조선시대 국사당(國師堂)이 이곳 남산 정상에 있었는데 1925년 인왕산 기슭으로 옮기기 전까지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치제(致祭)한 바 있다. 이 치제의 전통을 잇고 또 나라의 평안과 태평을 바라는 목적에서 목멱사랑회와 도깨비문화원(원장 김재연)이 주관 이 되어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1998) 6회째 맞는 행사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목면산 천제 장면

식순을 보면

1부는 개식사에 이어 국민의례, 경과보고, 대회장 인사말씀,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되고 2부는 국악인의 창과 살풀이 공연을 하고 3부는 유례식(儒禮式)으로 목먹산제(木覓山祭)를 지내고 이어 무속인(巫俗人)들의 도당(都堂)굿이 있는 다음 제물하사(下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飮福)로 끝을 맺는다.

(4) 남산골 한마음 축제

남산기슭 옛날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던 청학동, 지금의 필동 언저리에 서울의 8대가로 부르던 사대부집과 평민의 집 다섯 채를 옮겨 놓은 곧 한옥마을 개관을 계기로 중구청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하는 중구(中區)의 모습을 알리고 아울러 국제통화금융(IMF)시기로 지친 구민(區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1998년 10월 22일 이곳 광장에서 민속놀이와 민요 등 전통놀이가 다채롭게 공연되었다.

1부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상모돌리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경기를 각 동 대표선수들이 동마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또 도자기만들기, 떡메치기, 사물놀이 등은 배울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직접 배우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부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무용단이 나와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각설이타령 등을 공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V, 자전거 등 경품 추첨을 하였다. 특히 부녀회에서는 막걸리 안주로 꽃전을 빚어 옛날의 정취를 한층 더 느끼게 하였다.

남산골 한마음 축제는 중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관한 것으로 연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공 연(公演)

(1) 국립중앙극장

장충동 2가 산14~67번지에 국립중앙극장이 있다. 1973년에 명동에서 이곳 남산 기슭에 신축 이전한 연건평 10.988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이 극장은 1950년 민족예술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순수 무대예술만을 사업대상으로 삼고 자체공연·대관사업·시상제도의 실시·연극연기자의 전통예술 계승자의 양성·무대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무대예술의 보급선전과 국제문화교류사업 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는 부민관(府民館)을 극장으로 사용했으며 한국전쟁(1950~53) 뒤에는 명동 시공관(市公館)을 사용하면서 신극협의회를 전속극단으로 하였으나 1년만에 탈퇴하자 1959년에 민극(民劇)으로 바뀌었다. 그 뒤 1962년 국립극단 발족에 이어 국립오페라단·국립무용단이 발족되면서 1967년부터 장충동 일대에 종합민족문화센터로서 국립극장 건립에 착공하여 1973년 7월에 완공한 것이 현재의 건물이다.

대극장 총면적 904평을 비롯하여 무대면적 100평, 객석 1,518석, 조명실, 분장실 2개, 효과실을 갖추었으며 소극장은 총면적 191평에 무대면적 97평, 객석 344평, 조명실, 분장실 2개, 효과실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는 연습실을 공연장으로 만들었고 마당놀이를 위한 야외무대도 개장하였다. 산하에 국립극단·창극단·무용단·교향악단·오페라단·합창단·발레단·가무단 등 8개 단체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국립중앙극장 전경

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야외무대에서 「토요문화광장」을 마련하여 판소리, 살풀이, 북춤, 남도민요, 서도소리, 마당극 등 우리 전통무용과 민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재즈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를 마련하여 시민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놀이마당에서 「수요상설 가정문화극장」을 열어 우리가락 우리소리 한마당을 펼친다.

요즈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의 역할로서 가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2) 남산골 한옥마을 공동마당

남산 북쪽 기슭인 옛날 청학동(필동)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순정효황

후 윤씨친가,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다섯 채의 한옥과 공동마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전통공예를 비롯하여 우리 소리, 우리가락, 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습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마당에서는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립관현악단의 정기공연을 하며 일요일에는 정기민요강습 및 공연을 한다.

참 고 문 헌

조선왕조실록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9

국역 대동야승(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1

국역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8

동국여지비고.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6

한경지략.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6

산경표(영인본). 민속원. 199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1~6권).

문화사적편:민속편·인물편 1977~19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남산의 어제와 오늘. 199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산(나각순 집필). 199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중구편). 199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시사자료 제2~8권. 1982~199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고개(이상협 집필). 1998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신문. 서울시청뉴스. 1982~1998

서울특별시. 서울의 가로명 연혁. 1986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1)권. 1990 (6)권. 1994

서울특별시. 서울명소600선. 1994

서울특별시. 서울성곽. 1976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대관. 1987

서울특별시. 서울설화대전. 1994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지(상·하). 1994

서울특별시 중구. 자랑스런 중구. 1989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의 문화재. 1996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생활 안내. 1998
 중구문화원. 중구사화(박경룡 집필). 1997
 중구문화원. 중구문화(창간호 · 2호). 1997~1998
 중구문화원.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1996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199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관계법령집. 1997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서울특별시편). 1978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79
 김영상. 서울육백년. 대학당. 1994
 임석재. 한국구전설화5. 평민사. 1989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이상일. 한국인의 고향과 놀이. 문음사. 1981
 심우성. 우리나라 민속놀이. 동문선. 1996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박경룡. 서울문화유적. 수문출판사. 1998
 김선풍. 한국민속놀이론 「민속론」. 집문당. 1989
 정재정 · 염인호 · 장규식. 서울근현대역사기행. 혜안. 1998
 정운현. 서울시내 일제유산답사기. 한울. 1995
 이재곤. 서울의 전래동명. 백산출판사. 1994
 이재곤. 서울의 민간신앙. 백산출판사. 1996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서울 남산의 역사와 문화

발행인 · 김영남

저 자 · 이재곤

인 쇄 · 상원사

1998년 12월 25일 발행

중구 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B/D 1층

전화) 775-3001, 2260-1820 팩스) 775-3068

비매품

이책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廳巡

琵琶洞

橋漢河

橋經孝

小笠井洞

大笠井洞

笠井洞

里笠井洞

鉗洞

洞屋竹

草屋洞

誠明坊

山林洞

樂善洞

後川洞

洞館倭

生民洞

宮別南

華洞

鑄字洞

泥硯

校書館洞

墨大將洞

四修堂

均後片

光感門

彰善坊

鐘閣

馬青橋

館碩

訓鍊院

水口

坊碩



門照



於馬橋

明推坊

寧青

橋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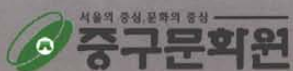
洞小

双里洞

官小



鷹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B/D 1층
전화 02-775-3001
02-2260-1820
팩스 02-775-3068